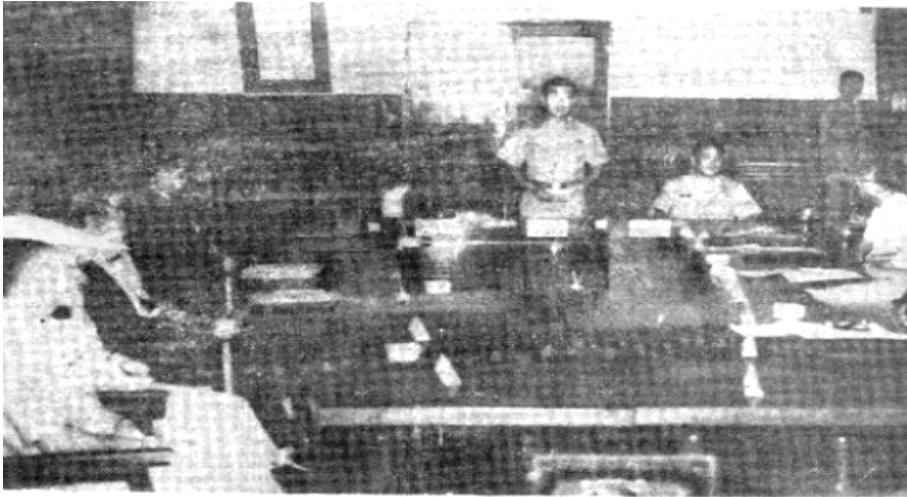


1963



63년도 제2차 공군 전 지휘관회의

66년도 제2차 공군 전 지휘관 회의가 지난 7월 25일 본부 기획 상황실에서 김성은 국방장관 참석, 장 참모총장의 주재로 개최되었다. 사진은 훈시하는 김국방장관과 회의광경.



공군에 과학자문위원회 설치

공군의 과학자문기관으로 과학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학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7월 30일 본부에서 창립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하는 장 참모총장과 위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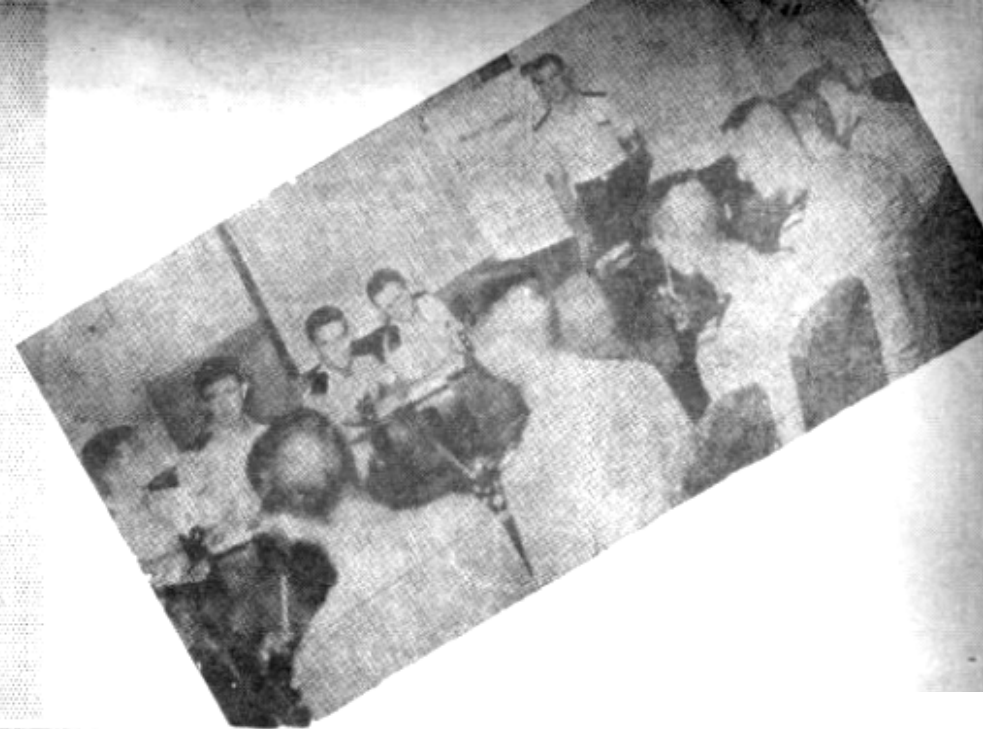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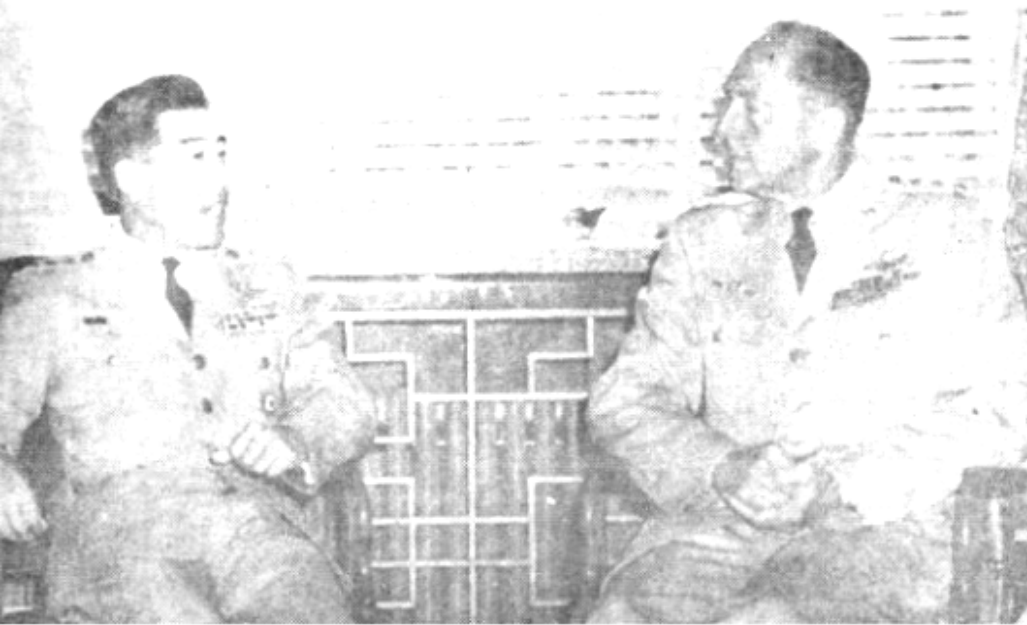


신규UN군사령관 장참모총장 예방

신임 유엔군 사령관「해밀튼·H·하우스」대장과 이임하는 유엔군 사령관「가이·S·멜로이」대장이 7월 29일 본부로 장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스마트」장군 본부로 장총장 예방

미제 5공군 사령관「스마트」장군이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 전임 인사차 7월 20일 공군본부를 예방, 장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 지휘 조종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환담하는 장면.



공사교에서 미공사생을 초청

우리 공군사관생도들은 7월 4일 특별훈련을 위하여 내한한 미 공군사관생도 8명을 초청하였는데 사진은 기념패를 증정하는 등 양국 공사생 간의 환담이 교환되는 장면이다.





공군 77호 주요차례

표지(表紙)	민철홍
목차화(目次畵)	우경희
◇화보(畵報)	표지 2·3면 및 차례뒤

학대(虐待)받는 8·15 이병도(李丙燾) (2)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상(理想)	김기석(金基錫) (9)
민주정신(民主精神)과 군인정신(軍人精神)	이은상(李殷相) (16)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주정신(民主精神)	이보형(李普珩) (20)

특집 내가 본 그 나라의 민주주의

미국 개인(個人)의 능력(能力) 지혜를 계발(啓發)	배재식 (25)
프랑스 평등생활(平等生活)의 표본(標本)	정석해 (29)
영국 타협(妥協)과 인내(忍耐)의 나라	김진만 (33)
호주 개척적(開拓的)이며 낙천적(樂天的)	정도순 (37)
북구 사회복지(社會福祉)로 낙원건설(樂園建設)	정우영 (41)

한국동력(韓國動力)의 장래(將來)	이창건(李昌健) (44)
한국(韓國)의 농산물(農産物)	박노식(朴魯植) (51)
NATO의 공군력(空軍力)	외지(外誌)에서 (78)
한국연안방위강화(韓國沿岸防衛強化)를 위한 항공기론(航空機論)	
.	차순도(車淳道)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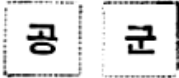
지상강좌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 3	이극찬(李克燦) (143)
공산주의(共產主義) 비판(批判) 3	김창순(金昌順) (150)

◇죄인(罪人)이 따로 없다(법무관(法務官)의 수기(手記)) . . .	하경철(河景喆) (72)
붉은 간첩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박태익 (78)

◇소련의 공포정치(恐怖政治) ④	그리고레프 (103)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한국의 자랑> ⑦	박종화(朴鍾和) (125)

신연재(新連載) 의 명

중국(中國)이 나은 세계적(世界的)인 지성(知性)	임어당(林語堂) (22)
임어당(林語堂)-그가 본 공산주의(共產主義)는?	하정옥역(河正玉譯) (22)
	THE SECRETNAME
시(詩) 님·이제(二題)	박목월(朴木月) (142)
여름구름(글·그림)	김기창(金基昶) (155)
독재정권하(獨裁政權下)의 문학(文學)	거원킨 (117)
<수필>	
해방전후(解放前後)의 추억(追憶)	조지훈(趙芝薰) (156)
나라사랑	윤석중(尹石重) (159)
자주 꾸는 꿈	방기환(方基煥) (160)
잃어버린다는 것	김송희(金松姬) (162)
소설(小說) 무지개	손소희(孫素姬) (164)
◇편집후기	174



<코메로, 미사일 統舍>

제 77 호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이달의 말>

학대(虐待)받는 8 · 15

-북한괴뢰(北韓傀儡)는 역사(歷史)를 왜곡역행(歪曲逆行)하고 있다-



8 · 15의 감격도 어느덧 18년, 그동안 8 · 15의 역사적 의미는 많이 왜곡되었으며 우리의 처음 가졌던 기대는 크게 어긋났다. 그 중에도 소련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북한괴뢰의 매국적 행동은 우리나라 북반부의 강토와 동포를 공산제국주의자들의 발길로 유린하게 하였다.

이병도(李丙燾)

1,

8 · 15의 역사적 의미를 말하자면 먼저 우리나라가 침략자 일제의 기반(羈絆)에서 이탈하여 다시 자유 독립국가로서의 역사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요. 다음은 오랫동안 봉건주의 또는 제국주의통치하에서 침복(蟄伏)하여 있던 우리 겨레에게도 늦게나마 미니주정치 자유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생각하면 일제치하의 36년간은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비운의 역사요, 고난의 생활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리조건으로 하여 유사 이래로 부절(不節)히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을 치러 왔으며 또 때로는 일부의 지역

이 일시적으로 외적에 의하여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침략시대처럼, 일찍이 국토가 외적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온 겨레가 침략자의 억압과 착취 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여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아(我) 문화민족을 토매인우(土昧人遇)』하며 군국주의적 강점을 합리화하고 영구화하려는 일제침략자들의 간악(奸惡)한 행동에 대하여는 겨레의 분노가 한층 더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의 의사열사들은 혹은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항일구국의 함성을 올리며 앞을 서고, 겨레는 다 같이 협력 호응하여 숭고한 조국광복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일제의 독수가 노골적으로 뻗어 들어올 때부터 국내에 있는 선각자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직접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기도 하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침략자의 비행을 규탄하며 동포들의 분발 각성을 촉구하였다. 국외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혹은 침략지흥(侵略之凶)을 격살(擊殺)하는 등의 충분의용(忠憤義勇)의 활동으로 우리의 주장을 널리 세계에 알리었다. 그리고 병술국치 후에 일제의 극악한 무단정치 하에서도 겨레는 항일구국의 의로운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민족적인 투쟁은 3·1독립운동을 통하여 크게 그 역량을 시위하였다. 그리고 국내 해외에서 독립투쟁 및 독립국민으로서의 실력배양을 위한 움직임이 끈기 있게 계속되고 또 널리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대전중, 미, 영, 중 3대국의「카이로」회담에서 이미『조선인민의 노예적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 독립 하게할 결의』를 하고 대전이 종결될 무렵「포츠담」선언문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의 자주독립을 약속하게 되었으며 8·15와 함께 그것이 구현단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역사적 사실이며 민족적 감격이었더냐?

2,

다음, 8·15가 조국이 해방독립과 함께 우리 겨레에게 처음으로 민주정치 자유생활의 길을 열어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미선진제국에서는 자유민주적인 정치제도 사회문화의 발전이 대개 백여년의 역사를 헤이는 시기에도 우리는 아직 제국주의통치하에서의 구속과 억압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구한국 말년에도 구미제국과의 수호통상과 함께「개화」의 물결이 넘쳐 들어왔으며「갑오경장」이나「만민공동회」등을 통하여 신분평등의 보장과 정치에 대한 의사발표의 자유등 민주적인 정치사회의 개혁이 어느 정도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어디까지나 최고통치자인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 하에서의 정치적 사회적인 개선을 지향하던 것이요, 헌법에 의하는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의 구현이라든가 현대적 자유생활의 보장 같은 것은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1차 대전을 전후하여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사조가 세계적으로 풍미(風靡)할 때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강점으로 그 식민지적 억압 착취의 정치 하에서 근 40년간의 긴 기간을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 신음하게 되었으니 비록 선각자들의 민족계몽을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땅의 정치사조 사회문화는 크게 낙후하지 않을 수 없었다. 3·1독립운동을 계기로 하여 중국 상해에서「대한민국임시헌법」에 의하는 대통령의 선거와 국무원의 구성등 입헌민주정치의 조직을 갖게도 되었지만 이것은 해외 만리 이국땅 일우(一隅)에서 있는 일이요. 많은 국내동포들에게는 그 정치제도적인 관심보다는 독립운동조직으로서의 일루(一縷)의 희망을 주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니만큼 8·15는 우리의 영토적 해방과 함께 비로소 우리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정치, 민주주의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또 그것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8·15를 맞이하여 모름지기 3천만 이 다 같이 합심분발 함으로써 독립자주권의 확립과 함께 민주정치, 민주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와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겨레의 유일한 재생 발전의 길이었던 것이다.

3,

그러나 8·15의 감격도 어느덧 18년, 그동안 8·15의 역사적 의의는 많이 왜곡되었으며 우리의 처음 가졌던 기대는 크게 어긋났다. 그중에도 소련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북한괴뢰의 매국적 행동은 우리나라 북반부의 강토(疆土)와 동포를 다시 일본제국주의자 아닌 공산제국주의자들의 발길로 유린하고 쇠사슬로 구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적 사실까지도 모두 유물론적 방식으로 왜곡 선전하여 내외의 이목을 기만현란하고 있는 것이다.

8·15의 해방과 함께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양군의 진주(進駐)는 말할 것도 없이 침략강점자 일제의 군대를 무장해제함에 그 목적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를 일시 진주하게 된 북한지역에 손을 뻗어려하지 않았으며 이 새로운 제국주의「상전(上典)」에게 아부하는 북한의 괴뢰도당(傀儡徒黨)은 소련군 주둔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북반부를 온

통 그들의「상전」에게 바치려고 나섰다. 아니 38선이남의 지역까지도 공산 제력권화하려는 흥모와 음모를 계속하여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5개년간의 신탁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막부삼상회의결정」이 전하여질 때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주독립 아닌「신탁통치」를「절대지지」한다고 떠받들고 나서서 외국인들의 신탁통치기간을 통하여 전 한국을 소련 연방화 할 기초를 닦아놓으려 하였으며「유엔」총회의 결의로「유엔」감시하에 전 한국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들은 다시 소련군대와 부동(附同)하여「유엔」위원단의 북한진입을 거부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이요 민족적 염원인 통일독립의 길을 막아놓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먼저「유엔」결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침 하에서 1948년 남한에서 5·10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온갖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였으며 민주선거에 의한 합법적인「대한민국정부」가 성립된 다음에는 다시 흉악 무쌍 하계도 무력에 의한, 남북한의 공산통치를 기도하여 6·25의 참변을 일으키고 소련군은 물론 중공군까지 대량으로 끌어들여 민족 살육의 역사적인 대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북한괴뢰의 만행이야말로 일제기반으로부터의 감격적인 8·15의 해방을 다시 소련의「인간지옥」으로 환치하려는 역사적인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진작부터 소련군의 세력을 업고 북한 내의 수많은 애국지사와 자유민주주의를 희구(希求)하는 동포들을 투옥 학살하고 공산극렬분자(共產極烈分子)들로 인민위원회를 조직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식의 정치체제를 마련하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면에서의 소련화 공산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름도 장황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여 조국의 장기분열을 가져오고 국가의 상징이요 민족의 정신인「태극기」와「애국가」를 소련 연방화를 표시하고 찬양하는「인민공화국」의 위조적인 국기 국가로 대체하였다. 해방 후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은 어느 하나 8·15의 역사적 의의를 왜곡내지는 말살하고 거레를 공산제국주의적인 구속과 억압과 학대의 구렁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하겠다.

허울 좋은 공산주의이론을 떠들어대며「경제적 해방 없이 인민의 자유 없음을 부르짖고 대공장의 국유화 토지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공장을 국유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 토는 발같이하는 자에게 무상분배 함으로써 농민생활을 향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북한의 노동자 농민은 일제 강점기이상의 확대를 받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내외에서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들 북한의 노동자 농민들은 근소한 배급을 받고 고역을 하루하루 계속하는 부득이한 의무만이 나날이 가중되어갈 뿐이며 생활의 자유라든가 향상 같은 것은 이제 와서는 몽상도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의 이론을 들고 나와 개인의 소유를 강탈하여 농민에게「무상분배」하였던 농지를 이제는 다시 무조건「무상회수」하였다. 약간 남아있던 개인의 수공업경영조차 전부 공유화하였다. 농민과 수공업자는 모두 농업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이라는 공동주의 조직체에 예속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괴뢰의 김일성은 소위 당 대회에서

『전후시기에 전면적으로 전개된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업의「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미 1958년에 거의 동시에 완성되었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사회에서의 경제는 그들 김일성일당에 의하여 완전히 강탈 독점되고 전체 인민은 극한의 채금(債金)과 배급으로 혹사되고 연명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야말로 완전한「적빈상태(赤貧狀態)」「무산계급화」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 무슨「인민의 자유」가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희망과 이상이 있을 것이라?

5,

북한괴뢰는 8·15의 역사적 의의와 배치되는 행동을 감행 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8·15의 사실(史實)은 물론 다른 국사상의 중요한 사실들을 모두 유물사관의 정식에 들어 맞추려 하며 특히 최근세사상(最近世史上)의 의의있는 사실들은 이것을 공산당 또는 그들의 소위「위대한 영도자」라는 김일성과 결부시켜 왜곡 조작하여 선전 선동하고 있다. 즉 많은 선열 의사와 선각자들의 국내외서의 애국적인 항일투쟁 구국운동이 계속되고 그것이 널리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제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역사적인 8·15의 해방을 가져온 사실을 그들은 김일성의 혁명적 투쟁에 의한 결과라고 하며 심지어는 김일성이 아직 15세 때의 일인 1929년의「광주학생사건」을 후안무치하게도, 김일성의 용감한 항일유격투쟁에 의하여 고무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소위 노동당의 기관지(機關紙)「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하여 대서특필로 허구 선전함으로써 김일성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중에도「3·1독립운동」에 대한 그들의 왜곡선전은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모든 간행물이나 또는 김 일성의 소위「보설연설(報舌演說)」등을 통하여 판에 박은 듯이 3·1운동은 소련 「10월 혁명」의 직접영향으로 일어났으며 미국의「윌슨」대통령이 주장하던「민족자결주의」는 도리어 해독이 되었고 미국인들은 3·1운동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1운동의 주요한 실패원인은 공산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 이라고 하고 또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혁명투쟁은 상층부에 나쁜 놈들이 끼어서 실패하였다』고 하며 3·1운동의 지도자들인 33인에 대하여서도「배반자」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나?

지금 그들에게는 다만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상전이 있을 뿐 민족적양심이나 애국심은 털끝만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나라를 통일하고 조국 땅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므로 서만「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며 그들은 모든 민족적인 기념행사까지도『청년들을 쟁취하고 민족적 진보적 인사들을 이끄는』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6,

『천여불취 반수기구(天與不取 反受其咎)』이라는 동양의 금언이 있다. 즉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입는다는 말이다. 8·15의 해방이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바 역사적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 선열지사들의 몸과 마음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공든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괴뢰는 이「천여의 기회」를「공든탑」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을 일삼아 왔다. 역사가 지시하는 민족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자주독립대신 조국의「소련 연방화」를 위하여 열중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 적인 사회발전은 커녕 동포들을 공산독재의 철책 안으로 몰아넣고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실들까지도 왜곡 조작하여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악행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8·15의 학대도 역사의 역행도 이 이상 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이 매국집단들의 만행을 압담하여지는 민족의 앞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만 있어야 할 것인가?

『천(天)은 자조자를 조(助)한다』고 한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개척하여야만 할 것이다. 국제정세의 복잡 변전을 저주 또는 관망하기 보다는 먼저 그 복잡 변전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민족적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공산괴뢰의 매국적 행동을 봉쇄할 만한 승공의 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공산 집단이나 또는 일부 외국인들의 우리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의의에 대한 왜곡 선전을 분쇄할 수 있는 역사 미 문화면에 있어서의 연구발전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 역사상의 비운의 사실들은 물론 우리나라 주위에 둘러있는 강대민족들의 침략행위에서 온 바도 많았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여 본다면, 그 모든 비운의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의 내부적인 과오가 수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화가 밖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외화(外禍)가 침입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우리 민족 자체 내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백년 연후인 오늘에도 새삼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송구한 마음을 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만의 일이라도 지난날 잘못 굴러간 수레의 바퀴자리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다. 8·15의 해방을 맞이하던 그날의 감격을 되살리면서 8·15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확인하고 역사가 지시하는 방향에 의하여 매진함으로써 겨레의 앞길을 거듭 빛내야 하겠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서는 국사를 빛낸 선현 선열들의 숭고한 구국정충(救國精忠)의 정신을 본받아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여하한 고난과 박해라도 이를 극복 타개할만한 결의를 이해의 8·15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굳건히 하여야 하겠다.

◇미국대외원조의 실천

미국의 대외원조는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1, 「터어키」「그리스」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터어키」로 하여금 소련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공산주의의 강요를 물리치게 하였고「그리스」로 하여금 공산주의 침략을 배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이들 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2, 영국을 포함한 서구세계에의 미국의 원조는 세계사상 가장 파괴된 전쟁의 황폐로부터 재건 시켜 군사력의 재정비를 촉구하여 스탈린의 확장주의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으며 서구로 하여금 오늘날, 세계 제2의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3, 「이란」「파키스탄」한국, 자유중국, 인도 베트남 등 공산권과 인접한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만일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거의 공산권 판도내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마-살 플랜」은 우선 이것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마살 계획과 세계평화」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상(理想)



1896년 서재필박사는 미국에서 돌아와 개화파의 청년들과 더불어 독립협회를 일으켰다.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독립회관을 설치하고…………. 이 독립협회운동이 동방민주주의의 성스러운 묘종(描種)이었다. 그런데 한토(韓土)의 토양위에 뿌려진 이 희망의 씨는 70년이 넘도록 조용히 땅속에 묻혀있어 지면위를 스쳐가는 여러 차례의 폭풍우를 아련하게 느끼고만 있었다.

김기석(金基錫)
〈건국대학교 교수〉

1,

서재필박사가 뿌린 오래된 씨가 영웅(英勇)스럽게 올라오는 때가 왔다. 1960년 4월 18일에 두 주일동안 서울을 위시하여 전한역(全韓域)을 휩쓴 학생들의 대 시위가 그 터져 올라옴이었다. 이 어린 싹들의 분진(奮進)으로 하여 지구의 지각(地殼)이 크게 흔들렸다. 동방의 하늘에는 또 한번 놀라운 광망(光芒)이 올라간 것이었다. 지금 우리들의 소원은 이 상서(祥瑞)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소중하게 가꾸고 조심스럽게 지켜 자유민주주의의 울창한 수림으로 일으키는 일이다. 구정권말기에 어떤 외국사람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올라오기를 고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시궁창에서 마침내 장미꽃이 올라온 것이었다. 장미꽃이 올라 왔으니 시궁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으려니와 시궁창이었으니 올라온 것이 장미꽃이 아닐 것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오늘의 우리들의 정치와 산업과 문화를 향도(嚮導)하는 빛나는 이념인 것이다. 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 역사적 경력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은 여기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회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한 형태로서는 이미 고대희랍의 아테네에서 그 자태를 보였다. 한 사람의 전단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나라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 같은 체제는 다른 많은 민족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그 정도의 차는 있었거니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실로 만인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는 원리로 채택되어 이것이 정치와 산업과 문화를 위시하여 생활 각 분야를 이끄는 생생한 힘과 진리가 된 것은 근세이후의 일일 것이다.

서양에서는 그 정치가 왕정, 공화정, 민주정, 제정(帝政)의 형클린 선을 그어오다가 16,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불란서에서 보는 절대왕정에 들어섰다. 「찰스」1세나 「루이」14세가 그 전형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절대왕정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시기가 왔다. 1640년에서 42년에 이르는 영국혁명이 근대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승리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한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 영 불 한구석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영웅한 푸른 싹은 오래지 않아 그 푸른빛이 구라과 전역을 덮기에 이르렀다. 빛에 대하여 어둠은 시기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른 봄에 대하여 밀려가는 겨울은 마지막 형세를 가해오는 것이었다. 이 어둠과 폭풍에 쫓기어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미주에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행렬의 줄이 벌어 나갔다.

2,

불란서혁명 당시의 표어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서로 돕고…………. 이것이 근대민주주의의 근본일 것이다. 이 정신이 개인 사이에 이룩되고 민족사이의 의식에 있어서의 진보라고 했거니와 「나폴레옹」을 마상의 세계정신으로 우러러 본 이 관념론철학자에게는 불란서에서 이러한 세기적인 사태가 인류의 자유를 한없이 넓혀나가는 눈부신 진보로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전제와 구속과 지루한 꿈에서 풀리어 나와 부풀은 가슴을 안고 대지위에 올려 나온 것이었다. 자유,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안타깝게 그리웠던 것이었을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신앙적 자유…………. 이중에서도 가장 갈급한 것이 먹고 살아가는 자유, 경제적 자유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근세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이 자유가 먼저 경제적인 면 산업적인 면에서 번져 나가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첫 번 형태가 이 같은 자유주의로서 이것을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영국적 형태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제1형태가 영국에서 자유주의로 그것도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둘째 번 형태가 평등주의로서 이것을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불란서 적 형태라고 부르려고 한다. 불란서사람들이 사랑한 자유는 경제와 관련된 자유보다도 정치와 관련된 자유였다. 이것은 영국백성들이 비교적 먼저 정치와 관련된 자유를 쟁취하여 그 관심이 경제활동에 기울어졌음에 반하여 불란서 백성들은 절대왕정아래 심하게 눌리어 그 반발이 한결 분방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1780년대의 불란서백성들에게는 가장 갈망되는 것이 정치인 자유였다. 이것이 저들의 경우의 민주주의가 영국과는 달리 평등주의로 전개된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영국의 경우는 단순한 자유주의도 아니고 단순한 평등주의도 아니고 박애주의 봉사주의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를 산업민주주의, 불란서의 경우를 정치민주주의라고 하면 미국의 경우는 종교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민주주의의 영구적인 형태라고 부르려고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산업이나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바 아니거니와 구대륙에서 신대륙에 건너간 이들이 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것을 생각하면 이 겸허청신(謙虛淸新)한 정신이 그들의 관심을 한층 더 이 방향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영국적 형태와 민주주의의 불란서 적 형태와 민주주의의 미국적 형태와…….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하여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그 현실적인 제약아래 각각 자기를 자유평등 또는 박애의 면으로 끌고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 세가 지면의 하나하나를 강조하는데 따라 이것을 자유의 민주주의, 평등의 민주주의 또는 봉사의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중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자유의 민주주의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근본신조로 하는 본래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분파나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의 민주주의인 것이니 본래의 불교를 근본불교, 본래의 기독교를 원시기독교로 부르는 것 마냥 오늘의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서 떠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한 하나의 강력한 원상복귀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3,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다. 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기 어려울 것이다. 평등이 없는 것에 민주주의가 있기 어려운 것이다. 박애와 봉사가 없는 것에 민주주의가 있기 어려운 것이다. 영국의 경우가 자유를, 불란서의 경우가 평등을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가 박애를 주로 끌고 나가 각각 자유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로 발전되었거니와 민주주의는 본래 이 세 가지 정신이 한꺼번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다른 둘과 갈리어 그것도 어떤 한 분야, 산업이나 정치 같은데만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신조로 하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이념이 되기 전에 그 자신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다. 개인도 이 원리에 의하여, 가정도 이 원리에 의하여, 국가도 이 원리에 의하여, 국제사회도 이 원리에 의하여 될 것이다. 심지어 인사뿐만이 아니고 대자연과 우주자체도 여기에 이끌린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니 이러므로 민주주의는 인생과 자연을 통한 근본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무엇이 있다고 한다.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있고, 이렇게 하여 자연 속에 인간과 역사와 문화가 벌어나가고…….그런데 어떤 하나가 있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전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가령 한그루 소나무가 있고 그 옆에 바위가 있을 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있고 바위는 바위대로 있는 것이니 이「저저대로」가 모든 것이 있는 존재의 제1이법이 될 것이다. 저저대로 있음은 그 자신의 독립을 지키면서 나에게 눌리거나 거리끼거나 기대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저대로 있음이 자유로움이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 있지 못하고 남에게 눌리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북하고 부자연하고 답답하고 윤패(幽閉)된 상태가 될 것이니 결국 이것은 있는 것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있는 것은 조그만 티끌에서 아득한 태양계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로 자기를 지키면서 저저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니 여기에 어떤 것이 자기를 어떤 것으로 한정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저저대로」는 다시 자기 옆에 남이 있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내가 있고 남을 있게 하고……. 이「남을 있게하고」가 존재의 제2이법으로서 저저대로 있으면서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는 자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저저대로」가 자유인데 반하여「남을 있게 하고」는 평등이 되는 것이다. 소나무 옆에 바위가 있을 때 소나무로서 보면 소나무 저대로 있으면서 바위를 있게 하는 것이고 바위에서 보면 바위 저저대로 있으면서 소나무를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있기만 하고 남을 있게 하지 못할 때 이 독선인 자기는 자기를 고립 분리시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마침내 자기질사(自己窒死), 자기폐기에 마치는 것이다. 독립의 모습이 자유인 것 마냥 협동의 모습이 평등일 것이다. 자유는 마땅히 평등에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평등에

나아가지 못하고 한갓된 자유에 떨어질 때 이 교만한 자유는 마침내 독재, 억압, 침략, 강권에 맞췄 개인으로서는 사나운 전단(專斷), 국가로서는 제국주의에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있는 것이 처음에「저저대로」에서 시작하여 이것이「남을 있게 하고」에 나아감을 보았다. 자유로움은 마땅히 평등함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세계는 단독과 고립을 처하고 산봉우리가 산맥을 이루고 구름이 하늘에 연 달듯이 하나인 연맥을 이루기에 이른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경우고 민족의 경우고 자기혼자의 자유를 누리는, 이를테면 제1보에서 점점 쓰러지기 쉬운 것이다. 저들은 자유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를 모른다. 자유가 조심스러운 자주와 자립에서 거친 자의와 방종에 굴러 떨어지는 것은 대개로 이 제1보에서의 것이다. 자유는 이를테면 자기를 쟁취하자마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과…….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있는 것은「저저대로」에서 시작하여「남을 있게 하고」또 나아가야 하거니와 이제 다시 그 제3보인「함께 더불어」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함께 더불어」가 존재의 제3이법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저저대로 있고 남을 있게 한다고 해도 이 나중 모습인「함께 더불어」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겨우 하나에서 둘까지는 얻었거니와 이것 역시 어느 의미의 고독 분산, 전멸이 되어 그 자체의 참됨을 아로새기지 못하고 말 것이다.「저저대로」가 자유,「남을 있게 하고」가 평등임에 반하여「함께 더불어」는 박애가 될 것이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것은 떨어진 셋이 아닐 것이다.「저저대로」가「남을 있게 하고」에 나가고 이것이 다시「함께 더불어」에 나가 여기에 알맹이 하나하나가 굳게 엮고 아름답게 연달은 대천삼천세계(大千三千世界)의 전개를 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4,

서양근세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쟁취하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것이 경제에서는 자유주의경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정치, 문화에서는 이성주의문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이 자유를 쟁취하는데 용감했거니와 이것을 지키고 가꾸는데 경건하지 못했다. 저들의 민주주의는 이 자유로서 일어났고 겹하여 자유 때문에 걸쳐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케네디」미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에서 서방진영은 오랫동안의 식민지주의 자기 팽창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동주의시대에 돌입했다고 했거니와 이 주목할 만한 구절은 서구민주주의의 자기반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근세의 경우에는 개체해방의 원리로 출발했다. 문예부흥기이후로 종교의 분야에 서고 세속에 분야에 서고 자꾸만 개체해방의 방향에로만 달리어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본원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개체와 개체사이의 지나친 혼란이 어지러운 티끌과 웅성거리는 소리를 하늘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1890년대의 독립협회운동에서 그 근원을 발한 동방민주주의는 이 개체주의 분열주의에 지친 서구민주주의를 대담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서구 자체 안에서 서구민주주의의 이 같은 자유주의편향, 물질주의편향 때문에 서구문명의 종말을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거니와 사회주의운동이나「카톨릭」주의나 기독교 민주당 같은 것은 대체로 서구민주주의의 종말의 방향을 시정하자는 것이고 역사적인 문헌에 나타난 사상의 표현으로서 국제연합현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합의 정신을 표시한 다음의 구절「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안전체제」「국가와 국가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의 발전」「국제적인 제반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동의 성취」같은 것들은「케네디」미대통령이 강조 하는 대로 낡은 민족팽창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동주의시대의 도래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국제연합현장의 정신을 협동민주주의 또는 협동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 자세히는 본래의 이념은, 실상은 국제연합현장에 보이기 전에 이미 30년이나 앞선 1919년의 한국 사람들의 독립선언이 3·1독립선언서에 나타났다.

독립선언서는 그 모두(冒頭)에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선언하면서 이것이「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는 길」이라고 논정(論定)하고 민족의 역사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아생존권(我生存權)이 박탈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심령상발전(心靈上發展)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며 신예와 독창으로써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비(寄與補裨)할 기연(機緣)을 유실함이 무릇 기하노라고 자문했고 일본의 불의를 나무래고 동양의 이상을 천명하는 단(段)에서 남을 꾸짖기 전에 깊이 자기를 고발하는 정신에 이끌리면서 동양의 삼국 한, 중, 일 세 나라가 각각 독립을 지키면서 협동을 굳건히 하여서 세계평화 인류행복의 기반인 동양평화를 이룩해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나중에 도의의 찬가를 드높이 부르면서「아신천지가 안전(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來)하도다」라고 하여 역사의 새로운 죽음(足音)을 서술했다. 뒤이어「오등(吾等)이 전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我)와 동존하며 진리가 나와 진병(進俳)하는도다」라고 하여 양심과 진리에 귀명(歸命)하여 유물유일 새 역사창조에 매진하기를 권설(勸說)했다.

독립선언서 이것은 진실로 동방민주주의의 불멸의 대헌장인 것이다. 영국의 Magna car Ta 미국의 독립선언서, 불란서의 인권선언, 한국의 독립선언서, 국제연합헌장이 있는 한,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장엄한 이상이 잠시라도 흐리어 질수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권리의 민주주의보다는 의무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가 개인의 민주주의보다는 민족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물질의 민주주의보다는 정신의 민주주의도덕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원심(遠心)의 민주주의보다는 구심(求心)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극한 투쟁의 민주주의보다는 호양(互讓)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자유방임의 민주주의보다는 계획성 있는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자기주장의 민주주의보다는 봉사의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시대다. 감정에 달리는 민주주의보다는 이성에 돌아오는 민주주의가 요청된다. 우리들은 하나를 낳은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하나를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를 자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하나를 협동의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협동의 민주주의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독립협회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방민주주의의 꿈이요 소원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와 박애주의와 민족의 독립과 민주정치와 복지사회와…………. 개인이나 국가나 국제사회를 통하여 또는 정치나 산업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종교를 통하여, 이 개체와 전체의 아름다운 전입과 원현(圓現)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민주주의의 이상경일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올라오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이 있었다. 그런데 1960년 4월 하늘아래의 영웅한 풍토 속에서 시궁창에서도 장미꽃은 마침내 올라오고야 말았다. 우리들에게는 이 독립 협회때 뿌려진 씨이 70년 후에야 올라온 이 조심스러운 발아를 한강과 백두산, 그리고 나아가 양자강과 천산산맥을 뒤덮는 울창한 수림으로 가꾸고 이룰 때가 돌아올 것이다.

◇중공의 경작과 생산

중공은 그 광대한 국토에 비해 가경지는 매우 저율이다. 총면적의 약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생산비율도 형편없다. 「마지기」당 평균 1석, 곳에 따라서는 반석이다. 남방의 이모작지대가 겨우 평균수준인 3석에서도 부족한 2석정도이고 북부지방은 남방의 반에도 미급하다. 중공은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식량은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중공에는 경작지가 얼마라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런데도 중공은 건설재료가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부족한 식량을 수출하고 있으니 식량난은 더욱 심우(甚尤)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인민공사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정신과 군인정신

노산 이은상



민주주의란 것은 근대사상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이미 인간의 역사와 함께 본시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인류와 집단생활을 시작하던 때부터 서로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고, 서로의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등과 호혜의 대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민주정신 그것인 것이다.

그리고 군인이란 제도의 발전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던 지간에 그것이 생겨진 본의는 역시 집단생활의 보장이란 점에 있는 것인 만큼,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적 요소도 역시 그 집단생활의 대원칙인 민주정신 속에 뿌리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혹시 얼른 생각하면 민주정신은 마치 자유 방만 적이요, 군인정신은 독재위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민주정신이 결코 자유 방만도 아니며, 군인정신이 또한 결코 독재위압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그 출발의 기본 성격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여기서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적 요소의 합치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중국 고대 진문공이 초나라 장군 자옥과 마주 싸우게 되었을 때에, 자옥은「지금 저 진나라 군사들이 잔뜩 피로했으니 치고 들어가자」고 하자, 부하의 어떤 이가 도리어 그를 만류하되「지금 저 진나라 군사가 피로한 것이 아니요, 군사란 옳은 경우에는 사기가 왕성해지는 법이고, 옳지 못한

경우에는 기운이 빠지는 것이요」

(師, 直爲壯, 曲爲老)

하고 말했던 것은 그때 초나라 군사는 남을 침략하는 걸음이었지마는 진문공의 군사는 정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다. 그랬으나 자옥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필경은 실패하고 말았음을 본다. 군인정신의 가장 첫째 되는 기본 요소는 바로 이「정의의 정신」이다. 바르다는 것, 옳다는 것, 그것이 사기를 만드는 것이요, 굽은 것, 옳지 못한 것, 그것으로서는 기운이 빠지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위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정신이야말로 군인정신의 가장 기본 되는 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

동서양 역사상, 모든 승리의 영웅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승리의 요점은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스스로 큰 기운을 얻었던 그것이다.

우리 충무공이 1597년 이른바 명량 해전에서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3백여 척의 적선단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얻었던 것도 역시 정의의 승리였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정의의 정신」이야말로 군인정신과 민주정신의 합치점인 것이다. 민주정신도 어디까지나 이 옳다는 신념,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옳다는 것에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는 군인인 만큼 그들 앞에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느냐, 과연 예로부터 장군의 기개는 꺾는 이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제왕도 그 기개를 꺾지 못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어떤 정치적 권력 앞에 굴복하고 아부하는 장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옛날 한나라 문제 때에 주아부란 장군이 흉노를 상대로 전쟁하고 있었을 때에 임금이 그를 위문하러 간 일이 있었다.

선발대가 영문에 이르러「황제가 거동하니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문을 지키고 있던 군졸은 대장의 명령 없이는 영문을 못 여는 법이라 하고 열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황제가 왔다. 그랬으나 영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안에서 장군의 명령을 받은 뒤에야 겨우 문을 열어 주었다. 다시 그 다음에 황제가 수레를 타고 들어가자 한 졸병이 나와「영문 안에서는 수레를 타지 못하는 법이외다」하고 수레에서 내리라고 했다. 황제도 하는 수 없이 수레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다시 그 다음 장군 주아부는 황제 앞에 나서며 엎디어 절을 올리지 아니하고 다만 손을 모아 읍(揖)만하며 말 하되

「군중에서 갑옷 입은 장수는 절하지 않는 법이오이다」

(介冑之士不拜)

하였다. 위문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 황제는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과연 참 장군이 로다」(果是真將軍也)

하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오랜 옛날에 과연 이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지금 들어도 놀랄만한 민주적 풍경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불굴의 기개」인 것이며, 거기에 민주정신과 군인정신의 합치점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불굴의 기개란 것은 확고한 자기 신념의 발로인 것이며 확고한 신념이란 것은 역시 자기의 독립적인 역량에서 솟아나는 것이니 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제힘으로 제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민주정신이요, 또 군인정신인 것이다.

이같이 어떠한 권세 앞에도 아부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군인으로되 그 반면 자기 부하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그 부모를 울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일찍 위나라 오기와 같은 병장은 병졸의 등창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 주었던 것이다.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 되고 병원시설이 훌륭한 시절이 아닌 그전 고대에 있어서 소위「등창」이란 병은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고통보다도 생명이 달린 위태로운 병인데, 그렇단 들 그 등창에다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장군이 부하 졸병 쯤에 대해서이겠느냐.

그래서 그 졸병의 어머니가 감격해서 울었다는 것이 역사에 적혀 있거니와 이 같은 부하에 대한 사랑은 집단사회의 융화를 위해서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니, 이른바「전우의 사랑」이야말로 그 또한 군인정신과 민주정신의 합치점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위대한 군인정신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저 유명한「넬슨」의 말을 빌려 올 것조차도 없이, 동서의 명장들이 모두다.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다.

제나라 장수 전단이 자기 몸소 호미와 괭이를 들고 일을 했으며, 그래서 병졸들과 함께 달고 쓰고를 같이했다. (身操版鋤, 興士卒同甘苦)는 기록은 후세에 길이 전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 충무공도 종일토록 접전하고서 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졸들은 내일의 싸움을 위해서 편안히 잠을 재우고 자기는 홀로 일어나 등불을 켜고 손수 내일 쓸 자기의 화살을 다듬었다. (獨坐挑燈, 手自理箭)는 것이 충무공의 사적에 적힌 한 토막이다.

이같이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자기의 할 일을 다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자기 책임의 완수」야말로 그 또한 군인정신과 민주정신의 합치점인 것이다.

더구나 이 책임완수의 정신이란 것은 집단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희생정신과도 통하는 고귀한 정신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민주정신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실상 진정한 민주정신은 오히려 자기희생의 정신, 멸사봉공의 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해명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민주주의적 희생정신이란 것이 결코 어떤 전체주의적 개인말살과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주의 사상은 어느 독재적 세력 아래서 전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전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확인, 보장하는 연결체에 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의 권익옹호 기구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 개인의 생명과 권익과 행복과 자유란 것도 그가 종속되어 있는 그 집단사회, 말하면 전체라는 것을 떠나서는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떠난 전체도 있을 수 없는 대신, 전체를 벗어난 개인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체란 것이 커다란 외국에 처했을 때에 자기 일개인의 권익과 행복을 헌신짝처럼 내어 던지고 다른 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전체 앞에 자기 개인을 희생해버리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정신이요 군인정신인 것이다.

그 전체를 잃어버리고는 그 속의 한 부분인 자기 개인도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서 전체를 구출한다는 것은 결국 따지면 자기를 구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멸사봉공의 정신」이야말로 군인정신의 최후의 보배인 동시에 민주정신의 고귀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주의 시대엔 오늘에 있어서의 군인들은 정의의 수호, 불굴의 기개 전우의 사랑, 책임의 완수 멸사봉공의 정신등 몇 가지 요소에서 민주정신과 군인정신의 합치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참된 군인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새 시대의 일원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 1963, 7, 7 -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주정신(民主精神)

민주정신의 체득 없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결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을 철저히 인식해야 하겠다.



이보형(李普珩)
〈동대 교수〉

8·15해방과 더불어 그때까지 책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왔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와의 첫 대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의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제의 뒤를 물려 받아 당분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를 지도할 임무를 지니고 진주한 미군의 모국인 미국은 바로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간에 우선은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이북의 사정과 대조하여 보면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북의 공산주의체제는 이북에 사는 우리의 동포가 공산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거기에 진주한 소련이 바로 공산주의국가 이었다는 데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와의 첫 대면은 우연한 일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좀 더 크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필연적인 대세였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팻시즘」과의 싸움인 제2차 대전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므로써 이미 민주주의를 받아드린 국가는 더욱 민주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새로이 일어난 국가들은 다 같이 민주주의를 받아드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력 있는 존재였던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국가까지도 자기네들이야말로 참된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거짓 선전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있어 민주주의를 받아드리게 된 것은 그것이 설사 우연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는 마땅히 받아드릴 것을 받아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유리한 출발점에서 있었다고 이것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에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북의 실정과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 도입이란 다행한 일이 있었던 반면에 커다란 불행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불행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로 민주주의가 도입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별 국은 남이 우리에게 준 것, 즉 우리의 민주주의가「주어진」민주주의였다는 것, 둘째로 이「주어진」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제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발전하여 완성품에 가까운 민주주의였다는 것, 바로 이 두가지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뿌리를 박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남이 준 것은 그것이 여하히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믿은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소중히 다룬다는 점에 있어 모자라는 점이 많이 있게 된다. 또 여하히 훌륭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드릴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면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인데 사실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키워나가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각 개인의 귀중한 표가 몇 푼 안 되는 금전이나 물건으로 맞바꾸어 지는 일, 걸핏하면 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성에 맞지 않는다는 조급한 결론이 나오는 일, 이러한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경향의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한「유럽」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푸대접은 대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의 피에 대가로서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령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근본사상으로서 내세우고 있다. 이 사상이 인정되기 전에「유럽」에서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 왕권신수설이 무너지고 주권재민설이 그 뒷자리를 차지하는데 있어서는 커다란 사건만을 든다 하더라도 17세기부터 18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대가로서 얻어진 주권재민설이 그 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가는 다시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권재민설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어 모든 국민이 이른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다시 말하자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 평등론의 입장에서조차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참정권을 갖게 되기에는 그 후 또한 백년 이상의 시일이 걸렸다. 긴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도 흘려졌다. 19세기에 들어가서「유럽」각국에서 무수히 일어난 혁명 떠는 일대군중의 시위와 같은 사건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참정권에 있어서의 성인남녀의 평등이 인정되기에는 이른 것은 실로 제1차 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길고도 가시밭길을 뚫고 나온 뒤에 얻어진 고귀한 것이었다.

「유럽」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결국 한 마디로 말하여 해방 후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되 그것을 받아드릴 준비가 너무도 부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방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수난의 커다란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 땅에 확립시키는데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주어진」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서는 완성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가감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못 손질을 하여 개악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하나의 목표로서는 더할 나위없는 목표를 우리는 두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은 적응시켜나가는 일만이 남아있고 비상한 노력이란 바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하루 바빠 민주정신을 체득하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민주정신을 체득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은 뿌리를 박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운명에 우리들 자신이 순조롭게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정신으로의 정신적 무장이 시급한 일로 요청되는데 이 무장은 우리들 국민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의 담당자인 정부에게 더욱 요청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 후진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곳에서는 정부에서 보다 많이 지도적 입장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부자신이 민주정신을 체득하여 참된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체득해야 할 민주정신이란 무엇이나? 이점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적 실례를 통하여 우리가 참고하고 알아야 하고 또한 실천할 일은 많이 있겠으나 우선 민주주의의 근본사상이 우리머리에 철저히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된다. 이 민주주의의 근본사상을 요령 있게 표현한 것으로는 미국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 나타나 있는 구절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구절을 인용하여 보면,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은 그들에게 몇 개의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주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자유·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리는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변혁내지 폐지하여 피통치자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를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상-인간의 평등 인간의 제 권리 동의에 의한 정부의 조직, 정부의 변혁-이중의 하나라도 부정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독립혁명당시 이와 같은 사상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미국민에게 받아드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식으로까지 되어 우리 몸에 배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체득해야 할 민주정신에 있어 우리의 실정과 아울러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준법사상과 무관심주의의 타파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준법사상에 관하여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만치 이점에 있어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국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왕정 또는 일제의 탄압정치 밑에서 법을 무시위하고 법을 맹종하는 습성이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준법은 이와는 다르다. 결국 법은 우리들 국민이 만든 것이므로 우리들 자신이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납득이 간 행위로서 너무나 당연할 일인 것이다. 실제로 있어 해방 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이 준법사상은 국민에 의하여 침범되었다기

보다는 정권의 담당자인 정부가 오히려 이 사상을 소홀히 한 면이 많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법을 그때그때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지키지 않은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중의 가장 큰 사건이 3·15 부정선거이며 그와 같은 불법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이 4·19의 의거까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정권을 위임받는 정부가 어째서 스스로 불법적 행동을 하는가? 이에있어서는 일찍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토마스·제퍼슨」이「권력에는 다분히 부패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므로「제퍼슨」은 이어 말하기를「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면 당신도 나도 의회도 재판관도 지사도 다 늑대의 무리가 된다. 개별적 예외는 있겠으나 이것은 우리를 인간의 일반적 본성의 법칙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주권자의 한사람인 국민은 절대로 실재정치의 운용에 있어 무관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국민은 그야말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관준민이라는 과거로부터의 인습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말한, 법을 무시위하고 맹종하는 태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적인 무관심을 타파하기 위하여 국민의 계몽을 주창하고 또한 언론의 자유를 역설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좋은 약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바를 숨김없이 탁 털어놓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은 그것을 자유로이 비판하여 그것을 정부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체득해야 할 민주정신은 많이 있겠으나 또 하나만 첨가한다면 우리는 하로 바빠 무엇이 민주적이며 무엇이 비민주적이나 하는 것은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인사를 통하고 행동을 하는 사이비민주주의자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각별한 경계를 해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에서 말한 민주정신은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국민에게 체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그러기에 앞서 말한 것 같이 비상한 노력이 드는 것이다. 이 노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확고한 뿌리를 박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느냐의 열쇠를 가진 이는 우리들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굳게 명심하고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個人)의 능력(能力) 지혜를 계발(啓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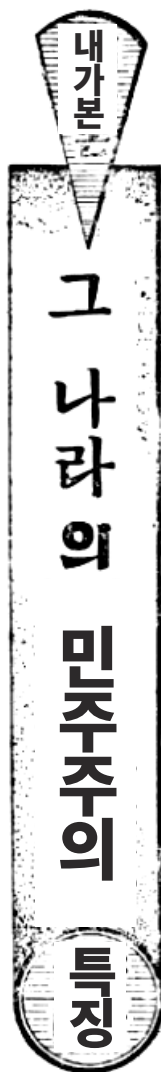
배재식
〈서울법대 교수〉

외국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다녀온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견문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피상적 또는 부분적 관찰에서 나온 편견도 적지 않은 상 싶다. 필자도 그러한 예의 하나일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감히 붓을 들기로 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나라라기보다는 대륙)는 각기의 전통과 특성을 지닌 50개의 나라(주)로서 구성되고 있는 연방체이며, 그 국민구성은 여러 가지 인종의 혼합적 형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로서의 통일성과 조직성의 탁월함은 타에 비길 바가 아니다. 또한 천연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광대한 영토, 그것과 알맞은 인구의 비율,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의 부를 이룩케 한 자연적 요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 건국의 창시자들의 지혜로운 노력과 그 유지를 이어 받아 조상들에 못지않게 바친 후손들의 초인간적인 노력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을「하나님의 축복 받은 국민」이라고 자부하고 또한 자랑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 없고 때로는

미국



조물주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생활신조 또는 철학은 무엇이며 그 생활양식은 어떠한 것일까? 그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불가분으로 관계되는 요인으로서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개인은 창조력의 궁극적 원천이라는 믿음이 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개인의 활동이 협동함으로써 개개인을 포용하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협동 정신이다. 이러한 신조와 정신을 지닌 미국 사람들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나 개인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상적 합리주의라든가 엄격한 선형적「이데올로기」를 불신하고, 언제나 경험적, 현실적, 심리적「Pragmatic」이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 그들은 지나치리만큼 현실에 충실하고 실리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그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이상을 추구한다고 느껴진다. 필자의 편견과 과문의 탓인 줄은 모르나, 오늘날 미국의 지성인들, 특히 젊은 학생들 가운데「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청춘을 불사르고 고민하는 일이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사회로서 거의 극치에 도달한 미국에 있어서 그 물질문명의 발전도와 정신문명의 그것이 병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일보의 한 저명한 학자는 1956년에 미국을 시찰한 감상으로 지금 미국은 정신문명의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나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그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이것은 미국인의 지배적 신조인 동시에 실제 생활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개개인의 자기충실에 철저하여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한 철저하게 무관심하여 더욱이 간섭할 생각도 않는다. 복수의 사람들이 이야기 할 경우, 그것은 대개 공통적인 또는 좋은 화제를 두고 하는 것이며, 남의 응답이나 흥을 보지 않는 버릇이 짝 배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좋은 버릇은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준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인 것 같으나, 자치제와 대의제를 본질로 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그 어느 국민보다도 정치적 경험을 많이 산 미국시민들이건만 실제에 있어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은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그 까닭은 극히 간단하고 명료하다. 즉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이고 정치가 안정성을 갖고 잘 되 나가는 한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이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으로서 정치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도리어 이단자로 지목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미국 시민들은 또한 자국의 세계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외관계, 즉 국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만큼 관심이 적다.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아니나, 수년전 권위적인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으로서 국제문제에

제대로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전 인구의 22%에 불과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는 42%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통계적 비율과 필자가 직접 대해서(주로 대학생층) 느낀 바를 아울러 고려하건대, 미국에는 아직도「몬로오(Monroe)주의적 세력이 적지 않은데 버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복수국가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신념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문제에 관한 이와 같은 무관심의 일반적 경향은 요컨대 위에서 말한 미국 시민들의 개인주의의 생활태도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기 나라의 충실에 철저하며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 이야기 할 경우이면 대개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의 국민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듯이 항의(?)를 하면, 그 상대자는 대개 빙긋이 웃으면서 수긍하는 듯 부정을 하려 하지는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로서는 않으나 한국 사람인 당신이 어찌해서 그렇게도 국제문제에 밝느냐 하는 듯,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었다. 하기는 격동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는 그들로서는 있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모든 생활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 신조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본질적 요소로서 법치주의를 필연적으로 확립해 놓았다. 필자는 여기서 새삼스러이 민주정치의 제도적 원리로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미국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실증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정부와 국민들의 법에 대한 태도이다. 그들은 법을 마치 하나님이 내리는 분부라도 같이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거의 절대적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미국사람들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폭력에 의한 법제도의 파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도대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법의 존엄성에 대한 미국사람들의 태도는 또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미국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법률가 특히 법관만큼의 사회적 지위(명예)와 대우가 높은 것은 드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법과대학(Law school) 학생은 학생변호사(Student bar)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또 법률학 교수들은 같은 대학의 다른 분야의 교수보다 특수한 대우(주로 봉급에 있어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법률가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대우는 물론 법률가들의 넓은 사회적 활동과 큰 공헌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시민들의 생활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신조로서의 민주주의는 한편에 있어서 그 이념과 배치되는 하나의 큰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 시련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즉 다름 아닌 인종차별문제, 특히 흑인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느 의미에 있어서 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그들의 법률이 사람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사회에 있어서 비 백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은 숨길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흑인에 대한 공적인 차별대우는 때때로 흑인들의 대규모의 시위 또는 폭동적 분규를 유발시켜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의「알라바마」주의 사건, 작년의「미시시피」주의 사건 등을 통해서 여실히 실증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소소한 사건은 이외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인종차별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조속히 그와 같은 차별조치를 폐지하도록 명령한 미국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차별조치를 공공연하게 감행한 몇몇 주(지사)의 처사는 참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크나 큰 오점을 남겨 놓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모든 주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대별해서 남부와 북부에 있어서 형식상 또는 외면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듣고 볼 수 있었다. 즉 남부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외관상 그 전통적인 차별이 여전한 것 같으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북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친밀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으나, 반면에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접촉이 없는 별개의 세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속으로는 차별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그곳에서 실제로 느낀 바로는 대체 인종문제라는 것은 인위적인 법으로서의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즉 일부 미국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인종의 차별은 원래 조물주가 백, 황, 흑이라 함과 같이 자연으로 차별 지워 놓은 자연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해서 미국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그 어느 국민보다도 관대한 측이 아닐까? 물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뿌려 놓은 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도의적 및 법적 책임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들의 현실적 태도는 결코 어떤 책임이나 의무의 부담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란 나라는 요컨대 아름답고 풍부한 대자연을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의 지배아래서 혁신과 실험과 모험으로써 이룩된 인간사회의 극치에 이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스타린」과 모택동

「스타린」은 모택동을 불신했다. 1949년, 모택동이 정권을 잡자「스타린」은 중공정권을 가르쳐「붉은 장삼을 입었으나 속은 흰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스타린」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자가 모택동인가 하면 소련 공산당을 가장 싫어하는 것도 모택동이 되었다.

프랑스

평등생활(平等生活)의 표본(標本)



정석해
〈연대 교수〉

내가 본 불란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이어서 지금부터 40여년전 일이다. 벌써 과거에 속하고 생기가 스러진 것이다. 경험담으로서는 너무나 감정의 색채가 날아 버렸고 희미한 기억에 갈아 앉은 낡은 이야기다.

1차 대전에 승리한 불란서는 경기가 좋고 산업이 부흥하여 실업자가 없고 오히려 노동자를 불러 드리게 되었다. 불란서가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하였느냐고 물으면 불란서 사람들은 흔히 대답하기를 불란서 군인은 집단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대답한다. 사실상 독일군대는 한 통솔자의 명령하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강하고 훌륭하나 일단 전투가 치열하여 단연 접전에 들어서면 허둥지둥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불란서 군인은 상관의 지휘가 미처 미치지 못할 때, 백병전 같은 위기에 임하면서 자가 통솔자가 되어 개인의 「이니시아티브」(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개인의 창의성이야말로 불란서 사람의 장점이고 특징이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 독창력이 풍부할까? 아마도 이는 민주주의의 혜택일 것이다. 한나라의 정치체제는 인민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이념을 가진 불란서 국민은 1789년에 대혁명을 일으켜 왕권을 깨뜨리고 민주공화국을 세웠었다. 그 후 여러 번 왕정의 복벽과 외적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으나 매번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되 살려 오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민주주의는 국민 각 개인의 자각이 필요한데 불란서 사회는 그 분위기가 자유롭다. 종교나 전통과 풍속에 큰 구속을 받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기에 세계의 여러 가지 혁명가들이 「빠리」로 모여드는 것이다.

불란선 관청에는 거의 다 출입문 윗돌에 「자유·평등·박애」라는 세 표어가 새겨 있다. 이것이 불란서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불란서 사회생활은 개인의 자유라는 근본원칙 위에 서있다. 불란서는 인종으로 보아서는 여러 인종이 혼합하여 된 나라이다. 본토족이라고 할만한 「셀트」족속, 「이베르」족속과 「게르만」족속 「라틴」족속들이 서로 다른 피와 다른 전통을 가진 종속들이 역사상 오랫동안 갈등과 융화를 통하여 통일되어 오늘의 한 나라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불란서 사람은 남이 나와 다름으로써 더 존중하여야 할 줄을 안다. 개인 간 인품에 있어서도 각자가 남과 다른 품격을 가지므로 자기 인격을 완성시키는 줄로 생각한다. 독일

의 「히틀러」가 독일 사람을 일률적으로 한 타입의 인품을 만들려 하던 「나치」사상은 불란서 사람이 극히 싫어하는 것이다. 불란서 집 뜰에는 베고니아, 튜립, 장미, 외이엣 등 여러 가지 다른 꽃이 피어 조화된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상 이질적인 개인이 결합하여 더 완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란서 교육에서는 개성의 특수성을 더욱 향상시켜 남과 다른 독창력을 발휘하게 한다.

오늘날도 여자 의복의 유행이 「빠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불란서 여자가 사치한 옷을 입으려니 생각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녀들이 맵시 있는 차림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예술적 미감이 발달된 데에도 있겠지마는 그들은 자기 개성의 특징을 살리는 데 있다. 불란서 여자는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사다 입더라도 어느 한 점을 고쳐서 자기 자세의 특징에 맞게한다. 자기가 자기 특징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빠리」에는 카페 즉 다방이 많이 있다. 카페는 대개 한 집의 아래층에 있어서 의자를 길가에 까지 버려 놓았고 위에는 차일을 쳤다. 이것이 외국 여행객에는 이상해 보인다. 「빠리」대학 근처 「썸미셀」거리의 카페에는 학생층인 청춘 남녀가 많이 앉아 지껄임을 볼 수 있다. 과연 불란서 사람은 이야기가 많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카페에 모인 학생들은 서로 토론이 많고 더욱 이런 곳에서도 성실하게 학문을 토의한다. 학술문제, 사상문제, 인생문제, 사회문제가 참 되게 논란된다. 근년에 불란서에 유행된 실존주의는 카페에서 난 철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썸트르」가 항상 자기 다니는 카페에서 친구와 제자들과 토론하고 글을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디서나 의사 발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면 개인은 남의 의사에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않을 것이요 독일 「나치」같이 집단적 파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빠리」에는 「빠리」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사범학교가 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하여 입학되고 학업은 「빠리」대학에서 일반학생과 같이 강의를 들으며 연구하여 학사학위를 얻은 후 2년을 더 계속 공부하여 교수시험을 치는 것이다. 이들은 과연 지적으로 불란서 정예분자이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사관이 될 의무가 있다. 한 나라의 지도층이므로 군대에서도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한 것이다. 어느 해인가 한번은 그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치루겠다고 하여 여론의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란서 사람은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평민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 함이다. 불란서에는 옛날의 왕손도 있고 귀족의 후손도 많을 것이지만은 오늘은 평민으로서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 불란서 사회 각층에 스며 있다. 만약 정치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불란서 사람은 곧 반항하여 일어선다. 압박과 불의에 대하여 곧 항거하는 것이 이 나라 사람의 기질이다.

1923년엔가「사라 베르나르」라 하는 여성 비극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빠리」의 모든 신문은 조사와 만가로 애조하는 뜻을 표하였고 온 나라가 슬픔에 쌓였었다. 장례는 국장으로 행하였다. 그녀는 그 예술로 슬픔과 기쁨을 국민과 함께 하였으며 그 예술로 국민의 감정을 순화하고 통일하였던 것이다. 불란서 사람은 문호와 예술인을 높이 평가하되 정치인은 그리 존경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문학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할 줄 안다. 정치나 권세를 높이 여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물 평가도 다르다.

「빠리」에는「뽕뽕웅」이라 하는 큰 건물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시체를 모셔 두고 영구히 기념하는 곳이다. 이 건물 정면위에「위인들에게 조국은 감사드리노라」고 쓰여 있다. 이 집에 모시게 되는 인물이야말로 한 세기 동안에 몇 사람 밖에 안 되지만 불란서 대혁명이후 이 곳에 모심을 받은 이는 대개가 위대한 사상가이거나, 큰 문호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애국자들이다. 국민한테서 가장 신망을 받는 이는 정치적 영웅이 아니라 문사(文士)들이다. 독일에서는 철학자가 사상의 일선에 서 있으나 불란서에서는 문사가 국민의 사상을 지도한다. 이 나라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에 있어서 무사들의 활동은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지난 2차대전 중 독일의 점령하에서 불란서 지성인들이 앞서서 행동으로 외적에 반항운동을 전개하였던 것도 이러한 예이다.

오랜 민주적 전통에서 자란 불란서 청년들은 권력의 화상인 정치적 영웅을 숭배하지도 않거니와 그들이 동경하는 것은 학문과 과학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예술에서 창작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불란서 학술원 안에 따로「불란서 한림원」이 있고 그 회원은 모두 40명이다. 이 회원으로 뽑히기만 하면 불란서 사람으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이다. 그이들은 소위「불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명예는 영원히 식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 자격을 구비하여야 이 회원이 되느냐하면 그 저술한 작품이 과학을 다루었거나 철학을 다루었거나 문학을 다루었거나 그 내용은 막론하고 표현하는 불어로 문체가 아름다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네들이 얼마나 자기나라 말을 애지중지 귀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란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국가가 관리한다. 그 시험에서 불어 작문에 전국적으로 최고점수를 얻은 학생은 대통령상을 타게 되며 그의 모교는 영예를 얻게 된다. 이리하여 불란서 청춘은 그 나라 문예향상에 정열을 쏟게 되는 것이다.

불란서 민주주의는 그 근원이 멀다. 가까이 보면 1789년 불란서 대혁명시대로부터라고 말하겠으나 멀리 보면 인간의 종교에서 해방을 부르짖던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이다. 이 시대의 인도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음과 동시에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하였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하였다. 16세기까지는 구라파 각 민족이 다「라틴」말로써 글을 썼던 것이다. 1637년 불란서 철학자「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철학을 불어로 썼다. 이것은 각 나라 사람이 제 나라 말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구라파 민족과 민족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인간은 다 형제라는 박애사상이다. 구라파를 여행해 보면 불란서 사람같이 접촉하기 쉬운 국민이 적다. 기차 같은 데에서도 그들은 먼저 말을 걸어오고 담화 담소로 얼른 친근하여지는 것이다. 다른 민족을 이해하고 우애하는 박애사상은 앞으로 불란서와 독일사이에 역사적 큰 전망이 열릴 것 같다. 천 년간 두 민족이 서로 싸워 오던 것이 구주연합을 형성하려고 지그 움직이고 있다. 구라파 여러 민족은 민족적 국가의 틀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이른 것이다. 불란서 민주주의는 옛 상태에 고루하게 정제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처지에 응하여 새 형태를 창조하고 있음을 보이는 바이다. 「빠리」의 한 복판을 관통하여「쎄느」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2천년 역사를 갖고 흐르는 이 강 위에는 10여개의 굉장한 다리가 놓여 있다. 이러한 다리 위에서「노틀담」같은 성당을 바라보거나 말 없는 물결을 굽어보는 것이「빠리」의 한 경치이다. 이른 아침에는 이 여러 다리 위가 인산인해를 이룬다. 건너 오고 건너가는 사람으로 잡답하다. 아가씨, 아저씨 할 것 없이 모두 직장으로 가는 길이다.「불란서」는 일을 하느냐고 느껴진다. 불란서가 부강한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졸라」가 말한 대로「강한 민족이란 오직 일하는 민족이요, 일하는 것이 용기와 신념을 주는 것이다」고 일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불란서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고 풍부하게 잘 사는 것을 보았다. 그네들의 자유와 번영이 부럽기 그지없다.

◇모택동의 자가당착

모는 정권을 잡자「스타린」의 구호를 따라 자기가 아세아에 나타난「평화의 사도」라고 자칭했다. 그 후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침략행위를 감행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 중공의 군관학교에 정규적인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의 저서「전쟁과 전략에 관한 제문제」(Problem of war and strategy)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 있다.

- ①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권력은 총신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 ② 그러나 그 총은 당을 지배할 수 없으며 총을 지배하는 것은 당임을 알아야 한다.
- ③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전쟁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쟁의 폐지는 단지 전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④ 때문에 우리는 총을 없애기 위하여 총자루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이러한 호전적인 독재자가 평화의 사도라 자칭했으니 자기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국



타협(妥協)과 인내(忍耐)의 나라

김진만(金鎭萬)

<고대 교수>

1. 영국

영국은 한국(85,500평방 마일)보다 약간 큰(94,000평방 마일) 면적에 우리의 거의 두 배가 되는 5,250만의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짙은 나라이다. 소위 연합왕국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잉글랜드」는 큰 산도 큰 강도 없고, 극히 완만한 기복을 가진 평지이고, 건물과 도로와 그다지 많지 않은 농토를 제외하고는 나라 전체가 아름다운 잔디로 덮여있다. 그 대신「잉글랜드」의 서쪽에 붙은「웨일즈」와 북쪽의「스코틀랜드」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이름난 호수가 즐비하다.

연합왕국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듯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네 개의 나라가 합쳐서 한 여왕 아래에서 한데 뭉쳐 산다. 단일 국가,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을 한 나라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영국은 그러한 이상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원래「잉글랜드」의 주민은「앵글로·색슨」이고, 나머지는「게일」족이나,「켈트」족으로 서로 인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 언어도 영어는 공용어로서 공통적으로 쓰일 다름이고, 영국의 유일한 언어는 아니다. 가령「웨일즈」에는「웨일즈」의 토어가 있어서 이것을 학교에서 정규학과로서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과 그 말로 된 문학을 큰 문화재로 알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웨일즈」사람들에게는 영어는 분명한 외국어인 것이다. 또 해마다 있는 연합왕국의 네 나라 사이의 축구시합은 전국대회가 아니고「국제」대회라고 부른다. 대외적으로는「부리텐」이니,「그레이트·부리텐」이니 해서 단을 왕국임을 나타내지만, 그 왕국 속에서는 각기의 전통과 개성을 서로 자랑하고 또 서로 존중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국민이기 때문에「히틀러」의「나치스」의 구호를 연상케 하는「단일국가, 단일민족, 단일 언어」하는 따위의 이상은 영국인에게에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 그것은 또 자기네의 역사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는 결국 개인의 집합이며, 개인의 근원을 따져 보면 그것이 백인백색이어서 어떤 단일적인 균일을 거기에서 찾기 어렵다. 민족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도문제이고 절대적인 순수성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 생활과 사회의 구성은 불가피하게 복수적인 것이고, 억지로 단수로 꾸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종, 언어, 신앙, 체격, 재산, 교육, 계급—즉 출신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살기 마련이고 민족이니, 언어니, 계급이니 하는 애매한 표준으로 서로 갈라서고 싸우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히틀러」의 발광이 보여 주었듯이 위험한 일이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나라의 체인 모양으로 해서 거의 본능적으로「히틀러」의 이단을 미워하는 것이다.

영국의 일기와 기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악명 높은 것이다. 하루 동안에 기상학 책속에 있는 모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영국인들의 그림에 으레 이 나오고, 이차대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독일을 찾아 가서「나치스」들을 달려보려던「체임벌렌」수상의 사지에도 나오는 유명한 우산은 장식물이나, 지팡이 대신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느때에 비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녀야 한다. TV에서 일기예보를 말하는「아나운서」는 대개 쓴 웃음을 짓고,『참 말씀드리기 거북한 일입니다 만은 내일도 또 곳은 날씨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는 잠시 개었다가 비가 오고 오전에는 소나기 오후 잠시 햇볕, 그 다음에는 동북풍이 일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센 바람과 함께 눈이 오겠습니다……』하고 미안해한다. 영국에는 세금과 죽음과 날씨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속담도 있다. 영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이 번덕스러운 날씨가 무엇보다도 큰 시련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살고, 영국을 즐기려면 우선 이 날씨에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날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 영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한 때 돈 많고 지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구한 영국을 떠나서「이태리」로, 지중해 섬으로 떠돌고 했지만,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그 날씨와 더불어 살았고, 그 날씨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날씨와 싸우는데 가장 좋은 무기는 물론「유우모아」와 인내심이 좋고 화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풍토에는 맞지 않는다. 그 보다는 현실을 존중하고, 약간 둔중하기까지 한 착실한 태도로 그 어려운 현실을 차츰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 더 어울린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생활태도이다.

나는 내가 영국에서 보낸 해의 여왕의 탄신기념일의 일을 잊을 수 없다. 이 날에는 매년 여왕의 사열식이 있다. 그날은 몹시 비가 왔고, 성장한 근위병들이며, 관중들이며, 또 군복을 입고 말위에서 손을 들어서 답례하는 여왕의 모습에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마침내는 비가 억수로 쏟아 졌다. 그러나 성장한 근위대의 대열과 모습에는 추호의 동요도 없었고, 여왕의 옛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영국-좀 둔하기는 하지만 믿음직한 영국인의 모습이다.

2.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제 하도 많이 써서 그 뜻이 한없이 모호해졌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말살해 버리며 드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소위

자유 민주주의이고, 영국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가령 보통선거권만 해도 영국에서 이것이 완전히 허용되어서 부녀자들까지 투표권을 얻게 된 것은 겨우, 일차대전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또 민주주의의 나라는 으레이 공화국이라야 한다면 영국은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지금의 여왕「엘리자베스」2세는 16세기의「엘리자베스」1세와 같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지만 엄연한 여왕이요, 영국은 여왕의 나라이다. 또 진실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시작한 미국이나「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모두 국민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앤다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 민주주의의 나라에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물론 옛날과는 달라졌지만) 영국에는 아직도 세습귀족이 있어서 상원의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여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인 영국을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해서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왕이나 귀족은 사실상의 실권이 없고,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이 선거한 평민인 하원의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데 있다. 귀족이면, 하원의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출세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귀족의 칭호를 사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쳐어칠」이 끝내 작위를 받기를 거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여왕과 귀족들이 과연 과거의 유물로서 영국의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인형들일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영국에는 영국교회,「옥스포드」대학, 영국은행, BBC방송국 따위의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무형의 압력단체가 있어서 이것을「에스테블릿쉬먼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국회의원들도 끼어있겠지만, 대부분은 영국의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따라서 보수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에게는 여왕과 이제는 사라진 대영제국의 영광과「잉글랜드」에 대한 집착이 있다. 결국 여왕이나 귀족들은 정치적인 권력 기구 밖에서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것으로 간접적으로 영국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다. 국왕의 경우에는 더욱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다.「이이든」경이 수상직을 내놓았을 때,「버틀러」씨 대신에「맥크밀런」씨를 불러서 조각을 위촉한 것을 전연 국왕의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한 것에 있다. 결국 이론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영국의 정치이고 또 영국의 민주주의이다. 영국인들은 오히려 이론이나 원칙을 되도록 내세우지 않으려 든다. 왜냐하면 이론이나 원칙을 내세우면 으레 화해하기 어려운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한 동안에 현실의 문제는 있어 지거나 소홀해져서 경제제민이라는 정치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이나 원칙은 덮어 두고 발등에 떨어진 현실의 불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꺼 나가는 것이 영국인들의 방식이다.

영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사람에 따라서 드는 것이 가지가지이지만,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영국인들의

참을성일 것이다. 그들은 우선 민주주의나, 선거가 정치적인 만병통치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완전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전체주의나 전체주의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선거제도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공정한 것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곡절이 있었고, 1, 2백년전만 해도 선거란 으레이 부정이 개입하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었다. 도대체가 민주주의이고, 선거이고 간에 인간이 하는 일이며, 인간이 하는 일에는 자연히 과오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선거를 치루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 한 정당이 정부를 조직해서 정치를 하면 그 정당에 반대 투표한 사람들도 4, 5년 동안을 기다려 본다. 새로 정부가 들어선지 한 두 해 지난 동안에 모든 구악이 일소되고, 어려운 민생이 유복해지고 창녀가 일체 사라지고, 뭐가 어떻게 없어지고 하는 따위의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일소됐다」「없어졌다」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설사 대다수의 국민의 눈에 정부의 치적이 볼 것이 없고, 국민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같이 생각되는 경우인데도 그 정부가 가진 바 정류를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고, 적어도 4,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선거로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영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된다. 영국인들과 영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을 다음의 두 가지, 즉 이론과 원칙을 후퇴시키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와 한 번 정권을 맡기면 4, 5년은 기다려 주는 참을성이다. 이것 없이 영국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사실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후루시초프가 배운 것

「큐바」위기를 치른 후 신문기자 회견에서「이번 사태에서 후루시초프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케네디」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결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웠을 것이다.」

◇모택동의 신조

모택동의 좌우명은 모두가 호전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침략적이다 여기에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 그는 1938년, 그의 행동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를 보유하는 자는 누구나 권력을 보유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중국 공산당회에서 말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권력이 총자루에서 자라난다는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 가는 스스로 명백하다. 무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호주

개척적(開拓的)이며 낙천적(樂天的)



정도준
〈외무부 의전장〉

1. 호주라는 나라

호주는 동경113도9분~153도39분, 남위 10도서1분~39도8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구는 10,332,033명(1962년말 현재 통계), 면적은 7백70만4천1백57km²(한국의 약35배)이며 정식국명은(Common Wealthe of Australia)이다. 이「Australia」라는 말은 원래「라틴」어의「남의 토지」라는 뜻에서 연유하는 말이다. 호주는 6개주(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 Victoria, Tasmania)와 4개 직할지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영연방의 일원인데 정체(正體)는 입헌민주정체를 취하고 있으며 영국의「엘리자베스」여왕을 국가원사로 받들고 있다.

2. 호주의 일반정세

호주의 현 집권당은 지방당과 합작하여 집권하고 있는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당백(黨百)이며 현호주수상인「멘지스」씨(Sir Robert Menzies)는 1949년 현직에 오른 이래 줄 곳 수상으로 재직하여 왔다. 야당인 노동당은「칼웰」씨(Calwell)를 당수로(현재 여야 간 연방의회에서의 세력분포는 불과 2석의 차다) 차기 선거를 목표로 맹렬한 대정부 공격을 행하고 있으나 양당간에 실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는 정당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당이 공히 보수주의적 정당정책을 갖고 있으므로(단지 국방정책에 관하여서만 차이가 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호주의 대외, 대내정책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여야간의 세력분포는 전술한 바대로 중앙에서는 불과 2석의 차이나 주정부서의 세력분포를 보면 자유당은 남호주, 서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집권하고 나머지 3개주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 양당 공히 그 당조직이 완만하고 규율도 별로 엄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양원제인데(주의회도 양원제이다) 이는 영국식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3. 호주 주민의 일반생활

호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은 광대한데 비하여 인구는 적은데다가 자원이 또한 풍부한관계로 주민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계 구주민이기 때문에 호주국민들은 구주식 생활양식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호주국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미화 1,400불이라는 고액을 이루고 있고 자연 자원의 풍부는 호주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

인의 기질은 꽤 낙천적이다. 호주가 비록 유형지로서 그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자유개척자들의 수가 적인들보다 더 많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요인이 호주인을 낙천적이고도 자유국민적인 기질의 국민으로 되게 하였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호주인들이 갖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물론 이러한 요인도 중요하겠지 만은 호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호주「시드니」의 밤길을 걷노라면 노동자들이 맥주와 람주를 마시고 즐겁게 취하여 떠드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들이 타국민보다도 더 낙천적이고 명랑하며 자유스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되고 부유하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생활의 여가를 향락할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 구비 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호주의 최저충계급인 노동자들이 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호주의 모든 국민이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호주국민의 대부분은 농부로서 공장작업 인으로서 말은바 직장에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직장에서 노동(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하지 않아도 좋은 정도의 세습적 부를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고 또한 특수계급이라는 이유에서 놀고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호주는 국민의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으므로 해서 호주정부의 과세정책도 다른 선진제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누진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의복에 대하여서 비형식적이다. 그들은 상대방을 대하는데 있어서 의복이나,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상태에 의하기 보다는 품격과 인격의 개인적 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들이 대인관계에서 이와 같이 솔직함으로 호주인들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할 때라도 그들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곤 한다(They speak as they think). 그렇기 때문에 수집은 성격의 사람은 그의 호의가 호주인에 의해서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4. 호주인의 일반적인 사고방법과 생활태도

호주인들은 기질상 영국의 풍을 닮은 관계로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는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으며 그 기질은 고상한 일면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서로가 돕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이 호주를 비난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 대한 비난인 것처럼 모욕감을 느끼고 분개한다. 호주인의 생활에서 종교로 인하여 개인적인 일이 방해받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호주인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 때문이며 호주인의 종교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소이도 또한 이러한 환경 탓일 것이다.

호주인은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들은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이 각 개인에게 부여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정부나 정부의 공무원을 자유롭게 비평하고 그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을 하나의 자유권으로 알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적 기질은 자연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분야에 반영되어 정치면에서는 정부는 소요죄, 비훼죄(誹毀罪) 또는 공안에 관계

되는 죄 이외는 개인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행동함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호주연방정부는 군사, 재정, 외교, 우편, 전신 등에 관한 사무이외에는 모든 사무를 주정부에 위임하여 자치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호주의 정치는 영국식 전통에 따라「법에 의한 지배」 「전통적 의회정치」 그리고 「호주의 고유한 지성적 호주식 자유민주주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유경제 체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주요기간산업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는 등 여러 육성정책을 가미하여 이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면에서 호주는 대부분의 구미선진제국에서와 같이 부인을 존중한다. 부인들은 독립적 신분을 갖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사회적 기회가 남자와 동등하게 부여 돼 있지만 임금만은 여자의 신체적 조건에서 오는 장해 때문에 남자임금의 3/4를 받고 있다.

호주 근로자들은 매년 정기적인 성탄절 휴가와 부활절 휴가를 갖는 이외에 일 년 2주, 또는 3주일의 휴가를 갖는다. 또 일주에 5일만 노동하고 2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노동력을 저축하고 또 노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갖는 호주인 들은 이 휴일을 운동이나 여행을 함으로써 소비하고 있다. 호주의 일주에서 타주로 여행하는 데는 아무런 허가도 필요 없으므로(다만 원주민의 자유로운 식량공급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북부 호주로의 여행은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다) 모든 호주인은 국내 어디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에는 수시로 저명한 음악가가 지휘, 또는 연주하는 음악회가 개최되며, 각 방송국이나 텔레비존 방송국에서도(단 국영 방송이나 텔레비존 방송국은 상업방송을 안하고 있다) 저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호주인은 각자의 취미에 따라서 그들의 휴일을 적절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호주에서 약 1만 마리의 경마용 경기 말이 있으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마다 경마경기가 열린곤 하는데 제1급의 경기 말들이 달릴 때 열광하는 호주인들의 모습은 또한 인상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와 국방에 무관심하고 성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호주인들이 요트경기나 경마, 크리켓에 열심인 것은 그만큼 호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국가라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크리켓, 정구, 수영, 육상경기 및 조정경기(이상은 모두 호주가 국제경기에서 우승을 하곤 한다)를 통하여 단련하는 호주인 들은 이러한 경기를 통하여 협력과 단결심의 중요함을 깨달으며 건전한 육체를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호주의 큰 국력(잠재적이긴 하나)과 민주주의를 뒷받침 해주는 「Outer facts」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호주민주주의의 바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인은 영국의 영향으로 국민성에 있어서 고상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호주가 자원 적으로

풍부하고 대륙적이며 농촌적인 관계로 건강하고 성실한 일면을 또한 갖고 있어 항상 근면하고 자유를 사랑하며 이웃과 협력하고 있다. 그들이 생활의 즐거움을 즐기다가 보니 국가 정책이라든가 외교, 국방(이 국방 문제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군비를 증강하고 호주와 국경을 접함으로써 동남아에 긴장이 조성되자 호주국민들 간에는 호주국방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하겠다는 의론이 높아가고 있다) 문제 등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평화시대의 얘기이지 일단 유사시에는(지난 부르나이 반란 사건때 호주는 영국군을 도와 수송기를 파견하였고 제일차 대전당시에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대 독전을 수행함으로써 서로가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바 있다. 호주가 뉴질랜드서는 이날을 ANZAC day라고 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서로가 협력하고 단결하여 당면한 곤란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다. 호주인의 생활이나 감정의 저류에는 영국과의 강한 연대의식이 흐르고 있는데 호주가 영국에서 이민하여 온 영국인들로서 구성된 나라이며 영연방제국의 일원이 까닭도 있겠지만 호주인 들이 영여왕 개인에게 바치는 사랑과 충성심에도 그 이유가 있겠다 하겠다. 여하간 이러한 연대의식은 호주국민으로 하여금 호주도 영국과 같이 가장 세련되고 진보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신들도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국가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호주 화폐를 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데, 호주 Penny는 한쪽에다 호주 특유의 강가투를, 다른 한쪽에다가는 영여왕의 머리를 부각시켜 놓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호주나 호주국민의 양면성(즉 호주라는 국가 관념과 영국과 관계를 갖는 영연방의 일원이라는 관념)을 잘 표시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호주 국민은 자기들이 속한 국가나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최고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주체라는 긍지를 갖는 동시에(여기서 호주의 백호주의에 대하여 잠깐 언급한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 호주의 백호주의는 호주인 들의 표현에 의한다면 아세아계, 특히 중국인의 이민을 호주에 받아드릴 것 같으면 호주의 백호주의도 점점 수정되어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자신들이 또한 영여왕에 충성하는 넓은 의미의 영국국민이라는 자부심도 잃지 않고 있다(따라서 호주인의 국민성에도 협력과 독립이라는 두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호주의 모든 생활양식이 영국인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실례라 하겠다.

단적으로 말하여「영여왕에 대한 경모심과 충성」, 이것이 호주인의 생활지류에 흐르고 있는 Inner facts이고 이를 매개로 하여 호주는 영국과 제휴하여 호주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구제국

사회복지(社會福祉)로 낙원건설(樂園建設)



정우영(鄭于永)
〈외무부〉

「유럽」의 서북방부「스칸디나비아」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 제국이라 하면「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의 5개 국가들을 말한다. 이중 필자가 불란서에 체류시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1958년 우리나라에 중앙의료원 창설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였고 외교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의 편모를 기술하여 보련다.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이들 국가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첫 인상의 하나는 윤택한 생활에 빈부의 차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일 것이다.

1세기이전부터 실시하여온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완전케 가까우며 연금, 보험 제도를 비롯하여 탁아소·양로원·의료교육·무료 급식등이 실시되고 노동 조합 및 협동조합조직은 세계 다른 곳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널리 발달되어 있다.

민주주의적 제제도(諸制度)의 발전과 경제적인 안정은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은 여기에 재언할 필요가 없다. 적당한 넓이의 영토, 알맞은 인구, 비옥한 토지, 온화한 기후 등 경제발전의 제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고도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인 안정을 달성하였음은 결코 기적이 아닌 듯싶다.

정치

입헌군주정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삼권분립제도에 입각한 미·영·불식 현대적 헌법을 제정 실행하게 된 것은「스웨덴」및「노르웨이」양국이 19세기 초 부터였고「덴마크」는「스웨덴」에서 독립한 20세기 초였다.

미국의 대통령책임제보다는 영국의 내각책임제에 흡사한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여기에 특기할만한 점은 국왕들이 국가최고통치기관의 상징으로서 실제정치로부터 초연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왕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수상이하 각 각료를 임명하고 각의(閣議)를 사회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입법부는 단원제로서 의회총의석수는 179석인데 그중 135석은 전국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40석은 지구선거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한 정당에 배당되고 나머지 4석은 속령(屬領)에서 선출된다.「스웨덴」은 양원제로 구성되고 상원의원은 각도대표와 6개 대도시의 시의원들에 의해서 8분지1씩 개선택되며 하원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노르웨이」는 역시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졌으며 정책·예산 문제등 중요의제를 심의할 때는 상하원구별이 없으며 입법문제에는 양립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되기는 1세기전이였다. 처음에는 극빈자에 대한 국가에서의 구호형식으로 출발되었다가 20세기 초엽부터 빈곤을 근본적으로 발본하는 대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현재 노동재해 보험, 건강보험, 노령보험, 불구자보험, 실업보험, 아동 보험등이 있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 모든 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에 잠시 언급하여 본다.

이 건강보험이 실시되기는 약 40년 전부터이며 연수입이「원」화로 17만원이하의 모든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동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비단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이의 직계가족들도 가입해야 한다.「노르웨이」에 장기체제중인 외국인들도 예외없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노르웨이」전인구의 70%이상이 동 보험가입자이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여 본다면 매주 4원에서 25원에 달한다. 보험료 지불시는 보험회사가 지불총액의 11분지6을 부담하고 국가와 고용주가 각기 11분지2씩 그리고 나머지 11분지1을 보험가입자가 거주하는 시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료, 치료비가 모두 보험에서 지불된다. 따라서 이러한 완비된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의사가 개인영업으로 경영하는 병원은 극소수며 대부분은 국가제도로써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일반의료는 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소관관청은 내무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가족 중 누가 병이 나면 입원비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위급환자가 입원예약금이 없다고 병원문전에서 왕왕 거절당하는 딱한 우리의 실정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사정이 아닐 수 없다.

「덴마크」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에 대한 참정권부여,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한 여성운동은 19세기말엽에 미혼여성에 대한 자립촉진운동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덴마크」에는 각가지 남녀동권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여성의 관계진출, 국회·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선출, 직장에서의 남녀동등 급료제, 결혼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등 여성의 자유 및 권리보호를 규정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고 실제로 정치 경제·문화 각 방면에서 여성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시·읍·면에 이르기까지 각종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있어 여권보호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직업여성들의 자녀보육문제에는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직장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이 취급되기 쉬운 이들 아동에 대한 교육, 재정적인 후원문제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몇 년 전에 통과된 법률에서는 과부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보조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과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온「덴마크」의 여성단체들은 지금 새로운 목적과 진로를 모색 중에 있는 듯하다.

즉 과학의 발달로 새로이 대척된 분야에의 여성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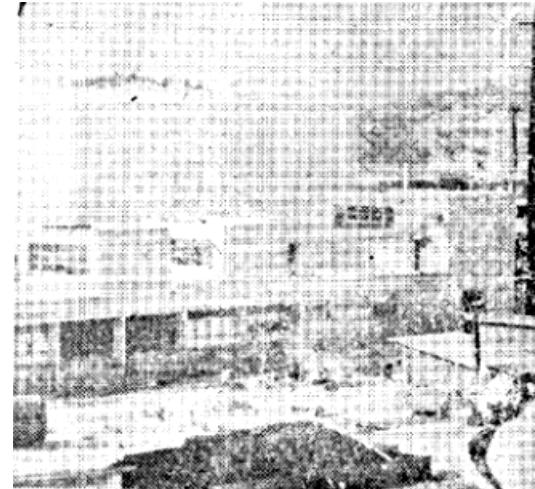
「스웨덴」의 의무교육제도

원칙적으로 7세부터 14세에 이르는 모든 아동들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빈부의 차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 없이 왕족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동등한 취학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행「스웨덴」의 교육제도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무한히 내포하고 있다. 국민 학교만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 7년제·8년제·9년제가 있다. 중학교 역시 지방에 따라 3년제·4년제·5년제가 있고 고등학교도 3년제·4년제가 있어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우선(爲先)「스톡홀름」내 전 국민학교를 9년제로 개정하고 점차 지방에까지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다.「스웨덴」이 의무교육을 시작한지는 백여년이 넘으며 처음에는 공립학교의 무료취학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다. 국민 학교 중학교까지는 교과서·교재까지 무상으로 공급되며 고등학교·대학에서는 이러한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다. 국민 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보조에 의한 공급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스톡홀름」대학교를 방문 견학할 수 있었던 필자는 그 시설의 완비, 연구자료, 기재의 풍부함에 탄복하였으며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진리탐구에 여념이 없는 이들 혜택 받은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부러움을 금할 길 없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의 3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은 비단 노동자임금이나 노동 조건등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 주측과 교섭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달성을 위하여 사회진보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최근에 와서는 국가중요경제정책수립에도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서는 노자간에 노동계약이 성립되면 그것이 각각 조합원을 구속하여 도중에 탈퇴한다 하더라도 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통 이 계약은 기간부로 되어 있어 그 계약기간 중에는 분쟁을「스트라이크」등 과격한 투쟁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제정한 단체계약급 노동재판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노동재판소 이외에도 노동조정법이 있어 전국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노동조정관을 배치하여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체나 공장에는 기업위원회를 두고 그 이하에는 기업위원을 두어 기업주와 노동자와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상기위원회에서는 노동자에게 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사정을 주지시켜 생산증가의 방도를 강구 케하고 있다. 250만 이상에 달하는「스웨덴」의 근로인 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업주와 노동자가 다 같이 생산의 증가에 의해서만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상호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공업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확대와 합리화가 중요시되고 이에 병행하여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스칸디나비아」제국의 노동조합조직과 운영의 묘(妙)는 참차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한국(韓國) 동력(動力)의 장래(將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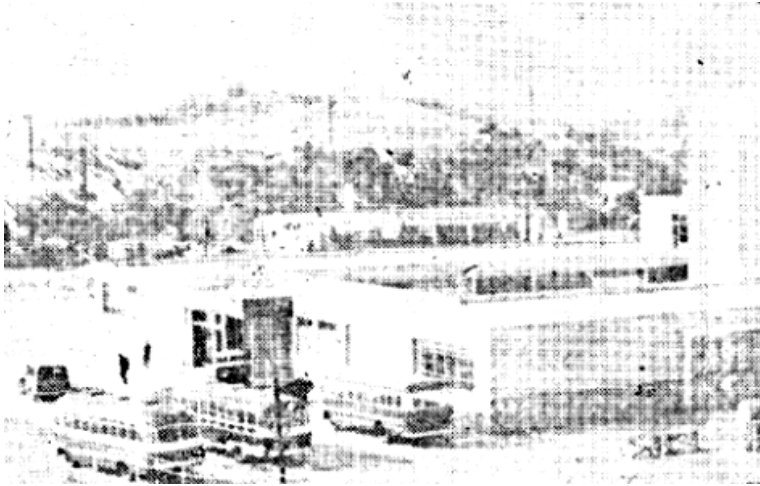
에너지 개발(開發)을 위하여

이창건(李昌健)
〈원자력연구소 연구관〉

세계의 동력문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부터는 인류문명이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각종 연료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고차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선진국 대도시 주변에는 검은 구름을 내뿜는 굴뚝이 하늘높이 서게 된 것이다. 그 굴뚝 밑에서는 하루에도 몇 화차씩의 석탄, 석유가 태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도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점차 늘어가서 곳에 따라서는 이 화석연료를 점유하고 확보하기 위한 전쟁과 냉전이 쉴 사이 없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사진은 한국원자력 연구원

근래의 와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연간 $0.1 \times 10^{18} \text{Btu}$ 이었다. 편이상 $0.1 \times 10^{18} \text{Btu}$ 를 0.1Q라 부르기로 하고 앞으로 증가할 전 세계 인구, 그리고 격증하는 화석연료 수요량을 고려에 넣는다면, 서기2000년도에 가서는 연간 1Q의 연료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추산에 의하면 장차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화석연료 즉 현대의 채굴비의 2배 이내로 캐낼 수 있는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의 총량은 불과 40Q 미만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만다는 뜻이 된다.

설혹 위의 추산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 문명은, 격증하는 인구와 고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 하여는 적어도 앞으로 50년 이내에 새로운 연료가 등장해서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연료로서는 두 가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태양력이요, 또 하나는 원자력이다. 태양력을 직접 이용하는 연구는 호주, 미국, 불란서 등의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지만 아직도 실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태양력의 이용은 원자력

의 보급보다 훨씬 뒤떨어지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래로 원자력의 실용성은 다분히 질어가고 있으며, 사실상 지금 우리는 원자력 실용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지닌 에너지의 양이 질적 및 양적으로 재래식 화석연료에 비하여 너무나도 방대한 까닭이다. 1그램의 우라늄-235가 완전히 핵분열을 일으킬 때 나오는 힘은 300만 그램 즉 3촌의 석탄이 탈 때 나오는 힘과 비길만 하다. 이것은 또한 670갤론의 기름이 탈 때 발산하는 에너지 량과도 같다.

지금 지구의 지각표면에서 3마일 까지의 깊이에 묻혀 있는 우라늄과 나트륨의 총량은 대략 1012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금속 형태로 파운드 당 100불 이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라늄은 2,500만톤 그리고 나트륨은 100만톤 정도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물론 이 전부가 경제적이고 효과있게 사용되지는 못하겠지만 그중 적어도 3분지 1만은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될 것이 예측된다. 그 3분지1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624Q가 된다. 즉 핵분열 물질의 3분지1만을 연료로 쓰더라도 지구에서 채굴 가능한 전 화석연료의 16배가 된다는 뜻이 된다.

원자력은 원자핵을 분열시켜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자핵이 융합할 때에도 생겨난다. 원자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에서 일어나고 원자핵 융합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에서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연료로는 중수소가 있는데, 이것은 바닷물안에 0.14%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전 중수소의 양을 계산해 보면 약 5×10^{13} 톤이 되며 이것을 다시 에너지로 환산하면 1020kw가 된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매년 지금과 같은 율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바닷물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무려 200억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 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물 1갤론 안에 들어 있는 중수소의 양은 불과 8분지1 그램 밖에 안되나 그것이 지닌 에너지 량은 300갤론의 휘발유에서 나오는 열량과 비길만 하다. 그런데 그것의 석출 비용은 미국돈으로 4센트 이하이다.

에너지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생활에 사용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아직 핵융합을 쓸모있게 반응케 했다는 보고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실용의 단계에 까지 끌고 가려면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지拂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양의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원자핵분열, 원자핵융합 이외에 방사능을 이용하여 직접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구가 상당히 성공을 견우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으로 일단 증기를 만들어 그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내게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 붕괴과정에서 생기는 핵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방법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인공위성에서는 이 방법에 의해서 전기를 얻고 있다. 이 장치의 특징은 회전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전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장치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며 또한 진동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 방법의 발전이 많이 기대되고 있다.

여태까지는 새로운 동력개발이 주로 무기 생산을 할 때의 부산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부산물이 일단 민간인들의 수중에 들어가 실행할 면에 이용될 만한 것이라고 판정될 때는 상당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몇 가지 분야도 앞으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한국의 동력자원

한국은 매년 전 에너지 소비량의 10%가 넘는 유류와 석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지하자원을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즉 전체의 소비량에 대한 도입연료의 비율이 유지된다는 말은 해가 거듭될수록 도입 연료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도입연료의 양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국내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을 항목별로 검토하기로 하자.

◇산림자원

한국의 에너지 자원을 논함에 있어 산림자원을 빼놓을 수는 없다. 현재 남한 전체의 임야 면적은 672만 정보로서 남한 전체면적인 950만 정보의 70.7%에 해당되며 또한 총 경작면적의 약 3.3배에 달한다. 그러나 임야면적 중에서 성림지는 불과 53.7%이고 나머지 46.3%는 미성림지 혹은 풀도 나무도 나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 미성림지 및 제지가 남한의 총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로 32.8% 즉 총 면적의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의 총 면적을 3등분 할 때 그 3분의1은 논밭(21.4%)과 도시 및 하천(7.9%)이고 또 하나의 3분의1은 성림지이고 나머지 3분의1은 쓸모없는 황무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산림자원은 지극히 빈약 함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연료인 신탄으로 사용되는 양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매년 성장량을 초과하는 남벌의 현상은

드디어 홍수와 한발의 조절을 불가능 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후 에너지 자원으로서 산림자원에 기대하는 도가 점점 적어질 뿐만이 아니라 목재자원으로서도 의존치 못할 형편에 도달한 것이다. 농림부 추산에 의하면 산림 축적량은 약 6000만 입방미터(5,300 칼로리 무연탄으로 환산하면 40,000만톤)이고 연간 성장량은 그것의 3.4%인 204입방미터(5,300칼로리 무연탄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톤)이라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 같다.

그런데도 산림지대는 해마다 인간송충들의 잠식에 의하여 점차 그 면적이 좁혀지고 있는 형편이다. 어느 시인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 뿐이 더라고 했지만, 이 숨 막히는 황무지야 말로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 연간 벌목되는 산림자원이 성장률 보다 적은가 혹은 많은가의 문제다. 아마 그 대답은 분명히「노」일 것이다.

금년도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 소비량의 약 반은 원시연료인 나무, 나뭇잎, 풀, 곡초등으로 충당된다고 예측되는데, 이것을 무연탄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화목의 연료로서의 위치가 140만톤 만이라고 추산할 수는 없는 까닭에 한국의 산림자원은 해마다 줄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석탄자원

여기서는 매해 20만톤을 수입하여 전 한국 에너지 소비량의 1%를 점하는 유연탄은 논외로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만을 취급기로 한다.

남한의 총 석탄 매장량은 약 14.5억톤이라고 추정되나 그중 채굴 가능량은 5.6억톤 내외라고 전하여 지고 있다. 금년도의 채탄량인 850만톤은 4년전의 채탄량이었던 410만톤의 이배이상이다. 더욱이 1954년부터 1961년까지는 3년마다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온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급격한 증가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5,6년 혹은 6,7년마다 2배의 채탄증가율을 나타낼 거시므로 우리나라 석탄자원의 수명은 2~30년이면 끝장을 보게 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나마도 한국의 무연탄은 저질탄이어서 열량도 적고 발화점도 높고 또한 탄재도 많다. 수입되는 유연탄은 평균 6,650 카로리인데 반하여 우리의 무연탄은 평균적으로 5,300 카로리에 불과하다. 즉 유연탄 1톤은 우리날 무연탄의 1.25톤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력자원

지금 연간 전 발전량의 약30%가 수력발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저조를 보이고 있는 수력발전은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계절적인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계의 연속식 연계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에 산재한 각 수계의 포장수력을 보면, 한강수계가 80%, 낙동강수계가 12%, 금강수계가 4%, 그리고 섬진강수계가 3%로 되어 있으나 이 수계들의 포장 수력중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점을 모두 개발한대도 100만 킬로 와트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력자원의 개발은 그리 희망적이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조력자원

우리나라에서 조력개발 지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주로 서해안의 경기도 연안과 충청남도 해협지대인데 세계최대 평균조차인 46.2척에 비하면 훨씬 낮은 조차이지만 서해안의 최대평균조차 25.26척은 꽤 희망적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지점은 인천항, 예항리, 우무도, 소야도, 덕적도, 대무의도, 아산, 주문도 등이며, 인천항 부근의 포장력 20만킬로 와트를 위시하여 기타의 7개 지점이 모두 80만 킬로 와트 이므로 적어도 100만 킬로 와트는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Tubular Turbine과 같은 수차발전기의 기술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조수의 저 낙차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조력발전은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그리고 조력발전에서는 화력발전에서처럼 연료가 불필요하고 또 한 수력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매수, 침수지역의 보상, 인근주민의 철거 등의 부담과 애로는 없지만 조력발전소의 건설에는 막대한 토목공사와 굉장한 투자가 소요되므로 원자력 발전보다 뒤늦게 개발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원자력자원

앞에서 말한 핵연료 자원을 실제의 생활면에 이용하려면 당분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액의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한은 원자력 개발이 지연될 듯 하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계획은 1.2년 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원자력발전 계획이다. 지금 생각으로는 1987년 경에 15만 킬로 와트 정도의 출력을 가진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에는 아직 쓸모있는 우라늄자원이 발견된 곳은 희소하나 모나자이트 자원은 아세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한의 4,000여 광구에서 모나자이트 함유량 95%이상의 것으로 15만톤 가량이 채굴될 것으로 가상하면 우리나라 233의 모체원료(Fertile material)인 토륨은 약 1만톤 가량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맺는말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한국의 28배, 캐나다는 26배, 노르웨이 18배, 스웨덴은 15배, 영국은 14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는 13배, 독일은 11배, 일본은 3배가 된다. 연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국민소득의 다과와 대체로 비례한다. 이를테면 연간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25배, 영국이 10배, 그리고 일본이 약 4배이다. 그러므로 동력자원을 개발한다는 말은 국민소득을 올린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야간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북한과의 통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해서 남한 자체로서도 국민생활의 향상과 경제자립을 위하여 화력, 수력, 조력, 원자력, 그리고 태양력 까지도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고 에너지를 이용 못하는 백성은 생존경쟁의 싸움터에서 자연도태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에너지 자원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다.

◇중공과 중화사상

주은래(周恩來)를 만나본 일본의 어느 경제사절 단원은 중공이 공산혁명을 했으면서도 혁명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중화사상을 혁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국사상이 소련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는데 바탕의 하나가 되어있다. 중공은 앞으로도 이 중화사상을 수정하지는 못 할 것같이 보인다.

◇소 · 중공해논쟁

「푸라우다」지는 중공이 만일 핵무기를 가진다면 세계평화는 깨지고 말 것이라고 중공의 주전론을 비꼬았다. 이에 대하여 중공의「인민보」는 형제국에 대해 이처럼 모욕적인 공박이 있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이성과 자제력을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던 말인가? 자만심도 이쯤 되면 구경꺼리다.

◇대구(對句)

정치가는 신어를 잘 만들어낸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은 대구를 만든다. 「처어칠」이「철의 장막」이라고 하자 신문은「죽(竹)의 장막」이라했고 「냉전」에 대해서「열전(熱戰)」이란 대구를 사용했다. 근대 사는 신문이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韓國)의 농산물(農産物)

박노식(朴魯植)
<경희대 교수>



<필자>

한국의 농산물 하면 그 종류가 너무도 많다.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여기서는 각지의 명산물이나 특산물보다는 일반적인 농산물중에서 생산도 많고 또 경제적이기도 있어서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국제적 경제입장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서 다루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의 지리적 여건의 주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지규모의 과소라는 점 농업 경영적 관점에서 원시농업 단계를 면치 못한 소위 후진성의 농업 국으로 너무나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인구과잉으로 농업의 노동자원은 풍부하나 농산물의 소비 인구가 과다하여 농산물 재배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 이상 3대요인이다. 환언(換言)하면 인구는 과다하고 경지면적은 협소한데다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극히 영세화된 농업경영형태라 할 수 있다. 몇 백 년 전이나 현재나 농작은 기후조건이 유리한대 기인되고 흉작 역시 그 조건이 불리한대서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대 경지면적을 보면 79.4%대 20.6%로 국토이용률이 대단히 저율이다. 그 중에서 답전 구성비율(畓田構成比率)은 60%대 40%로 답(畓)이 탁월하다. 호당경지면적은 8.81만보이며 그중 5만보이하의 농가가 총 농가호수의 40.7%를 점유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 얼마나 영세되어 있는 가 가히 알 수 있다. 그런데다 수리불안전답은 전 경지면적의 25%이고 천수답



20%나 되어서 45%의 답이 순전히 기후에 의존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田)을 비롯하여 완전수리답이라도 비합리적인 농가경영은 반수량(反收量)의 저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리한 지리적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5개년 증산계획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호응하여 농민들의 농업경영계획의 개조로 최근 증산을 거듭하여 1961년에는 양호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곡류생산에 있어서 약3천만석이라는 최고의 수확고를 올린 것은 국민경제상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약2천5백만의 인구가 연간 약3천만석이상이라는 곡류를 소비하고 유지하는 중책을 부담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곡류생산의 비율을 보면 그중 미곡이 61.7%로 1,890만석을 생산하여 단연 농산물중 주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주식이 대부분은 이와 같이 곡류중에서 대종(大宗)이 되는 미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미곡의 풍흉 작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좌우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곡의 도별 생산량의 비율을 보면 전남이 총생산량의 17.3%로 수위를 점유하고 있고 전남북과 경남북을 합치면 총생산량의 62%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곡 생산의 중심지는 호남영남평야며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로 우리나라의 자랑의 하나가 된다. 이것은 이 지대가 총 곡류생산의 63%이상을 점유한 것과 합치면 호남, 영남이 풍년이면 한국의 기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곡류반수량은 1,108합이고 미곡은 1,662합이며 특히 곡류중 미곡이 많다. 미곡의 증산은 경지확장보다는 토지 이외의 여건(자연적)에 좌우되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맥류는 대맥(大麥), 나맥(裸麥), 소맥(小麥), 호맥(胡麥)이며 총수확량은 약 782만석이다. 평년작의 23%의 증수(增收)를 보였다. 이것은 유리한 기후상태와 비배관리(肥背管理)의 철저화, 정부정책의 수행 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맥류생산중 대종은 대맥이며 81.6%의 생산비율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소맥, 호맥의 순위며 대맥에서 나맥을 구분하며 는 비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수 량을 비교하면은 소맥이 990합으로 최고며 다음은 나맥이 935합이고 대맥은 불과 687합으로 생산수량은 최고인데 반수량이 최저라는 것은 맥류증산상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주식인 미곡 다음에 대맥을 위주로 편제되어 있음에 기인된다 할 것이며 앞으로 팽창하여 가는 인구 압력으로 인한 식량난의 소비책으로서 대맥의 반수 량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맥류생산의 37.9%가 답리작(畓裏作)이며 반수 량도 전작보다 26합이나 더 많다는 사실과 아울러 생각할 때에 경지규모상 영세화를 면치 못하는 우리 농촌의 맥류증산은, 토양 개조와 더불어 이작면적의 확장이 긴급히 요청되어야 한다.

도별생산량을 보면 답리작은 서울 이남의 지방에 가능하다. 즉 기후가 온화한 경남북 전남북과 충남 환연하면 미곡과 같이 호남 영남평야가 중심지다. 맥류의 과종은 추과(秋播)가 99%고 춘과(春播)가 불과 1%며 추과의 적지는 역시 3남 지방이다.

잡곡, 두류(豆類) 및 서류(薯類)의 수확량을 보면 잡곡이 약 69만3천석 두류가 139만3천석 서류가 181만9천석으로 총계 약 390만석으로 평년작보다 약 18.9%의 증수를 보이고 있다.

작부백적(作付百積)은 전년보다 약 1.3%감소되었으나 반 수량은 대체로 69합의 증수를 본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시이다.

도별 수확량을 보면 강원이 15만7천석으로 수위이고 경남의 4만7천석과 좋은 대조가 된다. 이것은 전자는 산간의 전작을 위주로 하고 후자는 기후와 지형조건이 유리하여 미국맥곡을 주로 재배하는 까닭이다. 다음은 경북이 13만7천석 제주가 8만석으로 남한의 대표적인 주요 전작생산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와 강원에 있어서는 반수 량은 각각 416합 390합으로 평절반수량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지방에서 잡곡생산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잡곡수확량중 율수확량(粟收穫量)의 비율은 68.3%로 잡곡 중 주종이고 다음 옥수수 17.3% 메밀의 7.4% 수수의 5.4%의 수위다.

도별 분포상태는 경북, 제주, 전남, 강원 순위로 옥수수는 강원도가 탁월한 데 대하여 수수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재배된다.

두류의 수확량은 약 39만2천석으로 평년작보다 14.6%의 증수를 보였다. 이것은 경지면적의 확장이 주인이 되었다.

두류중의 대종은 대두며 수확량의 비율은 87.7%를 차지한 122만1천석이고 다음은 소두다. 그 비율은 불과 69%에 불과하고 나머지 녹두, 완두, 낙화생, 기타 두류 전부 합계하면 5.3%의 극소량에 불과하다. 반수 량은 완두가 499합으로 최고며 다음은 대두의 417합이고 가장 적은 것은 녹두의 313합이다.

도별 분포상태는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순위로 전작이 탁월한 지대와 거의 일치된다.

서류의 총생산량은 약 181만9천석이며 평년작보다 26.7%의 증산을 보였다.

각도별 생산량비율을 보면 전남의 19.7%가 수위고 다음은 전북의 15.7%며 전남북 합치면 35.4%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의 일부와 일치된다.

반수 량은 제주가 2,219합으로 최고며 기후적으로 적지라 할 수 있고 다음은 전북 경기며 가원은 가장 적은 곳이다.

서류중 수확량이 많은 것은 감서(甘薯)며 68.8%의 비율로 125만1천석을 생산한다.

도별 생산량을 보면 은 전남이 25% 전북이 18.4%로 양도가 44%를 점유하고 있다. 제주는 농업생산물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다. 마령서(馬鈴薯)의 생산량은 강원도가 24.6% 경북이 19.9%가 생산지며 반수 량은 감서와 같이 제주가 수위다. 강원은 생산량은 많으나 반수 량은 적은 편이다.

원예작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 무, 배추, 양배추, 참외, 오이, 가지, 호박, 수박, 도마도, 고추, 파, 마늘, 시금치, 양파, 미나리 등이다.

그중에서 무, 배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다음은 고추, 마늘

의 순위다.

이것은 우리민족이 미곡을 주식으로 하고 잡곡, 두류, 서류를 부식으로 하며 채소를 많이 먹는 좋은 증거다.

채소는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로 부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중 양배추는 전북에서 전혀 재배되지 않고 파는 경북에서 양파는 서울 강원에서, 미나리는 강원 제주에서 각각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기후조건 토양, 병충해 등에 기인된다.

무는 채소중 대종이며 약 1억 2,258만관(貫)을 생산하며 매년 반수 량과 증산 일로에 있다.

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기가 1,920만관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은 전남, 경남북등이고, 반수 량은 서울이 평균반수량의 약 배수인 701관이 최고며 다음은 제주의 504관 경남의 410관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시의 주변의 채소생산이 기술면에서 고도화되고 경영면에서 정당화되어 있음을 시현하고 있다.

배추도 무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의 하나며 생산량은 1억1,587만관이고, 반수 량은 321관이다. 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남이 수위로 경기는 다음이다. 반수 량은 서울이 672관으로 최고다. 경남은 그 다음이다.

양배추는 무, 배추와 같이 서울(44%)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다음은 경남(23.5%)이다. 경지면적은 서울이 경남보다 적으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재배가 고도화되어서 반수 량이 많은 까닭이다.

참외, 오이와 각 도별 생산을 보면 경기(참외 28.1% 오이36.5%)가 수위고 다음은 충남(18.6% 18.3%)이다. 반수 량은 서울(8297)최고며 전북(1747)이 최저다.

수박의 생산량은 경남이 28.8%로 수위며 다음은 경남의 21.4%로 양도에서 총생산량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반수 량은 역시 서울(1,2079)이 최고며 다음은 강원(356)으로 차이가 현저하다.

가지의 도별 재배면적의 비율은 경남(21%)이 수위며 다음은 전남(19.3%)이다. 그러나 반수 량은 역시 서울(692%)이 최고며, 경남(300)은 그 반수도 안 된다.

호박의 생산량은 경남(26.2%)이 최고고 다음은 충남(1.59%)인데 반수 량은 역시 서울(476)이 최고고 전북(221)이 최저다.

도마도의 생산량은 경남(34.2%)이 최고며 다음은 경기. 충남, 경북의 순위다. 반수 량은 강원(558)이 최고고 서울, 제주는 각각 약 400 이상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고추의 생산량은 전남(24.6%) 전북(16.2%)의 순위며 경지면적은 경북 경기의 순위다. 이러한 이유는 전남이 반수 량 160으로 경북의 42에 비하면 약 4배의 생산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원예 작물중 고추, 마늘, 양파 등은 비교적 저장성 거리성이 큰 작물인 관계로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는 이 지방의 생산이 고도화되어서 그렇다.

마늘의 경지면적의 비율은 충남(16.6%)이 수위며 다음은 경북(16.0%) 전남(15%)이고 반수 량은 강원(199문(匁)) 최고고 다음은 서울(198문)이다.

시금치의 생산량은 전남(26.1%)이 최고고 다음은 경남(19.9%)이다. 반수 량은 서울(431문)이 최고다. 이것은 주로 기후관계로 좌우된다.

양파는 기후가 온화한 제주, 전남북, 경북이 주산지며, 미나리는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전도에 재배되며 반수 량은 서울(622문)이 최고다.

과실의 생산량은 경북(46.1%)이 수위며 우리나라 과실의 중심산지를 이루고 있다. 반수 량도 249관으로 수위며 전북(2235문)이 다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실종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밤, 귤등이다. 그 중에서 가장 생산이 많은 것은 사과며 전생산량의 49.6%를 점유하고 과실 중의 주종이다.

다음은 배로 19.8%며, 복숭아, 감, 포도의 순위다. 반수 량은 배가 201관으로 최고고 사과 포도는 각도 180관으로 다음이다.

사과는 우리나라 과실의 대표적인 산물이며, 생산량의 82.2%가 경북(대구 동촌이 중심지)이며, 나머지 10%가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충남 북에서 약 반수가 생산된다.

최근 5개년의 생산량을 보면 경지면적은 다소 확장되었으나 반수 량은 감소되었다.

배는 사과다음으로 전 과실 생산량의 19.8%를 점유하고 있고 그 반수 량은 사과보다 20관이나 많다.

도별생산량을 보면 전남(나주가 중심지)이 25.7%로 수위며 경기(구목동이 중심지)가 25.4%로 다음이며 양도에서 50% 이상을 생산한다. 반수 량은 전북이 285관으로 가장 많고 제주 가 250관으로 가장 적다.

복숭아의 생산비율은 13.1%를 점유하고 있고 반수 량은 158으로 과실평균 반수 량인 173문보다 적다. 도별생산비율은 전남이 26.7%로 최고고 전북, 경기가 다음이다.

포도의 생산비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다.

생산량은 149만3천관이며 경기(안양중심)가 전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반수 량은 경남이 224관으로 최고다.

감의 생산은 불과 10%에 불과하나 생산량의 60%가 기후가 온화한 영남에서 산출되고 그 중 경남이 40% 경북이 20%의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은 면화, 대마, 저마(苧麻) 완초(莞草) 저임(楮荏)(들깨) 호마(胡麻) 곤마자(蓖麻子) 박하 등이다. 작부면적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증가될 원인은 반수 량의 증수에 기인된다.

면화의 재배면적은 5만 정보에서 4만9천정보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반수 량은 55근에서 94근으로 증가되어서 총생산량이 증가 되었다. 도별생산비율을 보면 전남이 45.1%로 수위며 다음의

경남이 17.1%, 경북이 14.2%의 순위며 주로 기후가 온화한 호남 영남의 남부 지방이 중부지방과 같고 반 수량은 전남이 124근으로 최고고 다음은 경남의 122근이다. 고래로 면화는 우리 민족의 의복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증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마의 생산은 전남(29.9%) 경북(21.7%) 경남의 3도가 주산지며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다.

저마는 전북(41.6%) 전남(32.4%) 충남의 순위며 대마와 같이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되어 가고 있다.

완초는 주로 전남(22.6%) 경북(20.2%) 충북(17.2%)이 중심재배지며 이 3지역을 합치면 60% 이상이 이곳에서 재배된다. 반수 량도 경기(69문)가 최고고 생산세추(生産勢趨)는 매년 다소 증가되고 있다.

저(楮)은 전북, 경남, 경북이 중심지며 3개도에서 약 8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평균 반수량은 최근 저윤(低潤)으로 인한 수요의 격감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들깨의 경지면적의 비율은 경기(28.8%)가 최고로 다음은 충남(15.4%)다.

참깨로 경기(27.6%) 충남(19.4%)이 중심산지며 반수 량은 충남(373합)이 최고고.

곤마자는 전남(32.8%) 경남(18.0%) 경북(16.7%)이 중심자료 3도에서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반수량은 경남이 600합으로 최고고, 최저는 전남이 217합으로 좋은 대조가 된다.

박하유는 수출과 함께 급진적인 증산을 보였으며 1956년에 119정보에 불과하던 것이 1961년에는 1,595.5정보로 확장되었다. 경북은 65.6%로 수확량의 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그 밖에 경남, 충북에서 생산된다. 이상의 특용작물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매년 증산 되어가고 있다.

아마(亞麻)는 경기 충북 경북 강원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재배면적은 가원이 독점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채(油菜)는 제주, 충남, 전남북에서 생산되어 제주는 재배면적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다.

호두는 약 30.5정보에서 3,872관을 생산하고 있으나 96%는 강원에서 생산된다. 신서란(新西蘭)은 제주에서 경지면적 312정보중에서 약 130,232관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충국(除虫菊)은 43.1정보에서 5,694관을 생산하며 역시 제주가 독점하고 있다. 생강은 252.4정보에서 246,835근을 생산하는데 전북이 독점하고 있다.

청마는 경북에서 5,128관이 생산되고 인삼은 219정보에서 246,835근을 전남 충남 경기등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해외의 수출로 최근증산일로에 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과 산지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영남, 호남, 평야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로 주로 곡물, 맥류, 감자, 면화등의 주요농산의 중심지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잡곡과 특용

작물의 중심지로, 강원도의 마령서와 옥수수, 호두는 제주도의 감자, 율, 유채, 신서란, 제충국과 좋은 대조가 되며 채소는 도시주변에서 근교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되고 과실은 경북이 탁월하고 전남 경기가 중심지다.

이와 같이 생산물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은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자연적 조건과 아울러서 생산물의 수요관계 국내소비와 해외수출 관계등이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될 것이며, 특히 풍토산물로 되어있는 특산물은 그 지방의 사람과 투지가 역사적인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져서 그 지방에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되어서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다.

한국연안방위(韓國沿岸防衛) 강화(強化)를 위한 항공기론(航空機論)

차순도(車淳道)



◇암담한 중공의 농업장래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일본의 중공통 지전정지보씨(池田正之輔氏)(자민당 정부조사회장)는 최근 조일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중공에 대해서 말했다. 「구미에는 중공평론가들이 많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피상적이고 따라서 권위가 없다. 중공은 8할의 인구가 농민이며 그것이 모두가 아직은 원시적이다. 중공의 무역수출품중 75%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며 중공재정의 50% 이상이 농업관계다. 인구는 매년 2천만내지 3천만이 증가되며 농산품의 증산은 거의 없다. 1980년이면 중공인구는 10억이 예상되며 기적이 없는 한 중공정권은 이 인구와 식량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중공정권을 상대로 장기적인 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평화공존노선과 중공

동구 공산권을 여행하고 돌아온 영국의 어느 기자는 중공은 동구에 발판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련에 가까운 동구의 생활수준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낮다. 그들은 당분간 전쟁이 없으면 지금보다 향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긴장상태를 요구하는 중공은 소련과 다투고 있지만 동구 공산권에는 발판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공산주의 이론을 수정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활이 나아져서 전쟁으로 그것을 잃기 싫다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 여기서 입증되는 것 같다.

◇수정주의의 비약

「호루시초프」의 수정주의는 최근 놀랄만한 비약을 가져왔다. 그는 소련 방 최고회의에서 자본주의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자유기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그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산주의자로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타린」시대 같으면 목이 열 개 있어도 모자라는 발언이지만 이 말은 바로 모택동에 대해서 주먹질하는 발언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말 끝에 중공의 호전적인 팽창주의는 국제공산주의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박했던 것이다.

1, 한국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많은 조서(鳥嶼) 심한 굴곡의 해안선을 가진 한국의 3면 해안은 무진장의 어로활동(漁撈活動)과 수산 개발이 가능한 양호한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불과 백여 마일을 격(隔)하지 않은 곳에 적국 혹은 가상적국들과 이웃한 한국의 연안은 항상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155마일 지상의 휴전선과는 달리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바다를 통하여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적의 잠수함이 언제 내습해 올지도 모르는 일이며 실제로 남한의 정치, 경제등의 교란을 목적인 적의 간첩이 이 바다를 통해서 남한의 해안으로 예고 없이 상달(上達)하고 있다. 지난 1년간에 있어서 공적으로 발표된 간첩 검거건수는 무려 119명에 달하는바, 그중 해상경로를 통한 자가 71명이나 된다. 이는 곧 남하 간첩의 80%가 해상경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통계는 지난 1년간 풍수해에 의한 국내선박의 피해가 510척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외 항공기의 해상사고도 연간 수천씩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평화선이 우리의 경비정에 의하여 철통같이 수호되고 있으며 평화선내에선 우리의 어선들만이 독자적으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평화선내에서 매일 수백 척을 헤아리는 외국 어선들이 주야로 어로작업을 감행하여 연간 수천만불에 달하는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비정들은 속도에 있어서나 그 척수에 있어서 국외어선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평화선을 수호하기엔 너무나도 곤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과 침범의 우려성이 있는 한국 3남의 연안은 좀 더 색다른 방법과 적극성 있는 태도에 의하여 방위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입체적 방위의 강화

불과 반세기 남짓한 항공사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초음속(Supersonic)의 과정을 지나서 우주를 무대로 뻗어 나아가게 하는 꿈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지금 선진제국에선 그러한 우주

경쟁을 위해 우열을 다투고 있는 차제(此際)에 이제 와서 우리는 우리의 연안을 평면으로부터 입체로 방위하려는 꿈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어쨌든 조속히 이룩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술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는 강력한 우리의 육해공군에 의하여 철통같이 방위되고 있음을 시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은 적의 오염의 침입이나, 항공기 및 선박조난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적절한 항공기의 활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에는 한미 공군을 비롯한 ○○대의 항공기들이 전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종사되고 있지만 군내자체의 임무수행에 족할 뿐 국가전반적인 요구엔 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전한국의 연안으로부터 100마일 내외를 포함하는 범위를 방위하기 위해선 우리는 더 많은 수의 각종 항공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연안의 입체적 방위를 위한 항공기로선 첫째 대잠수함용 초계폭격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적의 재래식 잠수함에겐 치명적인 활동상의 제약을 줄 뿐 아니라, 앞서 말한 적의 간첩활동에도 많은 제한과 위협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항공기는 주야를 불문하고 전 한국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초계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항공기 1대로서 능히 수십대의 경비선이나 수백명의 지상경비원들보다도 효율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방공식별구역(ADIZ)을 살살이 비행함으로써 우리 선박의 권익보호, 외국어선의 침범방지, 나아가선 사소한 밀수 밀입항까지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입체적 방위를 위한 다른 하나의 항공기는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재래식 수륙양용기 혹은 헬리콥터기이다. 우리들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지나간 수년간에 한국연안에서 발생하였던 한미공군기의 해상조난,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빈번히 발생하는 여객선 어선등의 무수한 조난사고에 접할 때 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륙양용구조기의 아쉬움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륙양용기 광범위한 행동반경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해상착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 영국공군에서 사용되었던 수륙양용 다용도 항공기의 활약상을 검토해 봄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참고가 될 줄 믿는다.

3, 날으는 순양함

1939년 9월 18일 8,000톤의 군용식량을 적재한 영국의 수송선이「시시리」(Sicily)에서 112천(浬) 떨어진 해상에서 아무 경고 없이 뇌격을 받았다. 침몰해가는 동선 밖으로부터 SOS(구조신호)를 수신한 영국공군 제228 중대의「싼더랜드」(Sunderland) 항공기는 즉각적으로 동선박의 위치를 발견, 근처에 착수하여 동선의 승무원 34인중 20명을 구출 하였다. 그동안에 또 다른 한 대의「싼더랜드」기가 도착하여 나머지 전원을 구조한 것이다. 10분후에 배는 침몰하고 말았지만 동선의 승무원 전원은 무사히 구조되어 영국본토로 귀환된 것이다. 이것이 영국공군의 수륙양용기인,「싼더랜드」항공기가 세운 최초의 공적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싼더랜드」기는 독일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당시 연합군에게 전표(戰標)의 대상이었던 독일 해군의 U-BOAT 45척을 격침시키고, 15척을 격파시켰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공군의 정예기인「Focke-wolf90」전투기와도 자주 총화를 교환하여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쯤 되자 드디어「싼더랜드」기는 독일 조종사들에 의하여 공군순양함이란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한국 전란이 일어나자 이 공중 순양함의 3개 중대는 즉시 바다에 연한 산악국인 한국에 전개되어 기지를 정하고 동서해안의 초계 및 구조비행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전란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 한국에 출전되었던 영국 항공기로선 가장 눈부신 활약과 공헌을 한 군용기였던 것이다.

그 후에도 소련에 의하여 서백림이 봉쇄당하였을 때는 식량공수작전에 참여하였고 아세아의「Malaya」에서의 정글 작전에선 대 게릴라용 폭격기로 사용하는데 본래의 초계, 폭격임무 이외에도 수송, 병원, 구난 및 항단호위기 등 갖가지 당용도임무로 본 비행정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싼더랜드」기는 취역 20여 년간에 수립한 빛나는 여러 공적이 아직도 영국공(RAF)의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아있다.

4, 외국의 연안방위현황

각종 연안초계를 비롯하여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를 위한 전반적인 책임은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로는 WV-2(RC-121)초계기를 비롯하여 C-54 수색기, SA-16 수륙양용구조기 H-19헬리콥터 구조기로 장비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해안경비대는 육해공3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그리고 기타 연방기구(Other Federal Agency)와 함께 각종 항공기 및 선박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잠수함 초계활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연안방위임무를 민간기구인 해상보안청에서 맡고 있다. 즉 해상보안청의 기능을 고찰하면, 해상부유기뢰의 발견으로부터 해난구조, 항고표식의 유지, 그리고 수로 및 해상기상의 관측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장비면에 있어서 그들은 순시선정 439척과 항공기 13기(수륙양용기 2대, 헬리콥터 11대)를 유하고 있음은 팔목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4면이 해면으로 둘러싸인 도서국(島嶼國)으로서 그 정도의 기구와 장비가 마땅히 보유되고 있어야 하겠지만, 한편 대전 이후 그들의 군대라고 볼 수 있는 자위대의 발전상을 우리는 경솔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일본 해상 자위대는 각종 전투기 및 훈련기를 제외하고서도 대잠항공기 92대, 수륙양용기 15대, 헬리콥터 15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항공 자위대의 수송기 47대, 헬리콥터 9대를 합치면 실로 대잠수함초계기와,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항공기수는 무려 180여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5, 한국연안에 적합한 항공기

상기한 외국의 예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안방위를 위해

중사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목적과 기종의 형에 따라 크게 구분하자면 대략 수색기, 초계폭격기, 수륙양용 구조기 및 헬리콥터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C-54와 같은 수송기는 대개 장거리 해상 수색을 위해 사용되며, 해상조난자 발견시에 구명보트를 비롯한 생환 장구를 투하하여 주기도 한다. 초계폭격기에는 Grumman회사의 S2F(Tracker), P-2V-7(Neptune), PV-2(Harpoon)등이 있는데 대잠수함 초계 폭격기로 사용된다. 수륙양요기(Amphibian)로는 SA-16(Albatross), G-44(Widgeon)등의 항공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이의 장점은 수색과 동시에 직접 조난자근방에 착수하여 구조할 수 있는 점이다. 해상활동이 가능한 헬리콥터로는 H-19(Chicksaw) H-34(Choctow), H-37(Mojave)등이 있는바, 이는 수륙양용기와 마찬가지로 수색 및 구조기로서 수면에 착수 혹은 근접하여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느린 속도와 짧은 비행반경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여러 종류의 항공기중에서 우리가 운용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선정함에 우선 한국의 입지적 조건과 전술적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택하는 항공기는 연안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을 활동할 수 있는 행동반경을 가진 항공기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기조로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용도 항공기라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선 앞에서 논한 영국의「잔더버드」기와 같은 것이 적합하겠으나 한국의 실정은 한 대의 대형항공기보다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더 많은 대수의 유용한 항공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의 연안은 적어도 P2 V-7과 같은 초계기, SA-16과 같은 수륙양용구조기, 그리고 H-34와 같은 출력이 양호한 헬리콥터로 장비되길 원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장비로 한국의 3면 연안이 무장되는 날, 우리는 무수한 항공기나 선박의 사고를 최소한으로 방지함으로써 귀중한 인명과 국가재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선 적의 잠수함활동, 간첩납파, 외국어선의 평화선침범, 밀수, 밀항 등의 활동에 최대의 위협을 줌으로써 한국의 연안, 영해와 영공이 충실히 방위됨과 아울러 이는 전체 국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몇 가지 한국연안방위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항공기와 그의 성능 등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끝을 맺는다.

1, Sikorsky H-34

승원···2-12명
출력···1525Hp
속도···132 MPH(최대)
항속거리···270 Mile

개요···미 해군에서 대 잠수함 탐지용 항공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수색 및 구조용으로도 이용된다. 성능상 출력이 양호함으로 우주항공기의 지구로 귀환시 조종사 및 캡슐 회수등에 이용된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소형 헬리콥터이다.

2, Grumman S2 F-2 Tracker

승원···4명

출력···1500Hp×2(쌍발)

속도···260 Knot

항속거리···700km

무장···Torpedoes, Rockets, Depth bombs, Sonobuoys

개요···현대적인 탐지 장치를 장비한 잠수함 탐색 및 공격용 항공기로 전천후에서 활동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다.

3, Grumman UF-2/SA-16B Albatross

출력···1425 Hp×2(쌍발)

속도···220 Knot/16300

항속거리···2060km

무장···2×325 Lb D.B

개요···수색, 구조, 병원 수송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수륙양용항공기로 한국 전란시 미 공군에서 한국연안에 배치 운용하였으나 현재는 철수되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한국에 적당한 수색 및 구조용 항공기다.

4, Lockheed P2V-7 Neptune

승원···7명

출력···2650×2

속도···344 MPH

항속거리···3,700 Mile

개요···미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거리 초계 폭격기이다.

5, Douglas C-54 Skymaster

출력···1540 Hp×4

속도···246 MPH

항속거리···1680 Mile

개요···미공군 MATS 산하의 SAR(수색 및 구조)부대에 배치되어 사고 발생시 수색 임무 및 구조장구(Life raft)등 투하 작전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구 공산권의 동향

「로저·힐스맨」(미국무성 정보조사국장)은 동구라와 공산국가의 앞으로의 동향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역의 공산국가들은 서구의 민주국가들과 접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수준이 민주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알고 있다. 소련이 이 지역에 가장 철저한 감시망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공산국가의 국민들은 공산주의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서도 조금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므로 공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회의가 증대되어가고만 있다.」

◇동백림에서 생긴 이야기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성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 우리는 이 감옥을 빠져 나갈 길이 없어졌다』그러자 한 사람이『적정 말게 소련이 국민을 굶겨가며 만든 인공위성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되잖나.』

또 한 사람이『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비밀경찰이었기 때문에 먼저 말한 두 사람은 귀신도 모르게 며칠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일본부흥(日本復興)과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군사적(軍事的) 지위(地位)의 향상(向上)은
우리 한국(韓國)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김원환(金元煥)

목 차

서언

- (1)일본의 경제부흥
 - (2)일본의 전략적 지위
 - (3)일본의 국가정책
 - (4)한국관계의 문제점
- 종언

서언

요사이 한일회담이 진전됨에 따라 전례 없이 일본경제인들의 왕래가 심해지고 많은 일본 상사원들이 서울 시내 호텔에 자리 잡고 한국의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의 정치현상에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여 한국민족에 대한 일본의 연구와 통치경험이 미국의 것 보다 앞선다고 공언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본이 우리의 청구권을 독립축하금 이라고 멋대로 개칭해가면서 무상과 유상으로 나누어 제공하여 한국경제부흥에 협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채권국가나 다름없는 입장에 서있는 정정당당한 채권국가로서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이 채권국가로서 그 의무를 순수히 이행하지 않는 까닭은 어디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일본의 자본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될 것이며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한일국교의 정상화를 앞두고 우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삼스럽게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다.

(1)일본의 경제부흥

일본의 경제는 제2차대전 후 미국원조와 미군점령시의 기지경제 그리고 한국 동란 같은『신풍(神風)』적인「찬스」를 잡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패전후 일본은 재벌의 해체, 농지개혁, 노동 운동강화 사회당진출, 증권민주화운동 등에 의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는데 근년의 양적성장을 보면 1955년이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1%로서 국민소득도 배액이상 증가하여 선진국을 앞서고 있으며 생산의 질적 향상면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에 도달한 부문이 많다. 기중(其中) 정평있는 것이 조선,「트랜지스터」,재봉틀, 사진기구 등이고 섬유제품, 시멘트, 도기, 완구의 수출도 세계제일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동양의 나라이면서도 서구에 한 다리를 깊이 박을 수밖에 없는 중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자본주의의 중진적 발전성격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일본보다 뒤떨어진 동양의 후진국에 대하여는 다분히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보다 앞선 서구의 몇몇 선진국에 대하여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공과 무역으로 사는 일본으로서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생명서인 것이다. 일본이 발전하면서 대미 종속을 벗어나려면 일제 고급소비품의 시장으로서 서구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양에 대한 진출은 독자적으로 또 어느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척될 수 있지만 서구 진출은 보다 경쟁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적절한 외교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일본은 미국의 중개로 구주공동시장에 접근하여 손을 뻗치는 한편 영국과도 통상조약을 맺고 영연방권까지에도 통상의 길을 넓히고 있다. 일본의 해외진출은 동남아를 통과하여 중동, 아프리카, 구주에까지 뻗치고 있다. 아라비아에는 약600억 원(일화)을 투자하여 석유를 개척하고 이제는 그 판로에 부실할 정도이고『소니』등의 일본주식이 New York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으며 영국의 증권시장에까지도 진출하리라 한다.

일본의 이와 같은 1960년 이래의 호경기 황금시대도 경제성장의 지나친 속도 때문에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작년부터 국제수지상의 적자와 계속되는 재고 투자에 인플레이가 겹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금년에 들어서서는 왕년의 인기산업이던 철강의 과잉시설로 인한 불경기가 경제계를 위협하자 일본정부는 산업 합리화 및 정비에 고심하게 되었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무역자유화정책과 새로운 산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억제정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그동안 경제의 민주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도 반 봉건적인 사회경제체제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국가자본주의체제로서 국내의 저렴한 임금을 지주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공 제조 수출하는 경제구조 하에서는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이며 경제가 커질수록 더욱 해외시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확대에 있어 이제는 군사적 성격은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다만 평화로운 통상전에 의존하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본자본은 앞으로도 미국자본의 하청부(下請負)를 맡아가고 국내적으로는 노동강화에 의하여 국제적 수출상품용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국외적으로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수출창구를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후진지역에 대하여서 생산 시설 및 기구의 수출에 노력할 것이고 서구의 선진지역에 대하여는 정밀한 경공업품의 수출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지역에 대하여는「배상 또는 경제협력」이란 형태로서 중공업제품 및 시설투자를 수출하는 동시에 무역면을 통하여 그 부분품의 계속적인 수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수출을 계획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의 과잉시설 또는 잉여생활품의 배설구를 열어 준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기술 혁신에 따라 일본의 구 산업시설을 끊임없이 새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동양의 수 개국에 대하여「배상 및 경제협력」이란 단일협정에 의하여 무상과 유상의 두 개의 부문을 한데 묶어서 장래의 자본수출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기동성과「이니시아티브」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후진국가에 대한 경제공세 또는 새로운 침략형식이라고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전력적 지위

일본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자유주의,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希求)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자위능력을 강화하면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 공산진영에서 본 일본의 전략적 지위

소련이 일본을 침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제2차대전 후에도 소련은 일본의 남엽태(南燐太), 천도(千島)를 빼앗고 북해도까지 분할점령 하고자 미국대통령에게 제의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극동에 있어서의 해양진출 위하여 일본열도를 통한 해협을 관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전략적 가치로 보아 당연하다할 것이다.

1950년 소련 중공간에 우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거기서 확실히 소련 중공의 가상적국으로 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일본에 대하여 침략기도를 갖는다는 것은 상기의(上記外)에도 아세아를 적화하고 자유진영의 세력을 동양에서 구수(驅逐)하기 위한 것이다.

(b) 자유진영에서 본 일본의 전략적 지위

일본은 미군 점령하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공업국가로 발전하였고 한국 동단을 통하여 미군의 전진보급수리기지로서 임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제1의적으로 일본은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것이고 제2의적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기지는 극동의 타 지역에 대한 방위를 담당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극동지역의 자유진영방위조직의 중요한 요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요충인 일본을 강고(強固)히 방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 이 요충을 방위하기 위하여 그 전위(前衛)가 되는 다른 지역의 방위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대만 및 기타 동남아제국을 방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들 제국의 방위가 일본의 방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핵미사일 시대에 들어서서 핵잠수함의 역할이 커지자 소련의 잠수함기지가 있는 일본 해구를 감시할 수 있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극동의 타 지역보다 특별하게 선출하여 NATO제국과 동격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일본의 국가정책

일본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다. 즉 미국에 의존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있으며 미국의 비호하에서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팔망미인격인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이익은 경제적 번영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달성하기위한 국가목표와 정책으로서 자유진영에 가맹하여 아세아에서의 중공의 진출을 봉쇄함으로써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들어간 일본의 과잉상품의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적 제국주의적인 대동아공영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일방 또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는 소련이나 중공과도 친근 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과도 통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정책을 용공적(容共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은 패전 후의 경제적 재건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이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미국에만 매여 살 것이 아니라 공산진영에 대하여도 적당히 아첨하며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실리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미국에 매달려서 EEC와의 접근을 피하고 영국연방권과의 통상을 계속하는 한편 소련이나 중공과의 경제적 제휴를 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소련상품의 견본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척하여 소련부수상「미꼬안」을 초청 환대하고 또 소련에서 일본의 견본시장을 여는등 도이민족(島夷民族)의 습성을 여지없이 발휘한 양면외교를 하고 있다.

그리면서 일본 스스로가 양쪽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끔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4)한일관계의 문제점

한일양국은 지정학 상으로 진치(唇齒)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는 국시적(國是的) 입장에서조차 지난 날의 독도적(獨導的)인 우월감이나 구적시(仇敵視)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공산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선린외교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4·19혁명 후에야 비로소 급속도로 해빙기에 들어가 십여년을 끌어 오던 한일회담도 타결점의 근접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점은 일본이 한국의 청구권

을 독립축하금이란 어색한 명칭을 붙여가면서 무상 유상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한국경제부흥에 노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 이면에는 국제적인 정치작용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미국「러스크」국무장관이 동남아 저개발국의 원조에 있어서 일본의 조력을 요청하자 일본은 대미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통제완화라는 양보를 얻는 대신에 동남아지역의 공동개발을 담당하고 나섰던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시장개발의 입장에서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 대하여 2억불의 유상공여를 제의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 기금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개발원조에 가담하기 위하여 벌써 2년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차출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본수출을 목적으로 2년전부터 대기의 자세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기간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장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5개년계획에는 일본자본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승리(乘離)도 심한 편견을 가지고 한일회담에서도 저자세를 취하여 청구권해결의 대가로 평화선 철폐등의 실질적 문제를 동시 해결 코져 버리고 있다.

무릇 모든 국가 간의 국교정상화의 기초는 대등한 주권 존중 밑에서 평화로운 경제관계의 접수에서 비롯하는 것임으로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는 언제든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는 한일국교의 정상화에는 청구권의 지불액 수 다과(多寡)보다도 일본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의 일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용공적 정책의 지양이 선결요건인 것이다. 일본국민은 편협한 오늘의 이익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내일의 자유평화를 위한 극동의 안전보장이란 자유진영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굳게 결속하여야 할 것이다.

결언

제2차대전 후 일본의 국가자본주의는 미국의 원조와 한국 동란등의 호기를 이용하여 전대미문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오늘날 미국 및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가들과 비견하리 만큼 경제적 부흥을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자유진영에 가맹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지위향상이란 국가목표를 더욱 추구하기 위하여 공산권과도 경제적 제휴를 계속하면서 소위 외교와 경제를 분리한 이중적인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는 독점자본주의단계에 돌입한 일본경제가 과잉생산, 국가수지의 불균형 등으로 불황의 양상을 띠우게 되자 또다시 아세아 후진국에 그 배설구를 찾게 되어 경제협력이란 미명하에 상품시장 화합으로써 왕년과 같은 동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자부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 대하여는 한일회담을 통하여 우리의 청구권을 무상 유상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한국경제발전에 협력하겠다고 생색을 내고있는 이면에는 장래의 자본수출을 유리하게 발전하여 한국을 일본상품시장화하려는 새로운 경제적 침략의 저의가 숨어있다고 보아 지나친 기우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요즘에 한일경제인들의 동향으로 보아 양국의 독점자본이 상호이익의 합의를 맺을 무색하였으리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으며 우리는 급한 마음에 임시 변통격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자립성과 5개년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수입태세(受入態勢)와 경제심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미국이 대외원조정책의 다수국 참가원칙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부흥한 일본에게 동안마저 개발국가의 원조를 분담케 함과 동시에 국동지역의 집단방위 동맹체제의 구상에 있어 전략적 가치로 보아 방공요충인 일본으로 하여금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리라는 일부 여론의 가능성에 대하여 일본의 군사적 지위의 향상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지위의 저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진열(眞摯)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스노」의 중공평

일본의 유명한 중공통 지전정원보(池田正元輔)는 최근에 발간된 경제지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최근「에드가 스노」씨는 중공의 광업생산을 평하면서 중공은 경제할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스노」씨의 이와같은 논평이 권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중공의 실태를 파악할 중공의 농업실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의 광공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은 아직 현대화하기에는 요원한 것이며 그것으로 중공의 부족한 식량을 수입해 올 만한 외자획득은 망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전에 중공의 농업이며 원자력문제에 대해 그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하등의 오소리타도 가치도 없다. 그는 사실상 중공을 움직이고 있는 재원인 농업에 대해서 그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중공의 광공업에만 중심을 두어 중공의 장래를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그 위력을 살릴 수 없는 일본의 바다만을 보고 일본이 해양국이라고 일본의 해군을 두려워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함대 없는 해양국이나 해군, 또는 낡아빠진 군함은 원자잠수함이 생겨난 오늘날 하등 두려워할 존재는 못되는 것이다.

공통(共通)의 광장(廣場)에서

- 세계재향군인(世界在郷軍人)의 달을 보내고 -

박영남(朴英男)
〈재향군인회 공보과장〉



1, 머리에

6월 한달은 세계재향군인의 달이었다.

이달은 세계재향군인연맹(World Veterans Federation) 산하의 51개 이사국과 159개 단체가 각종의식과 행사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는 달이다.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이달을 우리나라의 재향군인의 달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매년 각종 행사를 통하여 향군의 단결과 향토재건의 각오를 새로이 하고자 이미 엄숙하고도 의의깊은 행사가 전개된 바 있다.

필자는 이 한 달을 보냄에 즈음하여 세계재향군인들이 공통의 광장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향군의 달을 회상함과 아울러 향군의 달의 의의와 각종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재향군인의 달의 취지및 WVF의 성격

세계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재향군인연맹은 1961년 불란서「파리」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매년 6월 달을 세계재향군인의 달로 설정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는 세계재향군인연맹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특히 전쟁피해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각종 의식과 행사를 통하여 세계재향군인연맹의 목적과 사명을 각국 국민에게 주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계재향군인연맹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한다.

2, WVF의 연혁

1950년 11월 27일 불란서「파리」에서 자유세계 5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159개 향군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세계의 총 회원수는 약2,000만명이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 6일 제7차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2, WWF의 실천목표

- (가)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에 기초를 두어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 (나)UN전문기관 및 비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인류의 생활향상에 기여한다.
- (다)UN을 지지하고 인권선언서에 기재된 바를 스스로 실행한다.
- (라)세계 재향군인연맹 가맹국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3, WWF의 정기사업

- (가)불구자들의 갱생을 위한 사업.
- (나)토지개간, 주택건설, 지역사회개발사업.
- (다)재향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
- (라)국제적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사업.

그밖에도 WWF는 UN경제이사회의 FAO, UNESCO, WHO, ILO, UNICEF등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

3, 향군의 달 행사

세계향군의 달인 6월을 우리나라의「향군의 달」로 맞아 그 이념과 목적을 일반 회원 및 전국민 앞에 선양하고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을 통하여 향군의 위치를 더욱 굳은 지반 위에 올려 세우려고 전국 2백만 전우들은 일어섰다.

이 한달 동안에 실시한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일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의 기념담화에서 시작된 향군의 달은 3일 국방부장관의 담화로 더욱 고무되었다.

6월5일 앞서 간 전우들이 잠든 국군묘지에 풀을 뽑고 간부들까지 솔선 비를 들어 미화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6일 현충일에는 간부들이 영현들의 무덤에 꽃다발을 드렸다.

이날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충혼탑에서는 일제히 헌화가 실시되었다.

6월 8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향군의 날」기념식에는 박의장을 비롯하여 삼부요인과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6천명의 회원들이「피 흘려 지킨 나라 땀 흘려 재건하겠다」는 우리의 의욕을 거듭 다짐한 바 있었다.

그에 앞서 6월 5일에는 회장 이성호 제독을 비롯한 부회장들과 간부들이 혈액원에서 헌혈하므로써 작년 향군이 이 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헌혈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8일의 기념식에 이어 서울의 중심지인 세종로와 종로를 누비고

간 시가행진은 다시 한번 향군의 위용을 떨치게 한 바 있으며 그날 밤 창경원에서 가진 축하연에는 박의장께서도 참석하여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6월 15일에는 중앙청광장에서 향군위안의 밤을 가졌으며 22일에는 국민회당에서 남녀고등학생들이 열변을 토한 웅변대회가 베풀어졌다.

또한 이 6월을 기념하는 뜻 깊은 사업으로 앞의 헌혈운동을 비롯하여 입원장병 및 상이촌 위문, 종교예배 사진전시회, 일선장병의 가족 및 유가족의 농사 돕기, 구호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6월 한달을 통하여 일찍이 없었던 거국적인 사업과 행사로써 나라의 위기를 지킨 호국의 용사다운 의기를 다시 한번 드높인 바 있다.

4, 끝으로

평상시에는 향토건설을 위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전시에는 다시 총칼을 들고 전선에 나설 우리들이이런 한 달의 행사를 통하여 더욱 그 단결을 굳게 하고 또한 세계의 향군들과 손을 잡고 일어섰다는 것은 껍이나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혁명과업이 그 마지막 완수의 고비에 도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중대한 각오로 우리가 전투에서 쌓은 희생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해마다 이 행사가 발전되어 갈 것을 빌면서 여기에서 줄인다.

◇중공의 비료문제

북경정권은 비료의 국내생산은 소(所)용량의 2백만둔(百萬屯)리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엉터리이며 하등의 과학적 근거도 두지 않은 위장이다. 왜냐하면 1953년에 그들은 국내총생산이 350만둔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를 근거로 계산한다면 중공은 아직도 비료부족이 2천만~2천5백만둔이 부족하다고 보아진다. 미국은 현재 1억8천만HT에 연간 3천3백만둔이 사용되고 있는데 중공은 1억1천만HT에 1953년에 3백50만둔이 사용되었다. 미국과 같은 비율로 나간다면 중공은 연간 최소한도 3천만둔이 필요하다. 때문에 중공의 전력생산 기타 여건으로 보아 10년 동안에 비료생산이 3백50만둔에서 2천5백만둔으로 증산되었다는 것은 망상이며 망명객 기타 종합적 조사에 의하면 비료생산은 1953년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보인다.

죄인(罪人)이 따로 없다

-법무관(法務官)의 수기(手記)-
<K병장의 경우를 중심(中心)으로>



하경철

며칠 전 출근버스에서다. 동석한 H대위로부터 K병장이 또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K병장이라면 재판을 통하여 나오는 구면인 사이다. 사건관계로 알게 된 사이라면 어쩐지 불 명예롭고 거리감을 주는 것 같지만 K병장이라면 내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이름으로 H대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작년 8월경인가 보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내게 큼직한 사건기록이 배당됨과 더불어 책상 앞에 헬썩한 얼굴을 한 미남사병이 서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채이고 고개를 푹 수그린채……. 피의사건명은 사기등. 이 사병이 바로 K상병, 지금의 K병장이었다. 첫 인상에 죄를 범할 위인 같지가 않았지만 조사결과를 대개 이려했다. 즉 그는 같은 과에 근무하는 S중령과 H대위의 명의를 팔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도망하였으며 또 위의 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문서까지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재미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I시인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성적이 우등이었다. 그래서 동급생은 물론 타교의 문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던 중에 군에 입대하였으며, 이러한 과거로 인하여 군에 입대한 후 수명의 여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다. 점차 그 교제의 정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용전(用錢)이 궁핍해져 결국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평소의 성격이 온순하고 착실하며 한때「카톨릭」교를 신봉하며 정신수양에도 정진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그의 범죄동기에 나는 무척 흥미를 느꼈다. 물론 여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파렴치한 것이며 따라서 조금도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K병장과 같은 처지에서 더욱이 여자로부터의 유혹이 있었다면 일응(一應)동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허기야 이런 경우에 조금도 참회의 빛이 없다면 또 모르려니와 자기가 어찌다 범한 실수를 심히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K병장의 경우에는 의당 인간으로서의 동정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난 피의자를 대할 때나 피고인을 신문(訊問)할 때나 먼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하며 열성으로 대응하려고 늘 노력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건 죄이지 죄인이 아니며 따라서 죄인의 인격도 인격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칠에 걸친 신문을 마치고 났을 때는 K병장에 대하여 검찰관과 피의자라는 상호의 신분을 떠나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사적감정이 검찰관과 피의자사이의 형사소추라는 공적질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K병장은 기소되어 6월의 징역선고를 받았다. 그때 그는 다시는 이런 범행을 않겠으며 복역기간중은 좋은 수양의 기회로 삼겠노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여 영창으로 떠났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완전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무한한 회의에 나는 괴로워 했었다. 그 후 기회 있을 적마다 영창순시를 갖고, 그 때마다 좋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었는데, 바로 그 K병장이 출감한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출감 즉시로 타처로 전속시킬 것을 괜히 데리고 있었다고 후회하는 H대위의 표정은 무척 굳어 있었고 가끔 얇은 고소(苦笑)가 스쳐갈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K병장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H대위는 자기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사랑하는 부하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만을 바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터고 보면 그 분함(分憾)이 어떠한 것인지? 분한 것은 비단 H대위만이 아니다. 나 역시 분함을 이길 수 없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듯한 분노였다. 한 사람을 새 인간으로 출발시켜 보려고 그토록 노력했고 K병장 역시 굳게 약속했건만 남은 건 배신과 실망과 거짓뿐이 아닌가? 나의 진정을 K병장은 값싼 동정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 이용했다면 그렇게 껄뽀한 것은 그가 도망하기 며칠 전에 부대복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때 그는 남은 복무기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면 제주도로 전속가고 싶어 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여기 있어봤지 동료에게 미안하고 또 유혹이 많아서 차라리 멀리 가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길래 나도 좋다고 찬성했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이미 사고를 저질러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니 나는 끝내 감쪽같이 속고만 것이다. 그래서 역시 한번 사고 낸 놈이 또 사고 낸다는 H대위의 말에 나도 선뜻 동의하고 말았다. 사실 한번 범행한 자가 재차 범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으로 죄인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점점 흥분이 가라앉음에 따라 H대위의 말에 선뜻 동의한 걸 후회했다. 「롬부로쵸」(Cesare Lombroso)에 의하면 사람의 체형에 따라 범죄인형과 그렇지 않은 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범죄인형의 체형을 가진 자는 언젠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여 결국 죄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롬부로쵸」는 이태리 사람으로 1859년에 이태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원래가 의학자인 군의로서 종군하여 군기를 잘 순종하는 군인과 그렇지 않은 군인과의 사이에 신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후 이태리에 있는 형무소죄수와 정신병원의 환자를 세밀히 조사하여 일반인과 좀 다른 신체구조를 발견하여 위와 같이 죄인이 따로 있다고 말하게 된 것이나 이 주장에 대하여는 오늘날 그리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학설은 차치하더라도 흔히 저자는 죄인 형이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 말이 타당하겠는가? 나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보더라도 죄인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때로는 범죄인형의 인상을 가진 피고인이 가끔 법정에 설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의 안광(眼光)에서 오는 비과학적 선입관에 불과했다. 언젠가 두 번씩이나 군무이탈을 한 사병이 재판을 받았다. 그때 어느 심판관이 저자는 틀림없는 죄인형 이라고 내게 귓속말을 건네어 왔다. 그때 그 피고인의 눈은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 건전치 못했던 환경에서 배태된 사회에 대한 질시 같기도 했고 무언가 반항하는 눈초리 같기도 했다. 아마 그런 눈빛에 매혹되어 모처럼 나온 심판관은 이렇게 말했던 모양이다. 재판에 여러 번 관여하여 피고인들을 대해 보면 범죄의 소질이 다분히 있는 범죄성향의 사람을 식별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렴풋한 경험에서 나온 선입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범죄인형을 자신 있게 구별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하는 것은 그 자의 범죄성향 때문이 아니라 초범시의 환경이 호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범죄의 가장 중요한 동기의 하나가 그 환경에 있다. 군인범죄에 있어서 유형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군용물에

관한 범죄, 교통사고에 관계된 범죄, 군무이탈죄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경우에도 범죄인의 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음은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공판에 임할 때는 범죄의 동기에 무척 관심을 쏟곤 한다. 물론 재판관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동기를 살필 때는 자칫하면 동정에 빠져 양형을 그르칠 염려가 있지만, 일단 피고인의 입장에 들어가 그 동기를 살펴본 뒤에 다시 사회 일반인의 관념으로 되돌아와 심판한다면 좀 더 적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범죄인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그의 환경 의지력 등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범행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겸하여 하찮은 사정 때문에 범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를 들어 지적하여 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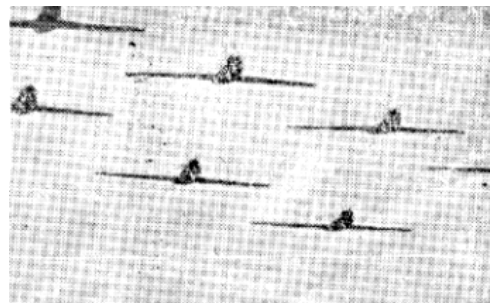
먼저 군용물에 관한 범죄이다.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중도독」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자교제에 의한 자금조달이 동기가 되어있다. 심지어는 신병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군용물을 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신병이란 거의 예외 없이 성병이었다. 5·16혁명 후에 군용물 부정부분을 근절시키려고 무거운 형량을 규정(군형법75조 참조)해 놓았음에도 운전병은 기름을 팔다 걸려든다. 이들은 미래를 생각지 않고 오직 현재의 기분에만 도취하려는 불과 몇백원의 대포값을 벌려다 유지탱크를 태우고 중형에 처해졌다. 우리 군형법은 군용물을 절취 하거나 횡령하는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최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몇백원 상당의 군용물을 훔쳐더라도 일반 기소만 되면 적어도 3년징역을 받게 마련이다. 정상이 좋은 경우라야 작량감경(酌量減輕)하여 겨우 1년6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찮은 동기에서 중형을 받다니 이 얼마나 비극이겠는가? 대개의 경우 자기의 분에 넘치는 짓을 하려다 범행을 저지른다. 성병에 걸리면 군용물을 절취하려고 하기 전에, 좀 창피하더라도 군의관에게 찾아가라, 우선 창피하다고 징역을 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자교제에 있어서도 과분한 비용지출을 삼가라. 요즘 유행어로「재건아베크」를 한다면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엇이든 즐겁게 해주려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기 위하여 범행하는 건 여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 형을 받고나면 여자도 떠나고 사랑도 깨어지기가 일수이니 말이다. 젊은 군인이라면 기분에 휩쓸리기 쉽지만 자기의 장래를 망칠 정도로 기분에 휩싸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니 조금만 주의한다면 이런 불행은 자초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다음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범죄이다. 이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와 군용물 손괴의 두 경우가 있다. 어느 것이나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동정이 간다. 더욱이 과실로 인한 군용물 손괴죄는 군형법에만 있는 순정 군사범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죄는 처벌되지 않음에 반하여 군용물 손괴의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하는 점에서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결정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현금(現今) 증가상태에 있는 건 사회의 일반현상으로 그 처벌에는 다분히 정책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만 특히 군대차량에 있어서도 이런 사고가 많은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다. 군인운전병은 젊은 혈기의 나이로서 기분파에 속하는데다 운전경험이 미숙하다. 더욱이 군복을 입고나면 야릇한 우월감에 빠지는 모양이다. 원래「유니폼」이란 직종이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공식적 편의로 착용하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조직체인 군대사회에서는 규범과 통일을 위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막상 이런「유니폼」을 입고 보면 마법사의「만포」모양 이상한 용기가 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구「와일드」하게 운전 하는게 보통이다. 심지어는 도심지에서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선행차를 거침없이 추월하며,「건너가는 길」을 감속도 없고 그냥 지나친다. 귀대시간이 늦은 것만 생각하고 마구 달리다 사람을 치어 죽이는가 하면, 상대방차가 비키려니 생각하고 좁은 교량에 거침없이 진입하는「앰부란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다. 더욱 위험한 것은 차를 후진시킬 때 주의가 너무 소홀하다. 운전병은 하등특권이 없다. 오히려 민간인 운전수에 비하여 군용물손괴라는 범죄가 경합될 염려가 있다. 그럼에도「유니폼」의 우월성에 빠져 의외의 사고를 내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거의 전부의 경우 운전병의 과실이 매우 크다. 그런 경우는 동정이 갈 수도 없다. 운전병이 조금만 더 성실하게 교통규칙을 지켜서 제한속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사고는 반감될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유니폼」의 우월성만 버린다면 사고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무이탈의 경우다. 공군은 타군과 달라 지원병제도이고 보면 군무이탈은 먼저 자기모순에 빠진다. 도망동기도 별 것이 아니다. 혹은 애인 때문에 혹은 신병을 구실로 도망한다. 가장 어리석은 경우는 처벌이 두려워 도망하는 때고, 가장 딱한 경우는 군대생활을 이겨내지 못하여 도망하는 때이다. 대개 이런 도망

(P124로 계속)



자유세계(自由世界)를 방위(防衛)하고
있는 위대(偉大)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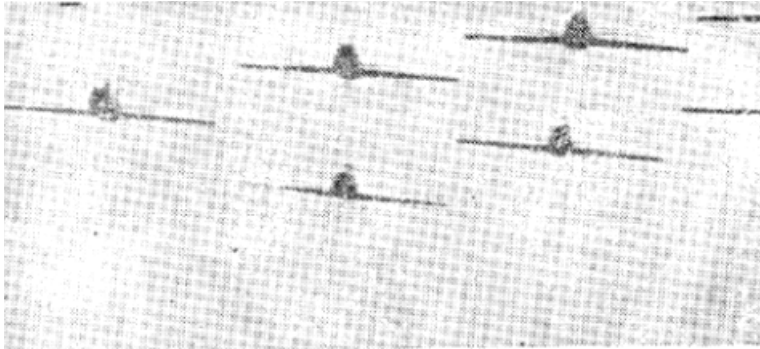
군력(軍力)

힘에는 힘으로

제2차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 영국, 불란서 같은 서방제국에 특히 깊은 감명을 준 것은「힘의 승리」라는 사실이었다. 항상 적보다 강한 힘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후에 급격히 높아진 공산진영의 힘의 위력에 대처해서 서방측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공산측보다 우월한 힘의 결집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조직된 첫째 이유이기도하다.

다음에 제2차 대전에 있어서 나치스·독일의 작전실적에서 볼 때 거의 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구라파에서 침략자에 대처하는 개별적인 힘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통감한 여러 나라들이 단순한 군사동맹이나 협력관계만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동일 된 사령부 밑에 운용되는 통합군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NATO동맹군의 형태를 취한 것, 이것이 군사동맹의 둘째 이유다.

오늘날과 같이 동서간의 평화가 양진영 군사력의 미묘한 바란스 밑에 유지되고 있는 이때 이 군사동맹이 지니는 의의는 크다 아니할 수 없다.



NATO의 공(空)

1949년 4월 4일 처음으로 NATO가 결성되었을때 그 규모는 불과 10개 사단의 지상병력과 400대 정도의 일선기로 된 공군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던 것이 3년 후인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강대한 세력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편 공산측도 NATO의 병력과 특히 서독 재군비에 대항해서 1955년 5월 14일 동구위성국가군 즉 소련,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라바키아, 헝가리, 동독등을 결집해서 소위 와르샤와 조약기구라는 것을 조직하였다. 역사상으로도 전례 없는 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막강한 동맹군은 이미 그 군사력을 무시하고서는 양진영의 관계를 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NATO군은 새로운 의의를 갖는 것이다.

NATO공군의 사명

강대한 힘을 자랑하는 NATO군사력 가운데서 공군이 수행해야 될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공산 측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서구지역을 방위한다.
2. NATO 지상군의 작전을 직접 지원한다.
3. 전술군을 수송·전개시킨다.
4. 공산권에 전술공격을 가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NATO가맹제국으로부터 시기적절하게 병력차출을 받아 이것을 통합지휘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항공력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각국에서 당시 파견되어 연합공군으로서 편성되어 있는 공군부대

이며 이들 재구연합공군부대가 NATO공군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재구 공군부대는 처음에 미국과 영국의 주류공군부대(駐留空軍部隊)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1961년 이후 각 가맹국에게 미국으로부터 F-84 E 및 G-판더·제트가 공급되어 이들 여러 나라와 캐나다공군 파견부대가 주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신형인 썬더스트리크와 노스·아메리칸의 F-100이 공급되고 또한 연습기로는 록히드T-33이 표준기로써 공여(供與)되어 함께 총 6,000대의 공군력이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다음 단계로서 록히드 F-104G 전투기와 G-91 요격기 및 연습기가 NATO 가맹국 자신에 의해서 생산되어 새로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 동안에 있어서 창설 당초의 영국 공군력은 점점 감소됨과 동시에 서독공군이 접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한 불란서가 그들 발언권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장비기구의 변화가 더불어 내용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NATO군의 조직

NATO의 구라파 연합군은 파리 교외의 연합군최고사령부(SACEUR) 밑에 북부, 중부, 남부의 세 작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육·해·공 삼군이 나누어져 있다.

북부는 가장 협소한 지역으로서 덴마크와 노웨이 양국에 병력이 전개되어 있어 이 두 나라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중부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서 병력으로 영국, 불란서, 서독, 벨지움, 화란, 캐나다 및 미국의 재구공군을 포함하고 있어 NATO의 대륙공격부대의 주력이 되고 있다.

남부는 이태리, 희랍, 토이기(土耳其) 등 광대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타섬을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연합구도 그 관할 하에 있으며 지중해의 영국공군과 미국 해군항공부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구라파 연합군 외에 NATO군으로서서는 대서양에 접한 8개 해양국으로 된 대서양연합군과 특히 벨지움, 화란, 불란서 영국등 4개국 해군에서 차출되는 영불 해협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연합군은 평시에도 병력의 할당이 없이 각국 독자의 조직하에 있다가 전시에는 필요에 따라 병력 차출을 받아서 통합 운용되도록 되어 있다.

또 하나 NATO 조직 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병력은 서구측이 가지고 있는 전략공격력이다. 여기에는 미국전략공군, 영국공군폭격대, 미국 해군 기동함대, 미국 전략육군등이 있다.

미국전략공군(SAC)에는 미 본토에 대기하고 있는 제2, 제8, 제15 공군 외에 제1미사일사단의 아트라스, 타이탄 ICBM부대, 스페인에 주둔하고 있는 제16 공군,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 제7항공사단등이 포함되어 있어 126발의 아트라스, 54발의 타이탄(1962년말 현재), 570대의 B-52, 75대의 B-58, 850대의 B-47을 가지고 있다.

영국공군 폭격대는 빅타, 발칸, 바리안트등 소위 3V폭격기 부대로서 합계 약 1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해군의 기동부대는 17척의 공격항공모함(CVA), 11척의 지원항공모함(CVA)을 중심으로 하는 제1, 2, 6, 7,

의 각 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2함대는 NATO 대서양군에 제6함대는 NATO 지중해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략부대로서 유일의 예외가 되어 있다. 이밖에 해군의 전략공격력에는 현재 9척의 폴라리스잠수함과 144발의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전략육군은 미국의 8개사단 계(計) 12만을 중심으로 해서 핵무기로 장비된 기동부대인데 여기에 전술공군(TAC)의 12개 전투비행단, 정찰부대, 수송부대를 포함해서 공격부대 스트라이크·코멘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전략공격부대가 직접 NATO사령부 지휘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 지휘하에 있다는 사실이 NATO 내부사정에 미묘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어 전쟁의 주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일면 NATO군의 방위적 성격을 명백히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북부구라파 연합공군

☆놀웨이·덴마크

NATO의 북구연합공군(AAFNE)은 북극과 북해의 공해 교통로를 지키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놀웨이의 코루삿스에 사령부가 있다. 공군부대는 놀웨이 공군과 덴마크공군의 NATO 파견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두 나라가 다 같이 실용제1선기를 모두 NATO에 차출하고 있다.

노르웨이공군(RNORAF)은 캐나다 F-86으로 편성된 주간전투기대 5개 대대와 노스·아메리칸 F-86K의 전천후전투기 3개 대대로서 두 개의 항공집단을 만들고 있다. 이밖에 직할부대로서 리퍼브릭 RF-84F로 된 전술정찰대대가 하나 있다. 그런데 1개대대는 25대로 편성되어 있어 놀웨이공군의 제트 제1선기는 약230대가 된다.

이밖에 노르웨이공군에는 수송, 구조부대와 나이키·아작스, 허큐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장비한 방공부대가 있다.

덴마크공군은 카스트로트프에 사령부를 가진 전술공군이 제일선부대의 주체이며 8개대대 약 200대의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노스·아메리칸 F-86D로 편성된 전천후전투기대 3개대대, 노스·아메리칸 F-100D로 구성된 전투폭격기대 3개대대, F-51로 된 주간전투대 1개대대, RF-84F로 된 전술정찰대 1개대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제트 부대 이외에 수송기 1개대대와 나이키 지대공미사일 1개대대가 코펜하겐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공군이나 덴마크공군이 다 같이 가까운 장래에 록키드 F-104G로 기종이 전환될 예정인데 1963년에서 63년에 걸쳐 양국이 다 3·4개대대씩을 F-104G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F-104는 미본토에서 생산되어 공여될 것이다.

또 한가지 북부 연합군에 관계가 있는 부대는 해협초계부대라는 것이 있다. 영국, 벨지움, 화란, 불란서에서 차출된 이 부대는 해상부대와 해군항공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영국부대 뿐이며 이 북해지역에는 영국연안공군의 지휘하에 있는 아부로·삭클톤이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중부구라파 연합공군

중부 구라파 연합공군(AAFCE)은 NATO 최대의 항공부대이며 구라파전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대이다. 서독, 영국, 벨지움, 화란, 캐나다, 불란서, 미국등 7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대는 최신 장비를 가지고서 중구라파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 통합사령부가 파리 남방 폰탱크리아에 있고 주요부대는 제2, 제4의 두 개 연합전술공군(ATAF)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2 ATAF는 서독 북부와 북서부에서 북해까지, 제4 ATAF는 서독 남부와 남서부에서 불란서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ATAF의 임무는 제공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NATO연합육군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긴요한 임무로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그 편성도 미국 공군의 전술공군(TAC)과 흡사한 점이 많다.

이 중부구라파 연합공군은 당초에는 미영의 파견공군이 중심이었었는데 그 후 서독공군의 증강에 의해서 점차로 교체되어 그 주도권을 서독에 넘겨주고 있다.

☆서독공군

서독공군은 1962년말 F-104G로 장비된 제31전투폭격비행단을 포함한 6개의 전투폭격비행단, 캐나다 F-86 세이버 MK4로 구성된 전투비행단 4개, RF-84F와 화이트 G91R에 의한 비행단 각각 두 개씩, 노루 2501 노라트라에 의한 3개 수송 비행단등 계 17개 비행단을 실용부대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전투비행단 하나, 전폭비행단 다섯, 정찰비행단 하나, 수송비행동 하나가 NATO 군에 차출되어 있으며 다른 부대도 훈련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NATO연합군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후의 계획으로서는 약900대의 F-104G로 편성되는 6개의 전투비행단과 G91로 되는 2개 전폭비행단을 포함해서 10개 전투비행단, 4개 전투비행단, 정찰, 수송, 각3개 비행단 계 200R 비행단을 장비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독일공군은 두 개의 헬리콥터 부대와 나이키 4개대대를 포함한 12개 대대의 방공부대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서독 공군부대는 제2, 제4 연합전술공군에 파견되어 그 주력부대가 되어 있으며 제2, 제4의 ATAF는 서독공군이 보다 충실해질때까지는 현재의 편성이 계속될 모양이다.

☆영국·벨지움공군

제2 ATAF의 나머지는 영국공군부대와 벨지움공군 거기다 화란 공군부대로 형성되어 있다.

영국의 파견공군부대는 영공군 제2전술공군으로서 독일에 주둔하는 호카·헌터 F6, 그러스타·자베런 FAW 거기에다 EE라이트닝 F1 1개대대등 계 6개대대로 구성된 요격전투부대가 주력이 되어 있다.

그 밖의 영국공군부대는 호카·헌터 FR10으로 편성된 전술정찰 2개대대, 캄베라 PR7의 1개 정찰대대, 캄베라 B15와 B16으로 편성된 4개의 경폭공격대대가 있다.

벨지움 공군으로부터 독일에 파견되어 있는 부대는 F86F

100대로 된 2개 비행단이 있으며 이것으로서 앵그로·벨지움 제83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벨지움 공군은 이 NATO 파견부대 이외에 캐나다 CF-100 약 50대로 편성된 전천후요격비행단 1개, 호카·헌터 50대로 된 1개 전투비행단, 나이키·아작스 지대공 미사일의 4개 방공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자국 방공부대를 포함한 벨지움 공군은 앞으로 F-100G로 기종이 전환될 터인데 이 중에서 75대는 벨지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25대는 MAP원조로 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NATO는 파견부대를 강화 하도록 되어 있다.

☆화란공군

화란공군의 방공담당부대는 호카·헌터 F86에 의한 150대의 요격기와 화이아트 F-86K 세이버로 장비된 3개대대(75대) 외에 나이키·아작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행부대는 또한 NATO 제2 ATAF의 제69 그룹도 형성하고 있다.

그밖에 화란공군부대는 F-84F를 장비한 폭격기 150대, RF-84F와 RT-33A로 편성된 전술정찰부대가 있다. 이들은 제2 ATAF의 제2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제2그룹의 F-84를 독일과 공동으로 양산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시 100대 정도의 F-104FMF 추가해서 전술정찰기와 요격기도 신형화 하도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공군

중부구라파 연합공군의 ATAF는 서독공군외에 캐나다공군, 불란서공군, 미국 제17공군으로서 편성되어 있다.

캐나다공군의 NATO 파견부대는 캐나다 제1항공사단인데 벌써 10년이상이나 서독에 주둔하고 있는 강력한 사단이다. 이 제1사단은 뱃쓰에 사령부가 있으며 캐나다 F-86 세이버 MK6 전투기 200대와 아브로 CF100 MK4 전천후전투기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종은 곧 신예기로 교체될 예정인데 주간전투기로서 캐나다 CF104 100대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미 최초의 것은 교체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캐나다 공군에는 NATO 파견군 이외에 북아메리카 방공부대(NORAD)에 속하는 전천후전투기 5개비행단, 주간전투기 8개비행단이 캐나다 본토에 있어 F-101, F-86D, CF100등을 사용하고 있고 4개 수송비행단과 4개 해양초계비행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잠초계기 40대는 전시에 있어서 NATO군에 차출되도록 되어 있다.

☆불란서공군

NATO에 편입되어 있는 불란서 공군은 제1전술공군(CATAC)의 8개 비행단으로서 약 400대 가량이 된다.

이들 부대는 동불란서와 서독에 위치하고 있으며 MAP계획에 의해서 미국이 공여한 기체를 주로 해서 전천후요격, 전투폭격 및 전술정찰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비행단은 각 대대 25대로 편성되어 있다.

제1비행단은 F-100D, 제4, 제9비행단은 F-84F, 제11비행단은 F-100

D, 제13비행단은 F-86K, 제33비행단 RF-84F로 장비되어 있다.

불란서 공군의 또 하나의 주요부대는 국토방위공군(DAT)으로서 그것은 증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NATO군에 통합지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는 미스텔IVA로 편성된 제5비행단, 미스트랄535로 된 제6, 제7비행단, 미스텔IVA로 구성된 제8비행단, 슈펠·미스텔B2로 구성된 제10, 제12비행단, 보-트올II 전천후전투기의 제30비행단 등으로서 약350대가 된다.

이밖에 불란서 공군은 노루·노라트라의 수송부대와 전투기 및 폭격기로 되는 새로운 전술공군의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 전술공군은 현재 취역하고 있는 보-트올 폭격기 대신에 미라쥬IV 초음속폭격기와 보-잉KC-135 급유기, 그리고 미라쥬III 전투폭격기를 장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 미라쥬III에 의한 기종 전환은 이미 제1전술공군(CATAC) 소속기에 대해서도 개시되고 있다.

☆미국 제17공군

제4 ATAF를 구성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공군력은 미국 제17공군이다. 이 부대는 재구 미국공군(USAFE)의 일부로서 서독 람스타인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이 부대는 제86비행사단, 제36전술전투비행단, 제50전술전투비행단, 제49 전술전투비행단 및 제56 전술미사일 부대와 제30전술 미사일부대가 서독에 있고 제366전투비행단, 제66전술정찰 비행단이 불란서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의 주로 장비는 F-105가 주력이며 이미 150대가 개편되고 있고 나머지는 F-100D로 되어있다. 그리고 전술정찰기는 RF-101이며 전술 미사일은 마틴·메스가 사용되고 있다.

재구미공군(USAFE)은 이밖에 영국본토에 제3공군사령부가 있고 불란서 본토에 제222비행사단, 스페인에 제65비행사단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면적으로 NATO군에 통합되어 있다. 총 800대 이상의 이 대부분은 항공부대뿐 아니라 전략공군과 MATS의 구라파 주둔부대에 대한 기지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남부구라파 연합공군

NATO의 남부구라파 연합공군(AAFSE)에는 이태리, 희랍, 토이기의 각 공군과 미국해군 제6함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령부는 나폴리에 있다. 그리고 이 연합공군 지휘하에 제5, 제6연합전술공군(ATAF)이 있다. 이들 남부 구라파 연합공군의 소관지역은 NATO의 3개의 연합공군 가운데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다.

제5연합전술공군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태리공군으로서 이태리는 여기에서 4개 항공여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태리의 항공여단은 미공군의 단급(團級)에 상당하는 규모인데 25대 편성의 대대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의 항공여단은 캐나다·세이버MK4로 장비된 제18전대와 제13전대, 화이아트G91로 장비된 제14전대를 가진

제2전투여단, F-84F로 장비된 제101전대와 제102전대, G91로 장비된 제103전대를 가지고 있는 제5전투여단, F-84F로 장비된 제154, 제155, 제156전대를 가진 제6전투여단, 그리고 RF-84F로 장비된 제28전대와 제132전대를 가지고 있는 제3전술정찰여단이다.

이밖에 NATO 통합부대로서 나이키·아작스 대공지 미사일을 가진 제6, 제17전대로 편성된 제1방공여단과 쥘피터 IRBM을 60발을 장비한 제36 미사일대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태리 공군

NATO에 과전되어 있지 않은 이태리 공군력으로는 캐나다·세이버MK4로 장비된 제9, 제10, 제12전대를 포함한 제4주간요격여단과 화이아트 F-86K 세이버로 장비된 제21, 제22, 제23전대로 편성된 제51전천후요격여단, 그리고 C-119G의 제2, 제98전대로 편성된 제45공수여단, 그밖에 보조부대로서 제82, 제84, 제85전대와 대참조계영 S-2A장비의 제86, 제87, 제88전대등이 있다.

이들 각 부대는 NATO 과전 전술부대를 선두로 하여 신기종으로 개편될 계획인데 현재에 있어서 F-104G 125대로서 전술전투폭격기만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75대는 이태리와 벨지움에서 나머지는 MAP공역로 되어있다.

화이아트 G91을 자국에서 개발하면서 정찰형 G91R을 2개 전대 채용한 외에는 아무런 구입 계획이 없이 다른 NATO가맹국 장비에 의지하고 있는 점은 이태리의 특수한 국내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희랍 공군

희랍공군은 4개 전투비행단을 제6 ATAF에 차출하고 있다. 이중에서 3개 비행단은 8개의 F-84F대대와 1개의 F-100대대로 되어있으며 나머지 하나의 비행단은 캐나다·세이버 3개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서 2개대대는 화이아트G91로 개편중인데 이 기체는 G91R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술전투·정찰부대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NATO 과전공군 이외에 희랍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RF-84F로 편성된 전술정찰대대도 G91R로 기종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희랍공군은 나이키·허큐리스 지대공 미사일로 된 방어공군도 가지고 있다.

장래의 희랍공군의 주력으로서는 F-104G가 사용될 예정인데 이것은 전부 미국의 MAP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토이기 공군

이스밀에 사령부가 있는 제6 ATAF의 또 하나의 구성부대는 토이기공군이다. NATO 가맹국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이기는 NATO에 16개대대의 전투기부대를 참가시키고 있다.

이들 전투기 부대는 캐나다·세이버MK2, MK4, 그리고 F-86E 전투기 3개대대, F-84F를 중심으로 하는 전폭기 12개대대, 또한 RF-84F와 RT-33A의 전술정찰기 1개대대다.

이들 가운데서 전폭기에 있어서는 1958년에 F-100C가 공급된 것을 최초로 순차적으로 기종을 전환 중에 있으며 현재 1개대대만 F-100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밖에 토이기공군에는 본토방공용으로서 F-86D 전천후요격기 1개대대와 나이키 방공미사일 1개대대가 있으며 또한 얼마간의 수송부대와 훈련부대가 있다.

☆미국 지중해 연합공군

남부 구라과 연합공군의 제2그룹은 미해군 제6함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연합공군이다.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3척을 기간(基幹)으로 하는 이 부대는 3개의 공격그룹(CVG)과 4개의 ASW그룹(CVSG)을 가지고 있는데 최신험재기 막타넬 F-4A, 노스아메리칸 A5A를 비롯해서 F-8A, F-6A, F-11A등의 전투기와 A-3B, A-4B, A-1H등의 공격기, S-2A 대참기, E-1B 초계기등을 장비하고 있다.

이 부대에는 필요에 따라 영국함대, 이태리, 희랍, 토이기등의 해군 항공대가 포함되는데 불란서 해군부대는 현재 NATO군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폴츄갈 공군

이밖에 NATO 남부 연합공군에는 폴츄갈 공군이 포함되고 있다. 폴츄갈 공군은 NATO에 F-84G 전폭기 2개대대, F-86F 요격전투기 2개대대 계 100대를 차출하고 있다. 이밖에 폴츄갈 공군은 자국방위용으로 F-84F 전투기, RF-84F 전술정찰기, 노라트라 수송기와 연습기등 합계 약 25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서양 연합군

NATO군의 그 나머지 공군력으로는 대서양연합군이 있다. 이 부대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시 편성되어 있는 부대가 아니고 전시의 필요에 따라 8개국으로서 편성되며 영국연안 방위공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군 항공대로서 편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편성되던 약 25척의 항공모함이 집결하여 각모함의 공중공격 그룹과 대참공격 그룹, 그리고 헬리콥터등 약 500대가 집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안·해양초계용 그룹으로서 미국의 P-2 네프쑤, P-3 오라이온, 캐나다의 CP107, 영국의 삭클론등 8개국으로부터 375대의 초계기를 집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NATO제국용으로서 불란서 해군을 처음으로 네프쑤로부터 부레게·에트란틱 신형 대잠초계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불란서 해군은 한재전투기로서 앞으로는 미국의 찬스보트 F-8 구루세이다르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NATO 연합공군, 그것은 통합되어 있는 제1선기만도 3,000대를 넘으며 기지수도 200을 넘는다. 수로 보거나 규모로 보거나 사상 최대의 공군력이며 공산군을 완전히 압도할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합공군에도 고민은 많다. 그 내부를 살펴 볼 때 실은 커다란 두 통꺼리가 가로놓여 있는 공군이기도 하다.

그 첫째 문제는 기종에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위 모든 공군으로서의 고민인데 주력부대는 역시 미국, 영국, 불란서 비행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산진영의 소위 와르샤조약군에서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소련 병기체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기종을 통일하지 않으면 작전운용, 지원, 보급등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F-104G의 경이적인 양산과 NMBR3과 4의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기종을 통일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 할 것이다.

둘째 문제는 보급노선이다. 서독, 화란, 불란서, 이태리, 벨지움을 연결하는 항공 공업력의 부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급선은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구라과 내륙에서는 적에 너무나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인성은 보장되기가 힘들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결국 가장 튼튼한 보급선은 미주대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긴 보급선이어서 중간에는 대서양이 가로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은 공산 측의 보급선이 소련본토에서 그 대로 육속(陸續)되어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어느 한면에서 약점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셋째로는 전략 공군력과 핵장비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의 전쟁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략공격력이 NATO의 LRWJQ 지휘 하에 있지 않고 핵무기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영양국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가맹국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다. 이것이 NATO핵장비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불란서 군부가 여러 가지 의문이나 반대를 물리치고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라쥬Ⅳ에 의한 전략공격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문제는 서독공군의 증강이라는 문제다. 서독은 그 지리적 환경이나 그 실력에서 보더라도 NATO의 중핵적 존재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어서 그 군비증강여하에 NATO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아직도 구라과 여러 나라에 있어서 그 옛날 나치스·독일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불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독일의 강대화가 요청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한 강대화를 어딘지 모르게 꺼리는 것 같은 형편이다.

특히 최근의 서독과 불란서의 접근은 불란서 핵무장과도 관련해서 미영양국에 대해서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그들은 결과적으로 NATO에서의 미국이나 영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다른 NATO 가맹국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궁극적인 반공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대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광분상(狂奔相)에서 미루어 이와 같은 집단방어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	×
×	×
×	×

비행장상식(飛行場常識)

남정현(南正鉉)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진보를 보이고 있는 과학은 세계를 여러 모로 변화시키고 있다.

항공기가 발명된 후 60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가 거듭됨에 따라 계속된 항공계의 찬란한 발전은 불과 몇 십년전만 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져 왔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재래의 개념을 변형시킬 정도로 이 지구를 축소시켜 놓았다. 지구상의 비행장의 수도 항공공학의 발달에 비례해서 격증하여 왔으며, 「라이트」형제가 역사상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오하이오」주 「데이튼」근교의 한 목장을 효시로 지금은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을 항공기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비행장이 생기게 되었다.

▲비행장의 종류

비행장이란 간단히 말해서 비행물체의 이륙이나 착륙,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육지나 수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비행장이라 하면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주기, 정비를 위하여 마련된 지상의 시설을 총괄적으로 의미할 때가 많다.

비행장은 그 사용목적이나 운영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원 비행장과 활주로 비행장, 도 이 둘을 결합한 형태의 비행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평원비행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설치된 활주로는 없는 비행장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들이 이에 속한다. 활주로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운행에 사용되는 일정한 방향의 활주로는 설치 되어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비행장의 위치

비행장의 가치는 그 위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비행장을 신설할 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비행공역의 문제

한 비행장은 인접지역에 있는 다른 비행장과 적어도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인접해 있는 두 비행장의 계기 활주로의 중심선의 연장이 일치선이 되 경우에는 두 비행장간의 거리가 4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비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이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행장은 결코 이상적인 비행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행장 근처에는 비행에 지장을 초래할 천연적 장애물이나 인공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활주로의 연장선상이나 활주로 부근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은 비행에 결정적인 위험을 줄 것이다.

비행장애물이란 비행장의 위치선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상적인 비행장은 비행공역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 비행장은 중요한 항로로부터 10마일 이상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주위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항공기의 엔진이 시동된 후에 발생하는 소음은 인체의 청각기관이나 기타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신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을 파괴하기도 하여 비행장 내외부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결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은 항공기의 추진력이나 속도에 비례해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비행장은 주변 도시로부터 15마일 정도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공공회합장소로 쓰이는 건물 같은 것은 활주로 끝으로부터 6, 7마일의 범위 내에는 없는 것이 좋다.

(3)장래의 확장 가능성

항공기의 성능이나 항공 교통량의 변화로 비행장을 확장시켜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행장은 반드시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활주로를 연장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접근지대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4)기상학적 문제

또 한가지 비행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비행장 지역의 기상조건이다. 어떤 비행장이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뛰어나게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기상조건이 불량하면 이는 비행장으로서 그리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비행장지역의 일기는 비행에 적합하도록 좋아야 하며 폭풍이 불거나 지진, 홍수등의 위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

(5)비행장 건설에 관계되는 공학적인 문제

실제로 비행장을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비행장에는 활주로나 유도로, 주기장이외에도 기지지휘소, 격납고, 통신소등등 수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지표면의 지형이나 지하의 지질상태, 지하수의 수위 같은 것이 시설물을 건설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또 비행장지역내에서 광업권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이나 건설자재의 공급 같은 것도 용이해야 한다.

(6)인접도시와의 지원관계

마지막으로 비행장의 위치선정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인접도시와의 지원관계이다. 어떤 비행장이든지 그 자체만으로서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기는 어려우며 인접

도시와의 유기적인 상호지원아래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비행장은 종업원이나 승객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인입 철도나 도로, 또는 수상교통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행장을 출입해야 하는 하물의 수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행장에는 수도나 전기, 하수도등의 설비시설도 필요한데, 만일 비행장이 인접도시의 진원을 받을 수 없도록 고립되어 있으면 이러한 설비시설의 설치도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착륙지역-활주로

비행장은 그 지역을 이착륙지역과 주기장지역, 유도로의 삼부분으로 대분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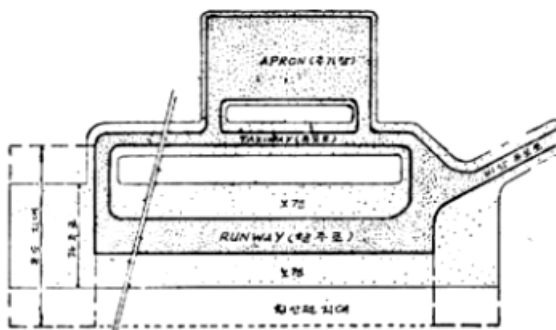
이착륙지역이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활주로비행장의 경우에는 활주로 자체가 바로 이 이착륙 지역이 된다. 활주로는 비행장 시설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그 건설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치나 방향을 결정하는데에는 융통성이 매우 적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패턴(Pattern)이나 기능적 효율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타부분의 시설은 모두 이에 준해서 생각 해야된다.

항공기의 규모나 성능은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나 폭, 또 활주로 포장의 내력등도 이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활주로의 길이는 보통 항공기의 이륙거리나 착륙거리에 근거를 두고 결정하게 된다. 즉 이륙거리와 착륙 거리 중에 긴 거리를 택하여 여기에 적당한 안전계수를 곱해서 활주로의 길이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착륙거리보다 이륙거리가 길기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는 항공기의 이륙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길이가 10,000파트 정도이면 대개 어떤 종류의 항공기 던지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다. 활주로의 폭은 실제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항공기의 날개 폭을 참작하여 이착륙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는 대형 폭격기가 사용하는 활주로의 폭은 300파트, 수송기나 중형 폭격기의 경우에는 200파트, 기타 종류의 항공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는 150파트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활주로의 수는 그 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성능이나 운영형태, 예상되는 항공 교통량, 표면풍의 속도나 방향 비행 장애물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 개의 활주로에서는 한 시간에 40회의 착륙과 80회의 이륙, 또는 60회의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만일 항공 교통량이 이 범위를 넘게 되면 활주로의 수도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 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바람의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측풍이 13MPH를 넘게 되면 항공기의 비행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활주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역풍활주로

역풍활주로는 주 활주위에 대한 바람의 엄호 정도가 990%이하이거나 주 활주위에 대한 기상조건이 불량하여 때때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활주로로서 풍향이 좋은 방향을 택하여 건설한다. 역풍활주위가



<비행장 배치도>

계기활주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길이는 주 활주로 길이의 80%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2)계기 활주로

어떤 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 바람이 주 활주로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불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기 활주로가 필요하며 이 계기 활주로의 길이는 주 활주로의 길이와 같이 한다. 계기 활주로에는 명도가 강한 활주로 등과 특별표지를 설치하고 접근 유도등도 설치한다. 이러한 시설은 다른 활주로에는 없는 것이며 가시거리가 제한 받고 있을 때의 착륙 보조시설로 계기 활주로에만 마련되는 것이다.

(3)평행 활주로

주 활주로에 착륙할 항공기가 시간 당 40대가 넘을 때에는 주 활주로에 평행한 또 하나의 활주로는 필요하다. 이 평행활주로는 주 활주로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하지만 계기조명등이나 표시시설은 하지 않는다.

(4)부활주로

역풍활주나 계기 활주로와는 방향이 다른 활주로로서 비교적 길이가 짧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이다.

(5)주/계기활주로

주 활주로에 계기를 설치해 놓고 제한된 가시거리밖에 허용되지 않는 밤이나 일기불순시에도 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수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 활주로는 주/계기 활주로가 된다.

(6)주활주로

주활주로는 이를 사용할 항공기의 이착륙거리를 기준으로하여 설계되며 되도록이면 바람의 엄호도가 최대가 되는 방향을 활주로 방향으로 택한다.

▲주기장 지역

이는 항공기의 주기정비, 수리 및 하물의 하역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역이며 그 사용 목적이 달라서 격납고 인입주기장, 하역 주기장, 작전 주기장, 외래기주기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도로

유도로는 항공기의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주기장이나 정비지역과 이착륙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의 양 끝에서 주기장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하며 활주로상의 항공기가 빠른 시간내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도로의 길이는 비행장의 전체 배치 계획에 따라 좌우된다. 그 폭은「랜딩·기어」의 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는 75피트의 폭을 표준으로 취하고 있다. 유도로에는 주기장 접근유도로, 활주로 접근유도로, 비상유도로, 지원유도로 등이 있다.

× × ×

꿈은 하늘에
정열은 일터에

군인과에티켓

군인이 지켜야 할「에티켓」그것은 일반 사회인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에티케이트」한 것이어야 한다.

최삼연



에티켓이란 대개 예의라든가, 범절등으로 불리 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좋은 다른 말이 없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든다. 왜냐하면 에티켓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규칙으로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에티켓을 배워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고 안락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람됨이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성실하고, 재치가 있으면서도 솔직하다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며, 이러한 훌륭한 품성의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의 몸에 배어서 세련된 에티켓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에티켓은 만일의 것이며, 군인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군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은 일반사회인의 그것보다 오히려「에티케이트」한 것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에티켓은 말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우리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으로서 광범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의식, 옷차림 사교상의 몸가짐, 공중도덕, 가정생활, 대인관계, 서한, 오락 등, 아마도 책으로 쓴다면 큰 사건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지면에서 광범위한 언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생활에 가장 가까운 일로서 비교적 소홀히 되기 쉬운 점에 한해서 간단히 말 하고자 한다.

몸차림에 대해서

좋은 범절과 적절한 몸차림은 교양인으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예의범절과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할 우리 군인으로서 더욱 이 점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옷은 결코 비싸거나 고급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잘 가꾸어 입어야 하며, 그때그때의 경우에 알맞게 입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정복으로서 통일되어야 할 의식때의 장교 및 하사관의 복장이 정복, 약복, 그중에서도 정복에는 훈장을 안 달거나, 약복에는 넥타이를 착용치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초대받은「카테일 파티」나 만찬회 등에 참석할 경우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간혹 보는데 이러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나라 군대의 첫인상은 우선 군인의 몸차림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몸차림**이 좋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항상 유의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1, 우선 그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고, 그의 옷이 몸에 알맞고, 구두가 잘 닦여져 있고 구두 뒤축이 보기 흉하도록 닳아 있지 않고, 그의「넥타이」가 단정하게 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2, **웃**은 매일 다려 입도록 애를 쓸 것이다.(천에 따라서는 매일 다릴것 없이 잘 걸어 놓으면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3, 깨끗이 구는 사람이면 **속옷**이나 양말, 손수건을 하루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손톱이 짧게 깨끗이 가꾸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4, **면도**는 매일 해야 하겠고 털이 많은 사람은 저녁에 있을 사교적 활동에 참여 하려면 하루에 두 번은 면도를 해야 할 것이다,

5, **이발**은 되도록 자주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위로 귀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머리는 다소 기름을 바르는 것이 가꾸기 좋겠지 마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고, 무겁고, 뿐만 아니라 담배냄새를 빨아들이게 되므로 좋지 않다. 머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번 감지 않으면 악취가 나기 쉽다.

6, 단정한 몸차림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자**도 그 사람의 몸차림에 큰 역할을 하는데 기름과 때가 묻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 다른 몸차림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안나는 법이다.

7, 흔히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의 몸차림을 안다고 할 정도로 구두는

우리의 몸차림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가꾸어 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몸차림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치아**를 깨끗이 한다거나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두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지 몰라서 안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요는, 몸을 단정히 가꾸는 것이 멋을 내고 허영을 떠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처지에 알맞게 해야 할 것이다. 자기 몸을 잘 가꾼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몸차림뿐만 아니라 만사에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가서는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상급자나 자기가 초대하는 사람, 또는 여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선택하는데 대한 작으나마 에티켓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벽에 가까운 좌석을 차지할 때에는 윗사람이나 여성으로 하여금 식당의 넓은 부분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앉도록 하고, 창문에 가까운 좌석에서는 바깥 경치가 좋은 곳이 보이는 곳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 혼잡한 식당일 경우 통로 쪽 의자는 지나가는 사람과 자주 부딪치게 되므로 이런 좌석을 윗사람에게 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식을 주문할 대개는 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는 사람과 의논하여 **메뉴**를 결정하지만, 「웨이터」가 대접받는 사람에게 직접 물었을 경우 대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택한 메뉴를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본다. 이때 이런 양극단은 물론 없을 줄 알지만 가장 값이 싼 메뉴를 주문한다든가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다. 돈을 지불할 때 **계산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가끔 본다. 이런 경우 권하고 싶은 것은 동반하는 사람에게 이런 장면을 보이거나 이야기를 해서 안될 것이다. 설혹 약간의 차질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웃는 낯으로 그 자리를 넘겨 버리는 아량 있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극장에서

영화관에서의 공통적인 공중도덕은 우리가 잘 알고, 지키고 있기때문에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페라, 음악회, 연극 등을 관람할 때에는 좀 더 높은 범절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음악회**나 **오페라** 등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극장내의 제일 뒤에 서서 일막 또는 한 악장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공연 중에 말을 주고받는 것은 삼가야 하겠고 과자 등 음식물을 먹을 때 바스락 거리는 종이

소리나 입소리를 낸다는 것도 주위 사람에 대한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될 것이다. 오페라나 음악회에서 **박수**는 곧 청중이나 관중의 감상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느린대로의 감응을 충분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페라일 경우는 한「아리아」가 끝날 때와 한 막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보내는 것이 관례이고 음악회에서는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칠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돌아서는 것을 기다려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오페라나 음악회에 **입장할 때**는 사복인 경우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오페라나 음악회에서 정장을 하고 들어오는 외국군 인이나 외국 인사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근래에 와서 복장에 관한 격식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검은 색이나 이에 가까운 점잖은 색깔의 복장을 갖추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차내에서

차내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씩씩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상급자나 부인, 노소를 위해서 좌석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도록 습관화 되어야 하겠다.

이름을 잊었을 때

우리가 간혹 만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을 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당신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잊었군요!」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기분 좋은 상대는 없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보통이니까. 우리는 되도록 남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고 또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안다. 만나자마자「저를 기억합니까?」「저를 모르지요?」하고 나면 상대방이 자기를 곧 알아보는 경우는 좋지만 모르는 경우는 생각할 여유도 안 주게 되므로 서로 어색해 진다. 따라서 피차간 기억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서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한결을 앞선 사교법이라 생각한다.

악수할 때

악수는 우리의 걸음걸이와 마찬가지로 개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형식은 없지만 보기에 좋지 않은 악수를 하는 사람은 고쳐야 할 줄 안다. 나쁜 악수로는 너무 힘을 주어 상대방을 움츠리게 하는 것, 이와는 반대로 녹실하게 기력이 없는 악수, 펌프질 하듯이 지나치게 흔드는 악수

등이 있으니 우리는 한번 자기의 악수하는 모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은 악수는 팔꿈치 높이에서 굳게 그리고 간결하게 하는 악수이다. **남자는**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겨울철에 **장갑**을 끼었을 때 특별히 경의를 표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갑을 벗느라고 손을 이미 내밀고 있는 상대방을 멍쩍게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등의 실례가 되지 않는다. 악수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언제나 기분 좋은 표정을 짓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개할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과 소개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생활에서 습관화된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외국사람과의 접촉에서 자칫하면 틀리기 쉬운 점을 하나 지적하려 한다. 그것은 **남녀간의 소개**에 있어서 절대로 여성을 남성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남성이 목사거나, 나이가 많은 저명한 인사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통령, 총독, 지사, 사장, 외국의원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어서야 할 경우

상급자가 방에 들어왔을 경우 하급자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때는 그 상급자로부터 앉도록 권유를 받거나 나갈 때까지는 서 있을 것이 옳은 예법이다 물론 이 때는 책임자만이 일어서는 것이지, 근무를 중단하고 전원이 일어설 필요는 없다. 동료 급이나 자기보다 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악수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밖에도 자기를 찾아오는 **방문자**에 대해서도 일단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예의바른 태도일 것이다.

누가 먼저 가는가

방에서 나가려 할 때 상급자로 하여금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이것은 여성이나 노소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일이다. **상급자와 같이 보행**할 경우는 상급자의 왼편에서 약간 뒤떨어질까 말까하는 정도로 걷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 앞을 가로 지나갈 때는「실례합니다」「미안합니다」라든가 더욱 좋은 말로는「지나가도 좋습니다」「공손히 말하는 에티켓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경우

담배피우는 것이 우리생활에서 지나치게

보편화 된다보니 피워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때로는 잊을 경우가 있다. 공통적으로 금연하여야 할 경우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는 종교적 행사, 음악회나 영화관, 법정, 등 공중이 모이는 곳, 버스나 전차, 합승, 기차 등의 공중 교통기관, 에레베이터, 병실이나 욕아실 기타 금연이 표시된 장소가 있지만 우리군인으로서 특히 작업중이나 보행시의 흡연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담배는 자기사무실 이외의 사무실이나 누구를 방문코자 갔을 경우는 담배를 피우도록 권유를 받기까지는 피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에티켓이다.

× ×

지금까지 에티켓 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에티켓을 충망다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우리 만큼 그것은 우리 생활의 하나한의 규범이며 관례로서 광범위한 것이다. 에티켓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을 통해서 보고,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특히 군인으로서 올바른 에티켓을 몸에 지니도록 힘써야 하겠다.

-끝-

◇중공의 무역장래

무역시찰 차 중공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의 모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공을 하나의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착각이다. 중공의 무역이 단 기간내에 상승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착각을 시정하고 올바른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공의 수출품은 그나마 농산물뿐인데(석탄이 있지만 이것은 매장량이 있을 뿐 채굴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수출 가능량이 채굴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농업문제와 실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중공은 지금 공업에만 힘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공업에 앞서 농업증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에는 농업정책가가 없거나 극히 초보적인 정책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후진국에는 공산주의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가지고 서는 농업의 성장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러한 견지에서 중공과의 무역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활동하고 있다!

이 혁명과업 수행의 역군으로서 혁명 대열에 참여하고 가 백년대계를 저해하고 우리국민의 주권을 약화 시키려는 첩을 남파 시키고 있다. 이에 붉은 간첩 및 기첩의식과 평소 실시 중인 보안대책을 가일층 양양의 활동상을 실제로 예를 들어 소개하려고 한다.

박	태	익
---	---	---

「K」는 남한의 어느 소도시에서 상류 생활을 영위 하는 가정의 2남1녀 중 2남으로 출생 성장하여 S대학을 졸업한 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취미와 소질을 풍부히 간직한 불임성 있고 다정다감한 40대의 중년이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으로 그리워하던 고향에는 환갑이 지난 부모님과 형, 형수, 조카등 10여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반면에 북한에는 약 7년전에 북한 K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북한 저명인사의 딸과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1남2녀를 슬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월북하게 된 동기와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괴뢰집단에서는 남한을 붉게 물들이고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을 그 당시 K간첩은 서울 S대학 3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는 그 때부터 선배



붉은 간첩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민정이양을 목전에 두고 전 장병
있음은 행사에 빛날 대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
려고 책동하고 있는 북한괴뢰집단에서는 수 많은 간
타 불순분자의 책동에 대비해서 장병 여러분의 방
케 하기 위하여 최근 모기관에 자수한 “K” 간첩

학우들의 출동으로 좌익 단체인「학련」에 가맹하여 한 써-클책으로 맹렬히 활동하다가 S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Y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해 6월 15일 괴뢰군의 불법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자 서울에 잔류하여 소위 민족 보위성 산하 모기관에서 부역타가 9·28 수복당시 괴뢰군과 같이 피신 월북하였다. 월북후 그는 괴뢰군으로 2년간 복무하다가 제대하였는데 간첩으로 노동당중앙당에 소환당할 때까지 북한 모 중요 도시에 위치한 K대학 교수로 있었다. 그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처자의 신변을 무척 염려하면서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그는 괴뢰군에서 제대하자 즉시 K대학교에 교원으로 배치되었는데 동대학 H여교원과 우연히 사랑을 맺어 결혼하였다. 당시는 처의 부친(장인)이 북괴자명 인사였으나 소위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파의 숙청 선봉이 불기 시작하자 장인은 행방불명이 되어 홀로 남은 장모를 부양하게 되었는데 그네들 독재의 파수의 엄중한 감시 밑에서 소량의 식량과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품 약간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에 비하면 상류 생활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딸을 순산한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조용히 함박눈이 내리는 저녁에 소위 조선노동당 중앙당 연락부로부터 소환통지가 날아왔다. 출두하였더니 자서전을 써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소위 당성 가족성분 및 활동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서 신상심문(성분조사)을 받았다. (사전에 조사하여 둘 것이 있는 듯함) 그 후 재차 소환 당하였는데 남한에 있는 가족 소식과 형이 현재 국군 수뇌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소식 동창선배 등의 현 직위등을 들려주더니 현재 남한 동포는 미 제국주의 지배아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남한에 가서 형과 선배 그리고 친우를 토대로 투쟁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랑하는 처자와 생이별을 하고 교육 장소인 안전가옥에 수용되었다. 그 안전가옥은 어느 도시 외각 조용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초가였는데 식모 겸 감시원으로 있는 50대 부인 한사람만 있는 집에서 성명모를 교관으로부터 수 개월동안 남한의 최근실정 및 남한의 지리, 남파 후 접선 대상자인 형과 친우 등에 대한 최근환경, 기타 남파 후 활동상황에 대한 제반 교육과 특히 정신 교육으로 귀가 아플 정도의 공산주의 교육과 남파 후 체포당하거나 자수하게 되면 무조건 사형 당한다는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 동안 그는 북한에서는 보지도 못하던 흰 쌀밥에 쇠고기 맥주에다 영계백숙까지 곁들인 식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럴때 마다 사형대에 오르는 듯한 초조감을 금치 못했으며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처자생각에 가시밥을 먹는 듯 하였다.

어느덧 눈보라가 치던 산기슭 초가집 부근에도 초조한 마음을 더욱 설레이는 듯 가냘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 남한에 가서 그리웠던 부모님을 곧 만나 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 중앙당 연락부 간부부에서 중견 간부로 추측되는 인민군 대좌 한사람과 담당 지도원(교관)이 내방 하여 출발 준비라는 벼락같은 최종 지령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비롯한 각종 공작용 기구를 포장하고 최종적인 지령을 받은 다음 보지도 못한 수천불(弗)의 미 본토 불(弗)을 받아가지고 지도원의 안내로 그리운 처자도 만나보지

못한 채 북한 C항으로 떠났다. 거기서 고기잡이배로 위장된 엔진선에 몸을 싣고 3명의 무장대원의 안내하에 선두를 남으로 돌렸다. 육군 작업복차림에 대위 계급장을 단 그는 체포되거나 자수하면 무자비하게 처형된다는 그들의 교육도 잊은 채 그저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다. 무조건 자고 있으라는 무장대원의 강요에도 목적지인 K도 H군 해안선에 상륙, 무장대원의 안내로 제1아지트인 K간첩의 3촌집 뒷산으로 당도하였다. 무장대원은 돌아가고 남은 것은 캄캄한 앞길뿐이었다. 야산에 둘러싸인 외딴집이지만 혹시 삼촌이 이사 가고 딴사람이 살면? 삼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당하면? 초조한 감을 금치 못했으나 지도원의 말을 믿고 찾아들을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우선 작업복을 신사복으로 갈아입고 사촌동생을 부르니 다행이도 삼촌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안방에 들어선 그는 지도원이 가르친 대로 6·25 동란 때 일본에 밀항하여 모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모 무역회사에 취직, 사업관계로 귀국하여 야간열차로 올라 왔다고 위장구실을 말한즉 삼촌을 위시하여 전 가족이 그대로 믿었다. 이리하여 K간첩은 지도원의 교육내용을 신빙하고 공작사명 수행에 대한 결심과 자신을 가졌다. 그가 맡은 임무는 고급장교인 친형과 서울에서 큰 재벌가로 있는 S친우를 포섭하여 군 내부 분열공작, 군민간의 이간공작, 반미사상의 양양, 군사비밀탐지(특히 우리공군의 신형Z기와 ××유도탄기지) 육군의 장비인 원자무기에 대한 세밀한 정보 수집 등이며 부 사명으로는 민정이양을 전후로 정당, 사회단체, 문화단체, 군기관, 학교 등에 침투 또는 씨-클을 조직하여 반정부의 유언비어 유포, 민심교란등을 책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우선 부모님과 형의 소식 그리고 서울과 각 지방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반 실정을 유도식으로 청취 파악한 다음 재일교포가 사업관계로 모국을 방문한다는 구실아래 사육 여권을 얻어서 당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형을 찾아가서 공작품으로 지참한 일제 의류 및 화장품 라디오등을 전 가족에게 선사하고 특히 형수에게는 다이아 반지를 선사하는등 전 가족 특히 형수를 앞잡이로 유인 하는 것이었다.

처음 만난 형이 여권을 보고는『너 부역한지가 10년이 넘어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또 그런것은 않겠지?』하고 다짐하자 그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형수를 통하여 남대문 시장에서 미 본토불을 한화로 교환하고 가족들의 안내로 서울시내 일원에 대한 풍습, 물가, 지리, 파악을 한 후 제2포섭대상자인 재벌가 이며

실업가인 S친우를 만나 위장구실인 무역사업에 대한 사업, 타협 등으로 남한의 경제실태도 조사하면서 주사명인 군 수뇌부의 인사 소개도 받았다. 그러나 어느덧 2개월이 넘어 위장구실로 일할 날도 불고 1개월밖에는 남지 않아 약 일개월동안 은신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에 있는 중간연락 아지트에 도착시호. 접선원료, 안전의 암호등 연락은 우편을 통하여 취하였으나 업무진척 상황의 세밀한 보고기일이 박두하였지만 형의 집에서의 무전기 연락은 도저히 불가능 하였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결혼 또는 불우한 여성과 교제하여 정식가정을 꾸며 애정과 금품으로 완전히 매수해야 한다는 지도원의 교육에 따라 S친구와 사업교섭이라는 명목아래 누차 출입한 단골집 요정에서 기생을 포섭하여 애정을 맺은 후 형에게는 일본 본사에 다녀온다는 구실하에 S친우,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L여성과 정식으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비밀은 길지 못하였다 일본 본사에 다녀온다고 떠날 때 모친과 형수가 부산까지 환송 간다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고 평상시 언어태도가 이상히 느껴져 형이 직접 외무부 여권과에 들러 K의 여권 발행여부를 조사한바 전혀 무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K간첩은 이미 일본으로 간다고 형의 집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도 형은 동대문 시장 앞길에서 K간첩을 만났다. K간첩은 즉시 임기응변으로 배가 모래 떠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다고 변명했다. 형은 일단 집으로 유인하여 유도식으로 심문한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하다 종래에는 속 시원히 고백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K간첩은 자수하면 무자비 하게 처형되며 자수를 권유한 관계자와 가족까지도 복괴의 행동대원(무장대원)에 의하여 암살당할 것이라는 지도원들의 교육이 떠올라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형은 추호도 용납지 않았다. K간첩은 최후 발악으로 형을 위시한 전 가족이 자기를 도와주었고 공작금품도 받아냈으니 전부 간첩 방조자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정을 모르고 행한 행위이며 자수 하면 법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진지한 설교로 K간첩은 결국 자수하여 다른 간첩색출에 큰 공로자가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K간첩의 실례를 중심으로 하여 대남간첩의 밀봉교육 상황과 남파후의 활동실태를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붉은 간첩들이 날뛰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저명인사나 부역가족 또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묘한 수단 방법을 써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서 민심교란, 군민이간등을 책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명심하여 늘 보안태세완벽에 힘써야 할 것은 물론 간첩 색출에 한층 노력해야 하겠다.

체포된 피의자는 비밀경찰에 끌려가게 되는 데 거기서 치루는 일은 대개 정해져 있다싶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필자 자신이 체험한 바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1933년에 체포되었다. 어느 날 아침 네 시쯤 해서 두 사람의 체키스트가 찾아와서 나를 노보로시스크 비밀경찰 본부로 연행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두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는 조그만 방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그들은 소위「피체포자의 신상조사」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모조리 테이블위에 꺼내 놓고 아주 발가벗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놈의 머리, 귀, 입, 겨드랑, 가랑이 사이, 심지어 직장까지 검사하는 한편 또 한 놈은 양복과 구두를 살살이 뒤흔들면서 옷 주머니의 봉합선을 모조리 찢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놈은 옷에 달린 끈을 모조리 떼어 버리고 구두끈도 풀은 다음「옷을 입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들었던 물건 가운데서 그들이 돌려준 것이라고는 취조를 위해서 찢어버렸던 담배갑과 현금 5루블뿐이었다. 그때 성냥을 돌려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하였더니「그것은 금지품이야! 필요할 때 간수에게 말해!」라는 통명스러운 한마디였다. 여기서 몰수된 물품과 현금은 개인조사기록에 수록되고 현물은 본부에 보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은 검찰관에게 보내진다.

개인조사가 끝나면 죄수들 사이에「개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임시 유치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곳은 좁게 칸막이가 되어



<검찰관(비밀경찰)의 행하는 기>

-비밀경찰(秘密警察)의 조사방법(調査方法)을 중심(中心)으로-
사법의 공포정치(恐怖政治) ④

A 그리고 레프

있는데(4척×7척) 창문도 없으며 놓여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체키스트들은 그 사람을 어느 방에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까지 며칠씩 이곳에 가두어 두는 것인데 이러한 결정은 그 죄수가 받을 형량과 그를 집어넣을 감방에 이른바「검찰관의 이익을 해칠만한」다른 죄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을 동지나 지인으로부터 격리하기 까지 대단히 복잡한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그 사람을 완전 격리하는 것이 검찰관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된 경우에 그는 독방신세를 지게 된다.

필자는 NKVD의 조사를 받는 동안 몇 번이나 독방신세를 졌다. 언젠가는 3개월간이나 독방에서 지낸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벽을 하얗게 칠한 폭이 7척에 기리 10척쯤 되는 조그만 방으로서 벽에는 많은 낙서 흔적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복도로 통하는 쇠문에는 안에 들어는 죄수의 일거일동을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으며 그 반대쪽 벽에는 높이 일곱자 쯤 되는 곳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기는 하나 그 바깥쪽을 철근으로 막은 것이었다.

한편 죄수는 창문에 접근하거나 구석에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가구라고는 나무 침대와 변기뿐이었는데 나는 얼마 후에 검찰관의 허가를 얻어 방석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천정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밝은 전등이 매달려 있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자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금지사항임을 알았다. 예비구치소에 들어있는 사람은 잠을 잘 때 어깨까지는 가릴 수가 있지만 얼굴과 손은 감시 구멍에서 보이도록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벽을 두들겨 열방과 통신하는 것이 라던지 말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쇠문을 가볍게 두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1, 2분 후에 감시 구멍이 열리면서 간수가 아주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왜 그래?」라고 묻는데 이때 이쪽에서도 그와 똑같이 작은 음성으로 간단히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간수와 길에 이야기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간수의 대답은 극히 간단한 것이다.「안돼」「나중에」「검찰관에게 보고 하겠다」등등. 그리고 이곳에서 독방까지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빗장을 빼거나 잠아 당길때 나는 삐걱소리와 이따금씩 야밤중에 일어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뿐이었다.

나는 독방신세를 처음 질때 소위「보통제」라는 것으로 복역하였다. 그것은 마룻바닥에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열시에서 아침 여섯시까지이며 일곱시에 검은 빵 한조각과 설탕 한술에 끓인 물 한 컵이 주어지며 낮에는 반 사발 쯤 되는 얇힌 구물에 받아 마시고 저녁 다섯시에는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시게 되는데 이물은 다음날 아침 세수 물로 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필자가 독방에서 지낸 3개월 동안 운동이나 세수를 위해서 밖에 끌려 나가본 예가 없다. 이것은 상상컨대 보통제이면서도 이러한 예외의 취급을 하는 것은 나의 체포를 절대 비밀에 붙이려는 검찰관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취조를 받으러 끌려나가는 일이었다. 쇠문이 활짝 열리면서 간수를 따라 간수실까지

끌려가면 그다음에 나는 위병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해서「팔을 뒤로 돌려라! 곧바로 걸어라! 우로 돌아! 거기 서!」하는 위병의 구령대로 움직이면 조사관실 앞에 이르는데 이때 위병이 그 방문을 가볍게 노크하면 안에서「들어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취조를 받으러 가는 길에서 다른 죄수와 마주치게 되면 벽 쪽을 향해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체포된 사람이 어느 제도로 복종하는 가는 일체 검찰관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전술한 것 같은 나의 체험보다 다소간 좋거나 나쁘거나 한 차이는 있는 모양이다.

필자가 예비구치소의「보통방」신세를 처음 지게 된 것은 1933년에서 1934사이의 집단화 운동에 따르는 숙청선봉이 일단 가라앉고「키로프 사건」의 테로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였다. 나는 밤중에 보통 방으로 끌려갔다. 그것은 지하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서 독방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으며 천정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전구가 두 줄로 늘어선 긴 나무 침상을 내리비치고 있었다. 이 위에서 죄수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모포나 외투를 뒤집어쓰고 자고 있었는데 방문 근처에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변기가 놓여 있었다.

필자가 들어서자 몇 사람의 수인(囚人)이 돌아다보았으며 그중 한 친구가 일어나 앉았다가 문이 닫히자 자기가 실장이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나를 보고「외부에서 왔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에서 왔나?」라고 묻더니「모두 자고 있으니 o일 이야기 하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침 다섯시쯤 되자 문 여닫는 소리와 요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다른 감방에 들어있는 죄수들이 용변이나 운동을 위해서 끌려 나가는 모양이었다. 여섯시쯤 되어 우리가 들어있는 감방문이 열렸다.「변소에 갈 사람은 나와!」라는 간수의 말이 떨어지자 당번 죄수 두 사람이 변기를 문 쪽으로 끌 갔으며 다른 죄수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따라 나갔다. 이 행렬에는 무기를 갖지 않은 간수 한사람이 앞장을 섰으며 뒤에는 또 한사람의 체키스트가 따랐다. 우리들은 흰 글씨로 번호를 써 붙인 감방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길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의 출구는 조그만 방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무장한 간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 방 건너쪽 복도에 달려있는 문이 변소 입구였다. 변소는 기리가 20척, 폭이 8척 정도의 넓이로서 바닥에는 소독약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오래동안 참아왔던 용변이라 사람들은 앞을 다투지만 문간쪽에 버티고 서 있는 간수는 이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모두 다 용변이 끝나면 먼저 번과 똑같은 식으로 행렬을 지어 방으로 돌아온다.

다음에는 운동시간에 끌려 나가는 경우를 보면 이것 역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복도로 나서서 변소 쪽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돌층계를 내려서면 조그만 앞마당이 있었다. 이곳은 콘크리트 벽으로 울타리가 되어있고 그 위에는 유자철선(有刺鐵線)이 수없이 쳐져 있으며 벽 뒤에는 감시탑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기관총을 가진 보초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고 문쪽으로는 무장하지 않은 간수가 서 있었다. 운동으로서는 팔을 뒤로 잡은 채 빙글 빙글

원을 그리며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이 운동은 10분에서 14분정도 계속되나 때로는 도중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운동시간이 끝나면 죄수들은 열을 지어 힘없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거쳐 감방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룻바닥에 앉아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면「실장! 식사야!」라는 말과 함께 빵조각과 물이 배급되어 아침을 먹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심과 저녁에 먹으려고 빵을 썰어놓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여 한묵에 털어 넣고 마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아홉시쯤 되면 심문을 받기 위한 호출이 시작되는데 계원이 불러낼 사람 이름의 두문자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 그 글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죄수들은 자기 이름을 조용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낮은 심문은 저녁 다섯시 까지 계속되며 점심때는 멸건 국물이 든 통을 받으면 실장은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른 접시에 국자로 퍼서 나누어 주는데 그릇이 모자라서 교대로 받아먹는 것이다.

오후 다섯시가 되면 죄수들은 다시한번 변소에 갔다 와서 더운물 한 그릇씩을 배급 받고 나서 약간의 휴식시간을 얻어 여덟시까지 몸을 쉰다. 그러다가 여덟시가 되면 또 다시 밤중 심문이 시작되어 어떤 때는 이것이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호출할 때마다 모든 죄수들은 머리를 들어 계원이 혹시 자기 이름의 두문자를 부르거나 앓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주에 한번씩 사입을 허가하는 날이 있는데 입옥자의 가족들이 약간의 음식과 모포 따위를 사입하면 물건을 면밀히 검사한 끝에 빵조각 같은 것은 잘게 썰고 담배는 여러 동강을 내며(바늘같은 것을 감추거나 보는 것이다) 물건을 싼 신문지 같은 것은 제거된다. 그것은 죄수들에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일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에 단지 물건의 명세와 차입하는 사람의 싸인이 있는 쪽지만은 붙게 되는데 거기다 다른 사연은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물건을 받는 죄수는 그 쪽지에다 다 받았다는 싸인을 해서 간수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예비구치소에서는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큰소리로 지껄인 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간수와 말을 주고받는 것, 칼이나 유리제품(안경도 포함된다)을 가지고 있는 것, 트럼프 같은 것을 가지고 노는 것, 종이, 연필, 책, 신문 같은 것을 갖는 것, 5루블 이상의 현금, 시계, 귀쥬품을 갖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때때로 간수가 실내검사를 할 때 만약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입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든가, 운동을 시키지 않든가, 암실에 가둔다든가 때로는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죄수들에게 한달에 두번정도 육식 맛을 보여주기는 하나 실은 변소가 목욕탕인 것이다.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몸을 적셔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이렇게 목욕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감방 소독을 하는 것이다.

예비구치소 안의 제도를 볼 것 같으면 소위 그들의 숙청기간으로 감방이 초만원이 될 때,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러한 숙청기간에는 급식 같은 것은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비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보통감방에서나 죄수들 가운데서 통보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며 그 안에서 이런 자들을 씨암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검찰관은 이 씨암탉에게 운명의 호전을 약속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는 물질적 격려(음식물따위)도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보원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 할수 없다고 판단 하였을때는 그들은 복심부하를 죄수로 위장시켜 잡입케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예비구치소에는 독방과 보통방 이외에 특별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도 그리 엄하지 않고 급식도 좀 나은 편이며, 책이나 신문도 볼 수 있고, 종이나 연필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죄수들 가운데 협박보다는 술술 구슬리는 편이 상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골라서 이 방에 집어넣는 것으로 필자가 만나본 죄수 가운데 이러한 특별실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는 사람은 1퍼센트도 안되었다.

심문방법은 사건의 성질이나 검찰관의 성격, 또는 취조를 받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유례가 없는 것으로는 정치 운동의 일부로서 대량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심문이다. 이와 같은 체포는 소련 공산당정권이 취하는 어떤 정책에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만약 비밀경찰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것인데 만약 비밀경찰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심문은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형법에 의해서 허용된 기회, 즉 단순히 의심스러운 종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써 아무런 확증 없이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교묘히 이용한다.

이와 같은「집단조치」사건에서는 비밀경찰은 다만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심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체포하기 전부터 선고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조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1930년대 초기에 집단농장 참가를 싫어한 농민들을 처형한 사건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소위 반혁명적 행위의 징후가 보이면 비밀경찰은 철저히 조사한 끝에 자유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흔히 사람을 체포 할 경우에는 검찰관은 사건의 상황이나 피고의 성질을 세심히 검토한 끝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심문방법을 택하여 때로는 체포에 의한 충격을 이용해서 체포된 사람이 비밀경찰 건물에 연행된 직후에 취조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얼마든지 증거가 있을 때 특히 사용된다.

처음 심문할 때 쇼크에 의해서 부분적이라도 자백시키는데 실패했을 때는 검찰관은 흔히 피의자를 협박해서 의지를 꺾게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할 경우에 예비구치소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죄수를 퇴화시켜 큰소리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는 생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1935년 바무라그 수용소에서 A라는 기사를 만난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사나이는 모스크바에서 체포된 다음 굉장히 밝은 전등불빛이 내리비치는 독방에서「엄격제」로 복역하고 있었는데 두달 동안 취조 한번 받지 않고 방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자기 신체의 불안정함과, 침묵과, 밝은 불빛과, 그리고 말 한마디 건넨 사람이 없는 것이 그들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빠트려 검찰관은 용이하게 자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알 수 있겠요? 나는 취조를 받으러 끌려 나가는데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생각이 납니다. 상대방이 체키스트일 망정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에는 트림 없더라 말이지요!」

소련 형사소송법 제128조는 취조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한지 48시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서의 제기는 체포된 사람에 관해서 검찰관이 무엇이나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당사자에게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서 체키스트들은 결코 이와 같은 법률을 지키는 일이 없다.

필자가 1933년에 처음으로 체포되었을 때는 2개월만 지나도록 고소를 제기되지 않았다.

심문형태를 보면 먼저 피의자에게 상세한 신상 조사서를 쓰도록 하고 자기의 이력과 지인의 리스트를 쓰이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검찰관은 이 자료와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대조하여 양자의 상이점을 검토하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그와 동시에 검찰관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신념을 알아내려고 하며 만약 그 사람의 지인가운데서 비밀경찰의 카드식 색인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면을 철저히 구명한다. 그리고 구술한 것은 모조리 조서에 기록되며 검찰관은 죄수에 대해서「모든것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것만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바른대로 말하라!」고 협박한다.

만약 검찰관이 취조 중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그의 소위 반혁명적 회화나 행위에 대한 정보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터치하지 않고 유도심문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을 무의식중에 고백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동안에 비밀 통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심문할 때 적절한 말로 비쳐서 피의자의 행적은 무엇이나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체키스트들은 흔히「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솔직히 자백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그러나 실은 그렇게 무엇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문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이다.

언제인가 취조를 담당하던 조사관이 느닷없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그래 도대체 너는 이태리 영사관에 무엇하러 갔단 말야!」

나는 이태리 영사관에 갔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설득이나 말의 함정을 이용해서 피의자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면 검찰관은 다음 조사에서 그러한 자백을 더욱「넓고 깊게」함으로써

그의 죄를 보다 더 무겁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1939년에 노보첼캣스크에서 여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 그루프가 자주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때로는 반소적인 농담도 주고받고 하였는데 마침 그 그루프 안에 있었던 비밀통보원이 이것을 NKVD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체포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NKVD의 노보첼캣스크지부 부지부장 자루키는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확실히 반소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자백을 얻는데 성공하자 이 사건이 단순한 카드놀이 그루프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은 반소적 선전을 위한 소위 반혁명적 단체였다고 조작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관이 비밀통보원의 보고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 관한 한 두가지 막연한 사실밖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에게 숨김없이 자백하도록 설득 강요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도 피고가 끝까지 버틸 때는 두툼한 자료집을 차근 차근 뒤적거리며 다 알고 있다는 눈치를 보이면서 몇마디 말하다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좋을거야!」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때는 소위 반혁명적 활동이나 회담의 예를 인용하는 대신 피고의 어느 날의 행동을 상술하고 나서「이와 같이 우리는 너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넘겨짚는다.

1937년11월에 레닌그라드 NKVD제5부(군사관계)가 YU라는 학생들 체포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뷔루노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집을 수색하였을 때 우연히도 레닌그라드 어느 교외지도 하나를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가 그들이 그를 스파이행위로 고발할 근거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베로노고프라는 체키스트는 얼마 안가 그를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즉시 작전을 바꾸어서 이것을 58조10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즉 어느 때 YU가「예술을 위한 예술」을 신봉한다고 말한 것을 미끼로「푸레하노프는 말하기를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사고방식은 현실에 대해서 무익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현실 즉 소련의 현실에 대해서 무익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네가 반소분자란 말이다. 어때? 그렇게 인정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협박을 다 하였으나 YU는 이것을 끝내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로노고프는 YU의 반혁명행위를 증명할 증인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지인으로로부터 얻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 끝에 YU와 가까이 지내던 여학생들을 한데 모은 다음 그녀들 사이에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심문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은 제대로 들어맞아 드디어 여학생 하나가 그가 자기와 같이 있을 때 반혁명적인 말을 한 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여자들은 돌려보내고 그녀만이 증인으로 지목되었다.

다음 죄수가 그들의 조사업무에 협력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거나 시인하던지 하면 여러 가지 특전이 부여된다. 즉 그 가운데

는 좋은 방으로 옮겨주는 것, 좀 수월한 복역규정으로 바꾸어 주는 것, 책이나 신문 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 담배 배급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죄수가 자백을 거부하고 혼계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때는 검찰관은 강압수단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주 형편없이 나쁜 방으로 옮겨지고 사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며 야간심문에 호출되게 된다.(예비구치소에 서는 낮에 자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1936년에 스보드누이 수용소 본부에서 P라는 죄수가 필자를 만나 불도 환기설비도 없는 캄캄한 방에 갇힌 채 자백을 강요당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또한 사건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죄수로 하여금 그 증인이나 혹은「이미 자백한 공범자」와 대결을 시키는 일도 있다.

그리고 강압수사의 하나로 피의자를 초만원을 이룬 감방이든가 혹은 소위「개집」에 구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천명의 죄수를 수용하고 있는 예비구치소에서는 취조할 사람을 미리 방에서 불러내서 특별실에 집어넣고 거기서 불리어 갈 때 까지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죄수들은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지쳐 자빠져서 검찰관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재료를 제공하게 마련이다. 특히「콤포아」식 심문에 걸렸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 방법은 죄수 얼굴에 밝은 광선을 비쳐 놓고 검찰관 책상 앞에 차려 자세로 세운다음 서너명의 검찰관이 교대로 끊임없이 질문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다. 이때 죄수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답은 즉석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 수용소에서 밤낮 사흘을 꼬박 콤포아식 심문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중의 한사람으로 키에프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있다가 1934년에 체포되었다는 V라는 사나이는 말하기를 이런 식의 심문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질문을 받았으며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싸인한 증언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전연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밖에 흔히 사용되는 자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써「차려」자세로 벽을 향해서 자백할 때 까지 마냥 세워놓거나 둥근 의자에 부동자세로 앉혀 놓는 방법도 있으며 거부하기 짝이 없는 상의를 입혀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한 예로 1938년 노바야·지리양카 수용소에서 D라는 죄수가 쇠조각으로 주머니칼을 찾아내고는 그를 반쯤 죽여서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D는 돌아와서 말하기를 놈들이 복도에서 거부하기 짝이 없는 상의를 입히더니 팔을 뒤로 돌려 묶고 역시 발목을 끈으로 묶은 다음 그 끈을 팔 사이로 잡아 빼서 붙들어 맨채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칼이 있는 곳을 말하기 싫으면 그대로 주무시지!」라고 비꼬더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날 D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이 있는 곳을 자백하였다고 한다.

익명

=The Secret Name=

임어당(林語堂)
하정옥역(河正玉譯)

<제1회>



<머릿말>

"The Importance of Living"(한국어역:「생활의 발견」) "Our Country & Our People"(중국어역:「我國土 我民族」)등 많은 저서를 내어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중국식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냉소적인 비판을 촉구한 바 있는 엄어당이 이번에는 "The Secret Name"(중국어역:「匿名」)을 전 인류 앞에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공산주의의 진상 그 허구성 기만성 및 인류역사상에 있어서의 역행을 이론보다 사실에 의거하여 신랄히 풍자했다. 황당무계한 공산주의 비극의 내력을 해들쳐 보았다. 쓰련의 현대사를 볼 때 우리는 인간성이 맑스주의보다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철학자의 한 꿈이요 한 경제이론에 지나지 않는 맑스주의이론은 인간성과 인류의 기본적인 지혜가 결핍한 탓으로 버림받고 말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서는『소련은 인공위성의 발사보다『시베리아』에 유형(流刑)간 어머니를 돌려보내어 아기를 품에 안게 하고 노예의 쇠살을 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일반 반공서적과는 전혀 다른 풍취를 풍기며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로 깊이 있고 날카로운 풍자를 할 만큼 독자의 감명도 크리라 생각된다. (역자)

<대서>

공산주의란 결국 현행하는 부르주아 정권을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 통치를 하려는 무서운 반대주의자의 이면이다. 이는 무시무시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만이 미래를 알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공산주의는 현재 별로 논의되지 않고 아직도 남의 눈에 띄이지 않는 초라한 초가집 고미다락방에 머물러 있지만 현대 비극의 중요한 배역이 될 암흑의 영웅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종교적 교의는 각국에서 목숨을 내걸고 분기하게 될까? 그리고 이 분기는 혹시 제3의 막을 올리게 될는지? 그리하여 낡은 전체주의의 전통이 새로운 의상과 대사와 슬로건으로 다시 무대에 나설 것인가? 또한 이 극은 어떠한 종말을 가져오게 될까?

야만과 우울의 시대가 우리 앞에 으르렁 대며 다가오고, 새로이 목시록을 쓸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새 야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 야수는 너무나 잔악해서 성 요한이 말한 옛날의 야수와 비교하면, 요한의 것은 오히려 온유한 비둘기나 사랑의 신에 해당할 것이다. 신들은 다가오는 인류의 불행과 그들의 오래 걱정 아니 그들 자신의 운명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만다. 미래의 세계는 러시아인의 채찍과 피아 무신론 그리고 수많은 형벌의 냄새를 풍긴다. 간곡히 충고하노니 우리 후손들이여, 그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등에 아주 두터운 피부를 지니고 태어나라!(1842년)

(독일시인)
하인리히·하이네썸
(1797~1856)

서설

노동에 지친 사람들…….
폴랜드 어린이는 맛볼 수 없는 폴랜드 사과.
형법박사들에게 멸시받는 아이들이 있다.
소년들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소녀들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정의의 출현을 기다리고만 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리라
노동에 기진맥진한 인류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으리라
문에 맞는 자물쇠와
창이 달린 방
썩지 않는 벽을 마련하라고,
성스럽고 인도적인 내일을 위하여…….

(폴랜드 시인)
아담·와지크
(1955년 8월 21일 와르샤와
「신문화지」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지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모순과 논쟁을 들었다. 정통주의와 편향주의의 논쟁, 혁명과 반혁명의 싸움, 심지어는 <군중>이니 <무산계급>이니 하는 말조차도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지난 40년간을 두고 소위 변증법이란 이론의 위장을 쓰는 숨어서 소비에트 통치를 추진해온 그들에 대해 이론보다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공산주의의 문제란 원래 인간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면에서 올바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학도 인류의 행복을 구하기 위한 한 소인으로 보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통 통계숫자만으로 메우는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는 정말 진지한 연구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다. 앞에 인용한 폴란드 시인의 시는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철의 장막 뒤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시켜 준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공산당 통치하의 각국 남녀노유(男女老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거짓과 꾸밈이 없이 따뜻한 인간미에 넘치는 평범한 말로 인류와 앞으로의 세계 그리고 와르사와의 음산한 화색빛 하늘을 말한다. 시인은 분석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는다. 다행히 그는 판에 박은 논쟁이나 변증법 이론에 어둡다. 그의 관념은 뚜렷하다. 그는 인간을 이야기하되, 한 사람이나 한 집단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야기한다. 인류의 고통과 상처와 억누를 수 없는 희원을 이야기할 때 실상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맑시즘은 옳거나 아니면 옳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40년간에 걸쳐 간단없이 연속된 소비에트 통치의 적나라한 사실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장이나 이론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40년이 지난 오늘에는 공산주의자 비공산주의자를 막론하고 복잡한 소련의 생활상을 명확히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혁명 초기에 레닌이 노동조합을 강압적으로 국가기구에 예속시키자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 때부터 벌써 의문을 품었다. 레닌은 정권을 잡자 혁명 당시의 지혜는 다 잊은 듯이 민주에 등을 지고, 1918년 1월 80일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국민의회를 해산하며 노동자의 항거를 탄압하는 등 체카(Cheka) 특무대의 공포정치를 감행했다. 콜론타이 부인과 노동인민위원장인 시리아프니코프등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노동계급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다.

노동자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는 뭔가가? 독재정치의 핵심계급으로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된 신하며 당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서 군중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정책을 구행 하는 인간도구란 말인가?

언제나 레닌을 지지하던 여자 사회주의혁명가 마리아·

스피로도노바 역시 레닌을 비난하게 되자 레닌은 그녀를 구속해 버렸다. 스피로도노바는 1925년에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는데 1930년 후로는 그녀의 종적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혁명의 실상에 비난을 퍼부었다. 독일 공산당 지도자 로사·록셈부르크는「레닌과 트로츠키가 발명한 약방문은 민주를 없애는 것으로 그 독성은 악마보다 더 독하다」고 항의했다. 또한 스탈린의 전처였던 나디에즈다·알리루예바는 보로시소프 연회석상에서 스탈린의 잔인무도한 우크라이나 농민 학살을 둘러싸고 남편과 언쟁을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후 오래지 않아서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되었다. 알렉산더·오를도프는 이렇게 말했다.

『나디에즈바·알리루예바 사후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NKVD집행부장 포커가 어느 파티에서 알리루예바에 관해 얘기를 꺼냈다. 몇몇 사람은 그녀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고 또 온순하며 아주 겸손하다고 했다.「겸손하다고?」포커는 그 말에 반박했다.「당신들은 그 여자를 잘 모르는군. 얼마나 매서운 여자라구!」언젠가 그녀가 성이 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당신이 하는 짓은 백정 놈 짓예요. 너무 잔인해요. 그것은 당신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모든 러시아인을 죽이는 짓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봤다면 이제 막 당신들이 한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안했을 겁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스탈린은 비밀경찰 두목 야고다의 누누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영구차를 7킬로미터까지 따라서 걸어가기로 했다. 그가 가는 길 주변은 온통 비밀경찰들이었다. 도중에 스탈린은 갑자기 예정을 바꾸어 방탄장치가 된 택시로 장례행렬보다 훨씬 먼저 묘지에 갔다.

인민은 이론에는 이미 관심이 없다. 콜론타이 부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자신과 직접 연관되는 실체문제가 시급한 것이다. 노동계급 독재정권하의 노동자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자유의사로 초과노동을 거절할 수 있는가? 주택문제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 하는가 국가에서 임명하는가? 노동조합은 그들을 위해 발언 하는가 않는가? 노동자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임금이나 수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다 더 많은가 적은가? 노동자가 임의로 퇴직할 수 있는가?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들의 아내까지 공장에 나갈 일을 해야 하지는 않는가? 인민의 민주제도하에서 참다운 자유선거가 이루어지는가?…… 끝으로 노동계급의 적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는 이론이나 주의와는 별개의 극히 평범한 현실문제인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질문은 집권자에게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흐루시초프가 1956년 4월 런던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영국 노동당원들의 질문 때문에 곤경에 빠졌었다. 이론적인 논쟁이라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문제이고 보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구주사회민주당에게 행한 흐루시초프의 호조에 대해 사회주의국제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무조건 거절하는 회답을 한 것이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자유, 노동자의 권리 및 사회주의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 끝에 얻은 정치적인 권리 및 사회주의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 끝에 얻은 정치적인 성과나 인도적인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라고. 씩둑 자른 듯한 짧은 바지 외에는 흐루시초프에게서 그가 무산계급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올라서 그저 어물어물 말을 못했다. 질문을 받고 얼굴이 붉어진 것은 흐루시초프만이 아니었다. 폴란드의 정치국 위원인 알렉산더·싸바츠키는 1956년 1월 27일 <인민논단>에 「당이나 정부의 모든 직위는 인민에 대한 자기네의 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화를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영국 노동당원 게이스켄은 소위 사회주의공화국 안에 투옥되어 있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에 관한 질문을 했다. 심지어는 영국 노동당의 좌익계 지도자인 아뉴린·비반까지도 예리하게 반문 비난했다. 그는 1956년 2월에 순수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죽인 스탈린을 힐난한 후르시초프의 유명한 연설을 듣고 「스탈린에게 무고한 죽음을 당한 당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수백만의 일반인들도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 다만 극적인 표현이 부족해서 후르시초프의 눈에 띄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해서 투옥되는가 하면, 농민들은 식량을 국가 관리로 하는 바람에 먹을 것을 찾아 집을 나와야 하고……」라 했다. 이것이 날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실상인 것이다. 사실 비반보다 18년 앞서 소련을 방문한 앙드레·브라운은 1954년에 폴란드에 다녀와서 「불평등과 불행과 탄압에 지배계급의 소수인들은 끝없는 안락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철의 장막 뒤에 사는 노동자와 학생들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모스크바시당부 서기 에카테리나·푸르트세바가 카가노비치에 있는 베어링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태만을 책하는 연설을 했을 때 뒤에서 듣고 있던 노동자 한 사람이 「당신 봉급은 매달 얼마나 되오?」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질문은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극히 평범하다. 정통적이고 심각하며 정확한 맑스주의 이론을 더 이상 옹호해 봤댔자 소용 없다. 앞에 닥친 현실만이 문제다. 소련과 그 위성국의 인민들은 매일 매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작가 알렉세이·플루데크는 프라그에서 열린 체코작가회의(1956년 4월 22-29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고급관리가 노동계급의 피와 땀으로 프라그에 별장을 사고 또 교외에 화려한 저택을 지으며, 정부의 관용차 외에 자가용 차까지 마련하고- 특히 노동계급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별장 주위를 무장대가 경비하게 한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고관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시계의 전 인류, 소련 사람이나 강제노동장의 노동자 특히 소련의 통치를 받는 동구 위성국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네들은 자기네의 빵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우리와 같은 소련 식민 제국권 밖에 사는 사람들은 군사적 위협보다 마음속에서 울어나는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어 한다. 즉 스탈린이나 레닌, 흐루시초프도 다같은 인간인데 왜 그러한 알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일까?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그럴까? 그들 행동의 동기는 무엇일까? 어찌하여 그들은 여러 국가의 수억인들에게 그러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일까? 왜 또 소련인은 조작선거 또는 군대의 무력점령으로 동구 12개국(조지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유고슬라비아)을 모아 일대 제국을 꾸미고, 아울러 기타 여러 자치민족(크리미아의 타타르인, 체첸인, 키르기즈인, 카자크인, 우즈베크인, 몽고인 등등)을 노예화 시켜야만 하는가? 왜 볼셰비키 혁명당은 최초에는 세계의 제국을 타도하겠다고 하고서 결국은 자기네의 제국을 건립하고 있는 것일까? 짜르 황제의 전제를 싫어하던 그들이 어이하여 전제마왕이 되어 전제정체를 선양하는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부르짖는 그들이 도리어 프로레타리아트를 억압하고, 이 혹심한 억압은 더욱 가중해 가기만 하니 무슨 까닭인가? 일찍이 1905년에 이미 레닌은 이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이룩하려고 한다면 정치면으로나 경제면으로나 모순되고 반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수입의 불평등을 조장시킬 뿐인 사회주의는 모순이다.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는 것도 모순된 일이며 단독출마로 실시 되는 선거 역시 말이 아니다. 사회주의니 맑스이론이니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한 모순과 의혹은 외부인을 어리둥절하게 할 뿐 아니라 공산당 지도자 자신들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가장 특이한 이 현상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지경이 되게 하는 힘과 환경이 무엇인가 이해시켜 주는 해답이 있어야겠다.

해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도 역시 평범한 인간이며 그들도 인간의 욕망을 지니고 있고 통치계급의 지위나 계급으로 인해 받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마치 살인범이 다른 많은 범죄로써 살인을 엄폐하려는 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역시 인간인 흐루시초프가 이 극에 달한 모순 속에서 어떻게 헤어 나올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노동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국가가 기울어져감을 예상하면서 가장 악독한 전제정권을 이룩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통치계급을 유지하면서 더욱 모호한 무계급사회 건설의 희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인간의 짓에 천사도 울 것 같다. 일찍이 하이네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세계비극의 가장 애통한 장면에서까지 웃음이 끼일 수 있다……이 위대한 세계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빈약한 무대에서와 같이 진행된다. 얼근히 취한 영웅호걸, 자기 신분을 잊은 왕, 허공에 떠 있는 배정, 막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의 목소리, 다리의 울동과 가장 중요한 의상으로 특이한 효과를 내는 무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저 하늘 높이 맨 앞좌석에는 귀여운 소 천사들이 앉아서 망원경으로 지상의 희극배우들을 내려다본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큰 좌석에 엄숙히 앉아서 내려다보고 아마도 그는 이 극중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우울히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봉급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봉급이 너무 적어서 그들이 공연하는 연극은 모두가 다 어울리지 않고 서투르기 때문에……』

◇위장된 검소생활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런데 모택동은 사진을 찍을 때 낡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1959년 4월, 이룬바 제2회 전국 인민회의 제1차 회의 때 기념촬영을 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두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것은 모가 낡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었다. 그 낡은 옷은 2차대전 때부터 입어온 옷이며 퇴색된 옷이었다. 이 퇴색된 옷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그가 평소에도 이처럼 헐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퇴색된 옷을 입으므로써 다른 사람보다 사진에서 표나게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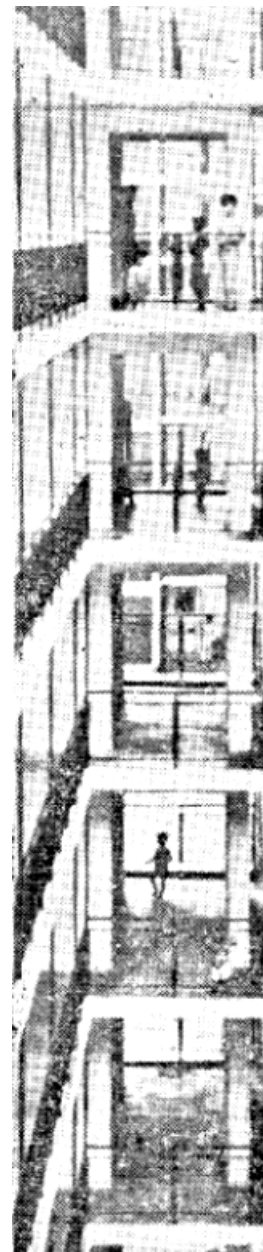
독재정권하(獨裁政權下)의 문학(文學)

·소련(聯)의 문학(文學) · 예술경향(藝術傾向)



A. 거원권
〈하바드대학교수〉

「후리드릿히·쉴러」는 아름답고 또 자랑스러운 시를 통하여 독일왕궁의 귀족들이 독일문학을 경시한 풍조를 야유한 일이 있다. 그에 의하면 18세기 독일의 시간에는「오-가스타드제(帝)시대」또는「메다이치시대」에 상응하는 문학전설시대가 없었다. 위대한 작품은 결코 제왕의 그늘 밑에서 창조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생겨난 작품은 제왕의 전제정치 질곡(桎梏)에 항거하고 또 그것을 멸시하는 자유의 예술이었다. 이와 같은「쉴러」의 시에는 상당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시는 독일문학의 전성기에 쓰여진 것이며, 높은 독립의 정신과 자신으로부터 탄생한 작품이다. 보통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시를 독일서민들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즉 국가권력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노래 부르고



「콜베엘」<주1세기중엽 프랑스중상주의의 대표적 정치가>의 재정개혁에 상응하는 문학개혁에 있어서, 말하자면 예술로서의 시작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실 이와 같은 해석에는 그럴듯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없지도 없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소련에 있어서의 소위「푸로레타리아」예술은 나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국가나 정부가 문학을 무시 내지는 무관심하다고 비난할 처지는 못 되어 있다. 과거 몇 십년간의 소련의 역사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당대회는 소련의 경제발전의 템포를 결정하고 스탈린과 스탈린주의를 재판하며 「알바니아」와의 장기전을 심각히 논의한 다음, 소련 문학에 관한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문학에 관한 보고연설에 그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는가? 보고된 문학상의 입장이 스탈린 시대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제22회 당대회에서 「호루시쵸프」의 극히 인상적이고 장광설이 끝나자 그 뒤를 이은 최초의 연설은「P.N. 데미쵸프」(모스크바시당제1서기- 즉 수도 모스크바의 보스였다). 그는 모스크바시의 경제개발과 주택문제에 관해 약간 언급한 다음 소련경제의 발전을 위하여「불역(不易)의 법칙」으로서「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코스트로 최대한도의 성과를 올린다」라고 역설하였다.「데미쵸프」는 이와 같은 옛날부터의 낡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알콜중독, 비행 및 무법행위 등에 대해 의논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그가 장차 전개할 소련 문학문제를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제적 자료였다.

「데미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 및 니키타 세르게비치·후루시쵸프 그 사람의 힘이 크다. 특히 동지 후루시쵸프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저술가, 화가 등을 교육하여 인간생활의 복잡한 사상을 가지고 저술가, 화가 등을 교육하여 인간생활의 복잡한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 과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곧 시정하는데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현대에 적응하는 테마가 문학과 예술의 부문에서 지도적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참으로 기꺼운 일이다. 소련인민의 영웅적 사업, 사상 등을 뒤따라 많은 예술작품이 창작되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보기 드문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소련문학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말하고 있다. 9년전,「마렌코프」가「스타린」면전에서 같은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소련문화의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부문의 하나는 문학과 예술이다. 우리들은 소련문학, 연극, 영화의 발전

에 크게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상을 타고 있는 것으로 입증한다.」그러나 이와 같은「마렌코프」의 찬사는 극히 간단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음미해야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문예활동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예술적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들 가운데에는 범작과 노선이 모호한 작품, 때로는 소련의 현실을 곡해 오도하는 작품들이 많다. 일부의 작가며 화가들은 다각적이며 활기찼던 소련의 사회를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바꾸어진 것이 있다. 국민들간에 가장 인기가 있는 영화도 이러한 점이 엿보인다. 우리 예술인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거나 기술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良畵)는 참으로 보기가 드물다. 정부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자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어서 말했다.

「소련인민은 이데올로기 면으로 또 문화수준면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의 힘이라 하겠다. 때문에 소련 국민은 예술작품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곡해 또는 오도하는 작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은 예술분야가 소련사회의 병폐, 결함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풍자적인 작품은 소설, 단편소설, 희곡, 영화에 전연 반영되고 있지 않다. 소련의 현황 속에는 그러한 결함이 없단 말인가? 현재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결함을 용감히 지적하는 제초적(除草的) 역할이다.

대담하게 폭로해 줄 것이다.…… 소련의 저술가, 화가, 영화인, 작곡가는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모순과 소련 사회에 부적당한 사실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그것을 인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중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 있는 발언은 풍자적 작품의 출현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바로 자기풍자에 합입되어 있다는 점이다.「마렌코프」가 이와 같은 연설을 행한 것은 소련에서 풍자적 작품을 쓰기가 가장 곤란한 때이기도 했다. 제2차대전 후 소련에 있어서의 새로운 풍자작품- 특히「베이트프」와「삐트로프」의 두 개의 소설과「쑤센코」의 단편소설-이 서점에서 자취를 감췄었기 때문에 젊은 독자층은 이들 풍자 소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들은「마렌코프」의 발언중

어디가 어디까지 본심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요컨대 그는-

1, 작가는 좀 더 대답해야한다. 라고 외치고-

2, 소련의 사회생활은 풍자작가의 손을 빌리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 그러나 그것은 소련사회의 본래의 양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4, 작가의 의무감을 독재자의 입장에서 강요하면 공작기계나 디젤 기관차의 증산을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사고방식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비정의 소박상(素朴相)을 이처럼 명백히 표백한 예는 없다 하겠다. 스탈린 정권은 분명히 러시아문학을 파괴했다. 스탈린 정권이 지나간 자위에는 시인이나 소설가의 시체가 산란했다.

이것은 스탈린 시대에 행한「마렌코프」의 연설이다. 그러면 후르시초프시대에 행한「데미조프」의 연설을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독재정치의 형태와 방향이 어떻게 다르냐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둘 것은「데미조프」가 말한 오늘날의 예술인들은 모두가 이미 흐루시초프류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혼도와 훈련을 받은 사람이며, 그러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오늘날 소련의 문화 활동은 그것이 스탈린시대의 스탈린주의와는 완전히 절연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데미조프」의 찬사 뒤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 있는 발언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골자를 우선 소개한다.

「소련의 현황은 공산주의에 길을 서둘고 있는 관계상 지금까지 보다도 더 한층의 문학과 예술의 역할에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공장, 농장, 연구소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보다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영화,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이들의 영상은 사실과는 다른 인간으로 나타나는 예가 허다하다. 그들은 낡고 퇴색한 인간형이다. 시간과 공간에서 유리된 존재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보편적인 예술이 영화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여러 스튜디오는 많은 작품을 생산했다고는 하지만 이데올로기나 예술면에 있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데미조프」의 발언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데미조프」의 이 연설은 먼저 소개한「마렌코프」의 그것과 논지나 구문이나 어휘가 비슷하였으니「데미조프」도「마렌코프」와 같이 작가, 화가, 작곡가 또는 영화제작자들에게 보다 용감하고 대담한 작품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인가? 다음의 그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

「풍부한 정신생활과 문예생활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우리는 최근 모종의 미숙한 젊은 작가들이 허위의 혁신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 병은 초기에 치료해 두어야 한다. 손이 늦으면 위험하다. 색채나 그림자를 취급한 반공산주의적 예술에 혼을 흔들리우고 있는 요즘의 일부 젊은 작가들은 그것이 소련에 해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재능의 부족과 이데올로기계의 불충성을 사이비 혁신주의의 이름으로 카버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놀라는 사실은 이들 일부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이 구태의연하다는 비난을 두려워하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함부로 추구하고 있다는 위험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작가나 화가가 단순히「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본다든지 간단한 시찰여행에서 창작의 소재를 찾아서는 공산주의적 노동이며 공산사회의 사실을 저술할 수는 없다.……」

「데미조프」의 이와 같은 발언을 잘 음미하면 참으로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스타린」의 부하의 한 사람으로서 또「스타린」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공범자로서 모든 죄과(罪科)를 함께 덮어쓴「마렌코프」가 단죄되었는데 같은 석상에서 말한「데미조프」의 연설내용은「마렌코프」가「스타린」의 의향을 받아서 연설한 내용을 표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패자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데미조프」는 표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판에 박은 듯한 공산주의자의 상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 요컨대「데미조프」가 현대 소련의 문학인들에게 공격을 가한 것만은 사실이나 공산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학이나 기타 예술분야가 움직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뚜렷하다.

「데미조프」의 이와 같은 비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문화상인「E.A. 호르체와」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말하기를「작가들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와 졸작만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중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가령 러시아공화국(소련서 가장 큰 공화국)에는 2700명의 저작자가 있는데 그중 1700명은「모스크바」나 그렇지 않으면「레닌 그라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 작가와 화가들은 분산하여 원격지에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서기인「SP.파브로프」는 잡지「유노스티」를 맹렬히 비난했다.「유노스티」는「청년」이라는 뜻인데 이「유노스티」가 기괴한 경향을 밟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잡지에는 일부 타락한 젊은 그룹들이 있다. 이들은 기담이나 기행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작가가 국민의 실생활과 완전히 유리된 것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그 중의 모 작품을 영화화하겠다고 나선 일부 감독은 실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들이 문학, 예술에 대한 비판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견해의 일치라 아니며, 일정한 지시사항에 따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의 목적에 대해서「L.F. 이리이초프」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은「스타린」에 의한 검열과 언론의 탄압 사실을 폭로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분간 이데올로기의 분야에 있어서 Workers(원문 그대로)에 보다 높고 그리고 누질(累質)의 제요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이데올로기 분야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현재 당자체가 체험하고 있는 창작적 초점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의 공헌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선전, 선동, 신문, 라디오, 텔레비, 강연회, 그리고 문학, 예술- 모든 이데올로기 전선은 소련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의 일절의 국면을 공산주의적 원칙의 정시에 준칙(準則)해서 용납하는 적극적 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이 오늘의 소련의 문학, 예술-문화와는 동떨어진 방향을 견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노서아문학은 위대하였다. 그러나 소련문학은 같은 장치에서 만들어내는 주물(鑄物)과 같이 복사화 하였다. 국민은 과거 수십년 동안 똑같은 견해를 무수히 되풀이 들어왔다. 국민은 반복공작이 전체주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불가결의 수단임을 잘 알고 있다. 연년세세(年年歲歲) 되풀이 되는「메이 데이」의 스로-강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간단하고 매력없는 일항목이 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일항목이란 작가나, 예술가에 대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이다. 그 위대한 작품이란 무엇인가? 독재자의 처방에 따르라는 것이다.

이같이「명령된 창작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너무나 많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만으로 족할 것이다. 가장 적합한 예로서「호요돌·판호로프」와 그의 1·2의 작품이다.「판호로프」는 저명한 공산작가의 1인이며 다작가이기는 하지만 문학적 재능이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없다. 그의 대표작은 1930년에 출판된 농촌공영화를 테마로한 장편소설「부르스키이」이며 초기에는 1·2부가 출판되고

1937년까지 나머지 3·4부가 출판되었다. 그는 제2차대전 후에「평화를 위한 싸움」(Boi ba za mir)을 발표했다. 그것은「우라루」의 자동차 공장을 무대로 한 것으로 1947년에 스탈린상을 탄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패자의 토지」(V Strane-preverzhennykh)에 재등장, 독일이 활동무대로 되어 있다. 이것도 1947년에 스탈린상을 탔다.

그런데 그는 이 소설을 당 간부의 요구로 그때 적합 주제로 다시 꾸며「위대한 예술」이라는 제3부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유기영 역)

〈P77에서〉

의 결심은 순간적이다. 그 순간만 냉정히 잘 넘기면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도망가기 전에 먼저 딱한 사정을 상관과 상의한다면 좋은 결의책이 설 것이다. 정 상담 할 데가 없을 때는 가까운 법무관실로 찾아가라. 법무관은 처벌만 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고 그 인권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군대기울에는 동정이 없음을 명심하여 인내심을 더 기르고 일단 도망했다라도 곧장 자수 귀대한다면 도망병 처벌의 예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가능성이 있다. K병장만이 범죄성향이 있는 건 아니다. 반대로 누구나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K병장도 마찬가지다. 이제 K병장을 미워할 순 없다. 비록 어떤 환경의 악순환 때문에 그가 두 번씩이나 범행했다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새사람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K병장만이 아니라 모든 K병장을 두고라도『결코 죄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되뇌어 보며 그들이 옛 날의 강했던 의지를 되찾도록 천주님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가만히 빌어본다.(1962, 5, 13)

(이글은 공군 사병범죄를 표준으로 쓴 것임을 부기해둔다.)

◇쥐싸움

「헨리·포오드」는 어느 날 시골의 조그마한 호텔에 투숙 하게 되었다. 이튿날 일어나자 그는 호텔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밤중에 쥐가 두 마리나 나와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통 잠을 못 잤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그런데 주인은 태연했다.

『노하셨군요. 하지만 당신은 단지 3팔라 밖에는 내지 않았어요. 3팔라 가지고 투우구경은 무리가 아녜요?』

독창(獨創)의 문장(文章)으로 세계적 문호(世界的文豪)가 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

서기 640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곳에서 젊은 이들을 대륙인「당」의 태학(太學)에 대거하여 유학 시킨 이후 국제적으로 학술과 문화의 교류는 더한층 활발했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후 서기 874년에는 고운 최치원이 당국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과시에 응해서 장원급제가 되었다. 한국의 유학생으로 당에 공적으로 응시하여 장원급제가 된 것은 한국 학계의 효시(嚆矢)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던 당이 이와 같이 문호를 개방시켜서 외국인인 한국청년에서 과시에 응하여야 하고 장원급제까지 준 것은 학문 연구에 대한 국가적 또는 민족적 장벽을 제거시킨 크나큰 문화교류의 아량을 가했다 할 것이다.

나는 잠깐 고려 때 사람 김부식의 저서「삼국사기」를 인용하여 최치원의 사적을 고증하기로 한다. 『최치원의 자는 고운이요, 또 해운이라고도 한다. 왕경(서울) 사양부(沙梁部) 사람이다. 사전이 민멸(泯滅)하여 그의 세계는 잘 알 수가 없다. 치원은 어려서부터 정민(精敏)한 학문을 좋아했다. 나이 12세가 되자 바다를 건너 당에 가서 배움을

한국의 자랑 ⑦



구하려 하니 그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당부하기를「10년을 공부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과거를 보아라 만약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을 다하여 공부하라」치원은 아버지께 하직하고 당으로 건너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 건부원년(乾符元年) 갑오=서기 874에 예부사랑 배찬(裴贇)의 차석으로 단번에 급제했다. 곧 강남도의주 표수현위(溧水縣尉)라는 벼슬을 받았고, 부임한 후 공적심사를 받아서 승무랑(承務郎), 시어사공봉(侍御史供奉)이 되고 자금어대(紫金魚袋)의 공훈에 서(紱)했다. 때마침 황소라는 반적(叛賊)은 내란을 일으켰다. 국가는 회남절도사 고병으로 제적병마도통(諸適兵馬都統)을 임명하여 황소를 토벌케 했다. 고병은 치원으로 복사를 삼아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 그 표(表)·상(狀)·서(書)·계(啓)가 지금까지 전한다.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말한 표·상·서·계라는 것은 치폐(致欸)이 고병도통의 종사관이 되어 제조한 무수한 표·폐(欸)·계격문(啓檄文)·시문·서독(書牘)을 말한 것이다.

이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격황소서(檄黃巢書)」라는 글이다.

최치원의 저서도 문집『지원필경(特苑筆耕)』에 의거하여 본문을 옮기고 다시 현대문으로 이글을 옮기기로 한다.

『廣明二年七月八日, 諸道都統檢校太尉 高駢, 告「黃巢」夫守正修常曰道, 臨危制變曰權, 智者成之抱順時, 愚者敗之抱逆理, 然則雖百年繫明, 生死難期, 而萬事恙, 是非可辨, 今我以王師, 則有征無戰, 軍政, 則先惠後誅, 將期剋復上京, 固且敷陳大信, 敬承嘉論, 用戢奸謀, 且汝, 素是遐氓, 驟爲刼敵, 偶因乘務, 輒敢亂常, 遂乃包藏禍心, 竊弄神器, 侵凌城闕, 穢黷宮闈, 既當罪極罔原, 必見敗深塗地, 噫蒔處已降, 苗扈弗賓, 無良無賴之徒, 不義不忠之輩, 爾曹所作, 何代而無遠則有劉曜, 王敦, 覬覦晉室, 近則有祿山, 朱泚, 吠噪皇家, 彼皆或手握強兵, 或身居重任, 叱咤則雷奔雷走, 喧呼則霧塞烟橫, 然摘暫逞奸圖, 終殲醜類, 日輪閣輟豈縱妖氣, 天綱高懸, 必除凶族, 況汝, 出自閭閻之末, 起於隴畝之間, 以焚劫爲良謀, 以殺傷, 爲急務, 有大愆可以擢髮, 無小善可以贖身, 不唯天下之人, 拷思顯戮, 抑亦地中之鬼已譴誅 縱饒假氣遊魂, 早合亡身奪魂, 凡爲人事莫若自知, 吾不妄言, 汝須審聽, 比者, 我國家德深, 含垢恩重, 棄瑕, 授爾節旄, 寄爾方鎮, 爾猶自懷鳩毒, 不斂梟聲, 動則齧人, 行唯吠主, 乃至身負玄化, 兵纏紫微, 公使則犇竄危途, 警蹕則巡遊遠地, 不能早歸, 德義俱養, 頑凶斯則, 聖上抱汝, 有赦罪之恩, 汝則於國, 有辜恩之罪, 必當死亡無日, 何不長懼于天, 況周鼎, 非發問之端, 漢宮, 豈偷之所, 不知, 爾意終欲奚爲, 汝不聽乎, 道德經云,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天地尚不能久, 而況於人乎』

『광명2년 7월 9일에 제도부통검교대위 고병은 황소에게 격(擊)한다. 대저 바른 것을 지키고 형성한 것을 닦는 것을 도라 하는 것이요 위급한데 임하여 변을 제압하는 것을 권이라 하는 것이다. 지한 자는 시에 순하여 성공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이를 역하므로 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이 비록 백년이라 하나 생과 사를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니 만 가지 일은 마음이 주장이 되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왕사로써 너를 정복 하거니와 다투어 싸우는 전쟁은 아니하는 자는 주륙(誅戮)하여 이긴 후에 서 울로 개가를 불러 올라가려니와 아직 대신을 부진(敷陳)하는 것이나 가론(嘉論)을 공경하여 받들어 간사한 꾀를 걷우라. 너는 본시 먼 시골 천한 백성으로 졸지에 집적(劫敵)이 되었고 우연히 승세하여 난을 일으켜 화심(禍心)을 포 장하고 신기를 절룡하여 성궐(城關)을 침릉(侵陵)하고 궁문을 더럽혔으니 죄는 하늘에 넘쳐있다. 반드시 일패도지가 되고 말 것이다. 슬프다. 요순(堯舜)이래 도 적호(苗扈)와 불빈의 불량하고 무뢰한 무리 너희들 같은 소작이 어느 시대 인들 없겠는가. 멀리한 유요(劉曜)와 왕적(王寂)이 진실(晉室)을 엿보았고 가까이 는 안록산(安祿山)과 주비(朱泚)가 황가를 폐조(吠噪)하였다. 그들은 모두 손에 강 병을 잡았고 혹은 몸에 중임을 맡은 자였다. 꾸짖으면 뇌분전주(雷奔電走)하 고 환호(喧呼)하면 안개처럼 막히고 연기처럼 가로질러서 간특한 일을 도모했 으나 미침내는 추류(醜類)를 섬멸해 버렸던 것이다. 광명한 일륜이 넓게 구니 어찌 요망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겠는가 하늘 그물이 높게 떠있으니 반드시 흥 한 무리는 제해지고 말 것이다. 더구나 너 같은 것은 대단 천한 곳에 태어나 서 농무사이에 일어난 위인이다. 불 지르고 겁탈하는 것으로 양모(良謀)를 삼 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으로 급무를 삼았으니 너의 큰 죄악은 머리털을 뽑 아 헤여도 부족할 것이요, 조그마한 착한 것은 약에 쓰러하나 구할 수 없으니 속신(贖身)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다 너를 저자에 끌어내 어 능지처참할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지중에 있는 귀신들조차 벌써 너를 음 주(陰誅)할 것을 의논했다. 비록 가기(假氣)와 유혼(遊魂)이 있다 하나 망신이 조합하여 너의 넋을 빼고야 말 것이다.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일은 모르는 것 이다. 나는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한다. 너는 자세히 살펴서 들으라. 여태껏 우리 국가는 덕이 깊어서 너의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두터웠 고 너의 잘못된 허물을 덮어두고 너한테 절모(節旄)를 주었으며, 너에게 방과 진을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짐독(鴆毒)한 마음을 품고 부영이 같 은 소리를 계속하여 동(動)하면 사람을 물고 움직이면 주인을 걸어서 나라의 어진덕 화를 쳐버리고 병화로 궁궐을 범하였다.

공사는 위도(危途)로 도망질을 치고 황상은 원지순유(遠地巡遊)하여 조귀할 길이 없다. 나라에서는 너를 덕의로 대접했거늘 완흥(頑凶)함이 이 같으나? 성 상은 너에게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너는 나라온혜를 저버리고 이 같은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아니 하랴. 주정(周鼎)은 너의 발문할 끝이 되지 못하고 한 궁은 너의 투안(偷安)할 곳이 아니다. 장차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너의 의도를 모르 겠다. 너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지 못했느냐? 표풍(飄風)은 온 아침을 불지 아 니하고 소낙비는 온 종일 오지 않는다 했다. 천지의 기운으로도 능히 오래지 못하거든 하물며 너 같은 사람의 일인가 보냐.』

『又不聽乎，養秋傳曰，天之假助不善，非祚之也，厚其凶惡，而降之罰，今汝，藏奸惡暴惡，積禍盈危，以自安，迷而不復，所謂燕巢幕上，漫恣驚飛，魚戲鼎中，即看焦函，我繼熙雄略，糾合諸軍，猛將雲飛，勇士雨集，高旌大旆，圍將楚塞之風，戰艦樓船斷吳江之浪淘，太尉銳於賊，揚司空嚴可稱神，旁眺八維，橫行萬里，既謂廣張烈火，焚彼鴻毛，何殊，高舉泰山，壓共鳥卵，即日金神御節，水伯迎師，商風助肅殺之危，S露，澆抒煩之氣波濤既息，道路即通，當解纜於石頭，孫權後殿，佇落帆於峴首，杜預前驅，收復京都，剋期旬朔，但以好生惡殺，上帝深仁，屈法申恩，大朝，今典討干賊者，不懷私忿，論迷道者，固在直言，飛吾折簡之詞，解爾倒懸之急。』

『너는 또 듣지 못 했는가 춘추에 말하기를 하늘이 불선하는 것을 거저 돕는 것은 정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흉하고 악한 것을 더하게 한 후에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지금 너는 간특하고 토악한 것을 감추고 재앙을 싸고 위태로움을 가득히 하여 스스로 평안하리라 생각하면서 미혹(迷惑)한 채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것은 마치 장막 뒤에 깃들인 제비가 앞에 닥쳐 올 일을 모르고 절름거리 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술에든 물고기가 죽을 줄 모르고 좋다고 노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당장 곧 불에 넣고 삶아지는 꼴을 볼 것이다. 웅장한 전략을 내어 제군을 규합하니 맹장은 구름 같고 용사는 비 오 듯 쏟아진다. 높은 기와 큰 기는 초새(楚塞)의 바람을 둘러막고 전함과 누 선(樓船)은 오강의 물결을 끊는다. 태위는 적을 깨치는데 날 새고 양사공은 엄하기 신과 같다. 옆으로 천하를 훑어보고 가로 만리를 횡행하니 이미 열화를 넓히 하여 홍모(鴻毛)를 사르는 격이요, 태산을 높이 들어 조란(鳥卵)을 놀으는 것과 방불하다. 즉일(即日)로 금신은 절(節)을 메고 수백은 군사를 맞이하고 괴롭던 기운을 일소할 것이다. 파도는 가라앉고 도로가 통하면, 마땅히 닳을

석두에 풀어 손권은 후전이 되어 돛대를 현수(峴首)에 내일 것ियो. 두예(杜預)는 선구(先驅)가 되어 순삭(旬朔)만에 서울을 수복할 것이다.

다만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여 어지신 상제는 법을 굽히고 은혜를 퍼서 대조(大朝), 이제 관적을 전토(典討)하는 것은 사분(私忿)이 아니요. 바른말로 미도(迷途)한 자를 일깨주려 함이다. 나는 편지를 띄어 너의 잘못을 해명하는 바이다.』

『汝其無成膠柱, 早學見機善自爲謀, 過而能改, 若願分第列士, 開國承家, 免身首之橫分, 得功名之卓立, 無取信於面友, 可傳榮於子孫, 此非兒女子所知, 實乃大丈夫之事, 早須相報, 無用見鉞我命, 戴皇天, 信資白水, 必須言發響應, 不可思多深怨, 或若狂走所牽, 酣眠未寤, 猶將罔轍間欲守株, 則乃 批熊拉豹之師, 一麾揉滅, 鳥合鷄張之衆, 四散分飛, 身爲齊公之讐, 骨作戎車之粉, 妻兒被戮宗族見誅, 想當燃腹之時, 必恐噬臍不及, 爾須酌量進退, 分別店臧, 與其叛而滅亡, 曷若順而榮貴, 仇所望奢, 必能致之, 勉勵壯士之規, 立期豹變無執愚夫之慮, 坐守狐貍, 高駢告』

『너는 부레풀을 기둥에 붙이듯 고수하지 말고 기회를 보아 허물을 고치라. 만약 분제열사(分第列士)하고 개국승가(開國承家)하여 제사(諸使)가 되기를 원한다면 머리와 몸이 잘라져서 죽는 것을 면할 것ियो, 공명 우뚝하여 친구한테 신을 얻고, 후손한테 영화를 전하리라. 이것은 아녀자의 말이 아니라 대장부의 할 것이다. 빨리 회보(回報)하여 나의 명을 의심치 말라. 황천을 머리에 이고 백수가(白水歌)를 믿으라 하거나 만드시 내 말대로 향응함이 있으라. 은혜는 많고 원망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광분하는데 끌리고 아직도 깨지 못하여 나한테 저항한다면 곧 곶을 잡고 호랑이를 잡은 용맹스런 군사를 보내서 오합지졸을 박살할 것이다. 이리된다면 너의 군사는 사산분비(四散分飛)가 되고 너의 몸은 도개아래 기름이 되고 용차(戎車)에 깔려 가루가 될 것이다. 아내와 아들은 살육(殺戮)이 되고 일가족속은 모두 다 주(誅)를 당할 것이다. 배꼽을 도려 불을 켜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너는 빨리 진(進)이나, 퇴나,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라. 반하여 멸망이 되는 것보다는 순하게 항복하여 영귀(榮貴)함이 좋을 것이다. 장사의 입기(立期)하는 법절을 찾고 우부(愚夫)의 표면(豹變)하는 생각과 앉아 호작(狐貍)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라. 고병은 고한다.』

이 문장이 고운 최치원의 저 유명한「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의 전문이다. 최치원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12세때, 신라를 떠나서 당에 유학한 후에 18세때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고 20세에 당국 의주표수현위(宜州漂水縣尉)가 되고 25세에 수남 절도사 고병의 종사관이 되어 격황소서를 지어서

일책(一策)신라의 묘소년(妙少年)으로 문명을 천하에 진동시켰을 뿐 아니라 반적황소(叛賊黃巢)는 최치원의 지은 격문중에「불유천하지인(不唯天下之人)이 개사현육(皆思顯戮)이라 억역지중지귀(抑亦地中之鬼)도 기의음주(己讎會誅)」라는 글귀를 읽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고만 항복을 할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황소의 난은 당선종 건2년 때부터 일어나서 하남, 강서, 복건, 석강, 형주, 양주를 석권하고 낙양을 취하고 동관을 파하고 장안을 함락하니 당제는 촉으로 달아나고 황소는 제제(齊帝)라고 칭하였다가 패해서 목 찢려 죽으니 전쟁한 해수가 전후 10년이나 되는 큰 동란이다.

이때 한국의 한 개 문학소년 그 최치원으로서 격문을 짓는 중임을 맡았으니 그의 문장이 당시에 얼마나 출중하게 빛났던 것을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당은 당시 문화의 절정기에 오른 국가이며, 한유, 이백, 투보, 백낙천 같은 대무호와 시망이 배출된 곳으로서 여기에 외국소년 최치원이 어깨를 겨누어 문명을 크게 날린 것은 얼마나 그의 글이 탁월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람의 재질이 얼마나 뛰어나서 남에게 지지 않는 독창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상 최고의 아침

아침은 결국 아침을 받는 사람이나 아침하는 양자를 망하게 한다. 이것은 동서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겟베르스」는「히틀러」를「유럽의 태양」이라고 아침했다. 중공의 광수약은 모택동을「인류의 태양」이라고 아침했으니 「겟베르스」에 비할 바 아니다. 손일선의 부인은 중공에 있어서 광에 다음가는 아침가로 알려졌는데 그는「스타린」을 극렬히 찬양한 덕택으로 중공 정권의 두 부주석 중의 한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광수약은 오랜 아침의 덕분으로 과학원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말할 수 있는 오직 한사람

양칙명은 중국에 있어서 알려진 농촌개혁가이다. 그는 1958년, 북경요인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의 농민부담이 생각보다는 과하다는 뜻의 연설을 했다. 이때 모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은 뒤 격렬한 말로 양씨를 다음과 같이 공박했다.

『너는 너 자신 모름지기 유명한 미인 서시나 양귀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 할지 모르나 내가 볼 때 너같이 추한 놈이 없다고 생각한다.』양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벼락을 맞은 것 처럼 퇴단(退壇)하고 말았는데 그가 숙청된 것은 물론이다. 양씨는 주중문이 영도하는 민주연맹 당원이며 모가 왜 그처럼 노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주씨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얘기는 7억 인구 중 당 한사라 모만이 말할 수 있는 분야임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마법(魔法)의 동굴(洞窟)

-세계(世界) 경이(驚異) 순례(巡禮)-

리차드·하리바톤

여러분은 마법이라는 것을 믿으며 요정의 여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법에 걸린 일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이며,「도대체 그런 미친 소리 작작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을 일소에 부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정말 마법에 걸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의 바다에 있는 동굴 속의 마법의 바위 라딘가, 물, 광선 등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의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요정과 같이 보이게 마련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나포리만 건너쪽 테이레니아해를 건너서면 넓은 지중해가 바라다 보입니다. 거기서 약 29키로쯤 되는 지점에 파도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섬이 있는데 이것이 마법의 동굴로서 세계에서 이름 높은 카푸리 섬인 것입니다.

카푸리 섬에 살고 있었던 고대 로마 사람들은

동굴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동굴을 날씨가 나쁠 때 조각 배의 피난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굴은 높은 아취형의 천정이 있는 기리 48미터, 폭 60미터 정도의 항구로 되어 있으며, 로마사람들은 그 안에다 수면에서부터 넓은 바위줄기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동굴입구 위에 세워진 집으로 통하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입구는 해면에서 아취형의 지붕까지 아마도 15미터쯤은 되는 높이이며, 이 입구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랑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서기 79년 베스비오산의 폭발로 폼페이시가 매몰되었을 때 카푸리섬에도 몇십 톤이나 되는 재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동굴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동굴 안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와 같은 동굴은 그다지 진기한 것이 못되고 이와 비슷한 것이 이태리 해안에는 얼마든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년경 이 섬을 둘러싼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 카푸리섬은 15미터정도나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아취형 동굴 입구도 불과 1미터 정도의 간격만을 남겨놓고 완전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위의 터널도 가라앉았고 한쪽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린 채 이 동굴의 존재를 사람들은 1,300년 동안이나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동굴은 소위 마법이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카푸리 사람들은 1815년 즉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 패하고 실각한 해에 비로소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날 한 늙은 어부가 동굴 앞을 막 지나가려고 할 때 커다란 물고기와 같은 것이 한 때가 바위 저쪽에서 헤엄쳐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뾰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늙은 어부가 낚시 줄을 던지자 느닷없이 바다가 새빨강게 물들면서 바닷물 위에 떠오른 것은 물고기가 아니고 상반신이 사람을 닮은 괴물이었는데 그 괴물은 주먹을 움켜쥐고 어부에게 달려들었으나 얼마 후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어부는 기절한 채 배는 해안으로 표류되었는데 그는 이 무서운 괴물에 관해서 헛소리를 몇 마디 하다가 2·3시간 후에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후에 이 동굴에서 빚어진 불길한 전설이 퍼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동굴 안에는 악령이 가득차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동굴 입구에서 화염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어같이 생긴 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굴입구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다 한결 같이 말하는 것은 밤에는 사이렌(역주:이태리 근해에 출몰 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근처를 지나가는 배의 선원을 유혹해서 바다 속으로 빠지게 하는 반인반조의 마녀)이 동굴 안에서 달콤한 노래를 부르지만 낮에는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 어부들은 동굴 가까이

가면 사이렌이 와서 동굴속으로 끌어내린다면 믿고 그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중 드디어 두 사람의 목사가 용감하게도 이 악마의 동굴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악마를 쫓아낼 것을 결심하고 입구에서부터 헤엄을 쳐 들어갔으나 이내 공포에 사로잡혀 되돌아 와서는 동굴 안은 사람 뼈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후 몇 해 동안은 누구도 이 동굴에 접근하려 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1826년 모험을 좋아하는 두 사람의 오스트리아 미술가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기분 나쁜 동굴을 탐험할 것을 결심하고 반질반질한 납으로 된 그릇에 등화를 켜서 그것을 머리 위에 붙들어 맨 다음 동굴 입구에서부터 헤엄을 쳐 갔는데 과연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였겠습니까? 필자는 여기서 그것을 말하지 않겠으며 그 대신 여러분은 그곳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른 새벽, 나포리에서 조그만 기선을 하고 카푸리 섬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리나·그란데의 작은 항구에서 마중 나온 조그만 배를 바꾸어 타고 암석이 많은 해안을 따라 2,3키로쯤 가게 됩니다. 동굴 입구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만약 안내인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고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너무나 얇기 때문에 몸을 뱃바닥에 착 깔고 노를 높이 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결이 높을 때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처럼 왔어도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막상 당도한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서 피투성이의 주먹으로 어부에게 달려드는 곳이며 동굴 안에는 젊은 선원을 잡아서 그 해골을 둘레의 바위벽에다 쌓아놓은 사이렌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발길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뱃사공은 우리들에게 눈을 꼭 감은 채 머리를 들지 말라고 지시한 터널을 따라 둘러쳐진 유도 가선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2,3초만에 별안간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때 뱃사공이 가선(架線)을 힘껏 잡아당기면 배는 굉장히 기울어지며, 바닷물을 머리 위로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열쇠구멍 처럼 좁은 입구를 화살처럼 통과하면 배는 다시 전처럼 조용해집니다.

이때 뱃사공의「모두 얼굴을 들고 바라 보십시오!」라는 말에 눈을 뜨고 바라 보면 절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올 정도의 기적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괴물도 없고 암벽과 아취형의 둥근 천정 모두가 파랗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법이 모든 것에 작용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 수수께끼 나라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나라의 바위나 천정이나 물에서 발산되는 황홀한 푸른빛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 천국에 들어섰으며 더구나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뾰드를 받히고 있는 푸른 구름(물을 말함)속에 노를 잡거 보면 노는 별안간 타는듯한 은빛으로 변하며, 손을 담가도 역시 찬란한

보석과 같은 광택이 납니다.

우리가 경이순례의 여행에서 이곳의 물이나 암벽이나 빛깔처럼 고상한 아름다움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황홀한 푸른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조각배를 옛날에 만든 바위 층계 쪽으로 저어 갑니다. 이 층계는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이 수면에서 바위 실령까지 새겨놓은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수면에서 불과 1미터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바위 실령은 로마시대에는 집이 있는 위까지 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위로 된 터널 속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위 층계로부터 청색 구름과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면 몸들이 번쩍이는 혜성과 같이 변하면서 지나간 자리에는 구슬같이 물방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교란된 물은 그 일대에 눈부시게 반사되어 동굴 안 구석구석까지 번쩍거리는 품이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물속을 이리저리 헤어나다니는 동굴 안의 풍경은 분명히 환상적인 요정의 세계 바로 그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을 밝혀 보기로 합니다. 이 동굴은 요정이 요술을 부려서 그리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의 햇빛과 바닷물의 조화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내가 지진 때문에 원래의 입구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외부 바닷물에 비친 일광이 물속에 가라앉은 입구를 통해서 동굴 안으로 숨어들어와 거기서 다시 안의 수면으로부터 암벽에 반사됨으로서 이루어지는 풍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색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마룻바닥에 촬영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이「청색의 동굴」도 이와 같은 이치로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굴안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비슷하게 설명은 하나였다고 하지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요정이 제아무리 아름답게 차려 입어도 이 동굴안의 아름다움에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풍의 편지

1955년, 중공은 모가 좋아하는 중국의 현대문학가 노변의 제자인 호풍을 쓰도록 명령하였다. 그 후 호풍 반대운동이 전개 되었을 때「인민일보」는 호풍이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통을 입수하여 이것을 공개했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나는 연안에서 모가 행하 강의를 옹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나는 진질머리가 났다. 이렇게 이와 같은 설어빠진 동물(모(毛)를 가리켜서)이 생겨났을까? 모가 노변을 안다는 것은 뽕간 거짓말이다.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공포>

축배(祝杯)

김상태(金相泰)
<공군소위>

언제나 그런 것처럼 김 병장은 그가 정비한 비행기가 착륙하기 까지는 아련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이륙하기 전에 시간이 닿는 대로 점검할 곳을 거듭 살펴보긴 하지만 막상 비행기가 고공으로 쏜살같이 달려 올라간 뒤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오늘은 채소위가 숙달점검을 받는 날이 아닌가?

김병장은 시원하게 트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군침을 꿀꺽 삼켰다. 어쩐지 그는 채소위가 마음에 든다. 차라리 여자처럼 가는 몸매이긴 하나 어느 때나 재빠른 동작이었다. 옛된 얼굴에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으면 마치 은은한 향기가 도는 국화 옆에 선 것 같았다. 김병장은 다시 한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군침을 꿀꺽 삼켰다.

갑자기 귀에 익은 폭음이 그의 뒷전으로 날아들었다. 김병장은 반사적으로 폭음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그렇다 채소위의 애기(愛機)다.

「테일 넘버 647」 채소위의 말을 빌리면 「마침내 행운이 오고야 만다」는, (채소위는 죽을 사자도 마침내 행운의 수 7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다) 날쎈한 세이버 F86의 용자는 어딘가 채소위의 몸매와 닮았다. 애기도 그의 주인을 닮는 것인가? 김병장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어 버렸다.

F86은 서서히 기수를 낮추며 활주로에 접근해 왔다.

『아마 교관도 입이 헤벌려지고 말걸』

김병장은 편취를 쥔 손으로 허공에다 커다랗게 원을 한 번 그리고는 일을 끝마치기 위해 다시 비행기 아래 누웠다. 그가 마지막 나트를 조이고 있을 때 박병장이 격납고에서 뛰어 나오며 소리쳤다.

『김병장! 채소위님한테서 전화 왔어!』

김병장은 토끼걸음으로 뛰었다. 수화기를 들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김병장이냐? 나 채소위네, 오늘 일과후 즉시 내게 오라……… 알겠어?』

『무슨 일입니까?』

『기압 받아야 할 걸 김병장!』

김병장은 수화기를 놓고 격납고에서 걸어 나오면서 고개를 가웃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정말 기압 받을 짓을 저지른 건 아닌가? 그러나 채소위의 목소리가 조금도 노기 섞인 건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하지만 위낙이 조용한 분이 아닌가?

김병장은 일과가 끝나자 채소위가 있는 BOQ를 찾았다.

채소위는 김병장을 보자 그의 독특한 웃음을 싱긋 웃으며

『오케이, 출발!』하고 소리쳤다.

『어디로 말입니까?』

『흠! 글썽 어디로 갈까?』

채소위는 잠깐 묘한 웃음을 눈으로 흘려보내더니

『김병장은 무조건 따라 오기만 해요』한다.

『기압은 안 받는 겁니까?』

김병장은 그제야 마음을 툭 놓으며 이렇게 물었다.

『기압? 아 그거 말이지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하지!』

채소위는 대뜸집으로 쭈욱 들어섰다.

그는 김병장에게 큰 대뜸잔으로 약주를 가득 딸아 놓고는

『이 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나? 김병장!』

『숙달점검을 무사히 끝냈다는 뜻?』

『또?』

『오라 채소위님이 얘기를 타신지 꼭 일주년이 되는군요!』

『김병장은 확실히 머리가 좋아! 처남 자격은 충분한 걸!』

『처남 자격이라고요?』

『앗차! 그건 실수……』

채소위는 재빨리 입으로 손을 갖다 대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러나 묘한 웃음이 눈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김병장이 놓칠리 없다.



『그 보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취해진 말하자면 에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지!』

『뭐가 굉장히 어렵군요!』

『김병장, 나는 김병장이 마음에 드는데 김병장은 어때?』

『내가 여자라면 반해버렸을 겐니다!』

『음, 그럼 나도 합격은 된 모양인데… 김병장, 누이있지?』

채소위의 눈에는 역시 알듯 말듯한 웃음이 지나가고 있었다.

『있긴 하지만 아주 고집이 세고 말예요, 공부밖에 몰라요 게다가 나한테 여자친구라도 놀러 올리치면 되려 필필뛰는 거예요!』

김병장은 말을 잠깐 끊었다 다시 이었다.

『자긴 말예요 설혼까진 연애고 결혼이고 아무것도 안한대요, 밤낮 빠다귀나 만지지 늑골, 척골, 우거지골하고 외우기만 하거든요 채소위님, 여의사하고는 절대로 연애하지 마세요, 키스하다가도 아파!』

요 입술이 무슨 근육으로 운동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 이것 야단인데…… 내 애인이 바로 여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의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음……그런데 김병장』
 『네?』
 『부리핑 자신 있나?』
 『네?』
 『부리핑 자신 있나?』
 『부리핑이라니요? 오늘 저녁은 말의 비약이 심해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네 확실히 술이 작구먼』
 채소위는 대폿잔에다 술을 가득 따라 김병장에게 넘겼다.
 『실내가 오는 십일부터 휴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말야 김병장도 알다시피 십이일부터 에이디엑스(ADX)가 있잖아? 대대장님 말씀이 이번「에이 디엑스」에는 꼭 내가 참가해야 된다는 거야 대대장님의 말씀도 말씀이려니와 팔리화이(술달)가 된 후 최초이니만큼 나도 꼭 참가하고 싶단 말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다음이야』
 채소위는 잠시 말을 끊고 김병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옛된 얼굴 전체가 술 기운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휴가 중 나하고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 이 분은 지금 모든 스케줄을 짜고 그의 친구들과도 캠핑이니 뭐니 하여 단단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날짜를 연기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의 여름 방학이 이 열흘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좋은 기회를 마련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느냐 이것이 김병장이 말아야 할 내용이고, 임무란 거야』
 채소위는 장난 낀 어린 눈을 구르며 이제 홍시처럼 익은 얼굴로 김병장을 넘겨보았다.
 『대체 상대는 어떤 분입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게 돼… 그런데 이 분의 말씀인즉 날짜를 어기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다는 것이야, 이런 위협도 있어』
 『아, 그럼 여자분이군요』
 『그렇지』
 『그럼 부리핑 자격이 없어 기권해야겠습니다』
 『아니 절대고 그렇지 않아! 김병장이야 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거든, 하여간 이 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한 수은준가 기압인가를 단연 가할 작정인걸』
 『하 이것 야단 났는데……』
 채소위와 김병장이 대폿집을 나올 때는 둘 다 얼굴이 익어 있었다.
 채소위와 김병장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방(카스바)로 들어섰다. 그러나 채 몇 발자국을 걷기도 전에 김병장은 딱 서버렸다.
 『누나 여기 웬일이야?』
 『어마, 넌 웬 일이냐?』하더니 그 여자는 고개를 채소위 쪽으로 돌리며 『위반 건수가 세건, 아시겠어요?』한다
 『하하하』
 채소위는 유쾌하게 웃어제끼는 것이었다.

『할수 있어야죠. 응원대가 없으면 고전을 면치 못할 텐데 어떡합니까?』
 채소위는 싱긋싱긋 웃으며 정숙의 눈 흘김을 받아 넘겼다.
 『어이! 김병장! 이 귀여운 아가씨의 고집이란 굉장해, 자 지금부터 부리핑 위임한다. 김병장』
 『누나의 고집이란 옛날부터 이름 있는 것이니깐…… 허지만 채소위님 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와 북어는……』
 김병장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채소위는 용기를 얻은 듯이 얼른 말을 이었다.
 『두드려야 맛이 난다 이 말이지 아얏』
 채소위의 팔뚝을 정숙이 힘껏 꼬집어 뜯은 것이었다.
 <30 경보전대 308 경보대대>



◇어린이말에도

극작가「젠킴스·바리」(1860-1963)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다. 그 집 아이는 상에 놓인 과자를 엄청나게 집어 먹었다. 어머니가 몹시 꾸짖었다.
 『배탈이 나요 하리!』그래도 아이는
 『엄마, 나는 오늘부터 배탈이 나볼까 생각해요』하고 그는 한 접시를 옮겼다.
 옆에 있던「바리」는 이 아이의 말에 감동했다. 그리고 이제 했던 말의 문장화된 저작권을「시링」으로 팔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은 파리의 유명한「피타·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냐 이것이나

어느 젊은 무명작가가 자기 작품을 감정해 달라고「쇼」에게 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직접「쇼」를 만나러 가서, 적어도 원고는 돌려 달라고 말했다.「쇼」는 원고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젊은 작가는 자기의 원고를「쇼」가 팔아먹었다고 화를 내었다. 그러자「쇼」는 젊은 작가의 손을 이끌어 커다란 책장 앞에 가서 말했다.
 『이 속에 있는 원고는 모두가 나에게 보내온 작품들이었다. 자네, 미안하지만 이속에서 자네 마음에 드는 것 3편쯤 골라가 주게나』

◇「이락」신문의「카스트로」평

최근「이락」의 신문은「카스트로」를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그는 그의 혁명노선을 자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강대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카스트로」는 아무리 혁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토를 다른 어떤 나라의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수필(隨筆)>

차창(車窓)에 비쳐지는 것

김열희
<공군중위>

나는 요지음 매일같이 백리길이나 되는 S에서 통근을 하고 있다. 전에는 S까지 통근버스가 운행되었는데 한달전부터는 무슨 일지 몰라도 갑자기 그 운행이 중지되고 A읍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A읍서부터는 할 수 없이 시외버스편을 이용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별반 불편한 것도 없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그건 하루에 꼬박 왕복 버스비로 20원씩, 한달이면 500원이 달아나는 판이다. 그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못 된다는 것 뿐이다.

이런 반면에 좋은 점도 많다 하루 두 번씩 변화 없는 시가지를 왕복하는 것 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외의 풍경이 지루하고 초조한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달래어 준다. 국도변의 야산에 만발했던 진달래꽃이 지는가 했더니, 어느새 보리 이삭이 차츰 살찌가고 있다.

이런 자연계의 변화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풍토와 기후의 변화에 따라 세태와 인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멋진 일이다. 시외버스를 타면서부터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짧은 여행을 함께 하게 될 것인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걸어 본다. 혹시 내가 비어둔 자리에 인형처럼 예쁜 아가씨를 맞이하게 되거나 않을까?

그러나 이런 막연한 희망은 그렇게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또 실현된다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게다. 오히려 꾸어온 보릿자루처럼 뻗뻗하게 앉아 점잔을 빼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자세로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보람있는 일일는지 모른다. 날마다 새로운 인간측면을 관찰하면서 요지음의 물정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내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 써비스 공장으로 행세하면서「자동차수리전문, 밋테리충전, 모비루」라는 선전간판을 커다랗게 써 붙인 바로 그 자리에 갑자기 대포집이 생겼다.「대포 한잔에 5원합니다」흰 모조지에 얹전하게 쓰인 소박한 광고지나 붙어 있었다.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아주머니의 서글서글한 모습을 보지 않고도 상상해 보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은 출입구인 유리창문에다 흰「페인트」로 커다랗게「왕대포」라고 석자만 덩그러니 써 있었다. 나는 불과 얼마 동안에 이처럼 변모해가는 이 대포집의 흥망사를 머릿속에서 나대로 추측하면서 세태의 무상을 새삼스럽게 느껴본다.

대포보다도「왕대포」가 술꾼들의 생리에 맞는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머리를 짜고 짜서 PR의 효과를 최대 노린 것임에 틀림없다.

한때「뽕」을 일으켰던 대포집도 한물 지난 모양이어서 요지음은 뚝한 모양이다.

그러기에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자극적인 용어로서 손님 끌어들이는가

보다 하루 두 시간 동안 차속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가끔 용어가 현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대로 분석해 본다. 그 하나가「마담」과「마님」의 시비다.「마담」은 외래어니까 순수한「우리말」도 도로 찾기」식으로 따진다면「마담」을 마님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지만 마님이 우리 언어사회에서 대중화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의 언어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다방에라도 나가서「마담」에게「마님」이라고 불러 보라. 모르긴 해도 아마 심중팔구는「아니, 뭐라구요? 이 양반이 돌지 않았나?」하구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다.

Madam 이거 Manim이건 간에 따지고 보면 Dam 과 Nim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듣는 측으로 보면 여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랜 국어생활을 통하여 얻은 언어관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런데 이걸 기어코「마님」이라고 고치겠다는 한글 학자들의 고집도 여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저 딱하기만 하다.

어저께는 A읍에서 마침 대머리 신사옆에 자리를 잡았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이며 배가 푹 튀어 나온 타입으로 보아 사장이나 전무쯤으로 보기 쉬운데 어떻게나 뚱뚱한지 옆자리에서 숨도 크게 쉴 수가 없다. 차속에서 별별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나는 특히「대머리」까진 사람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S상사의 경우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난번 장춘체육관에서 한일 친선 농구「계입」이 열렸을 때 사복으로 말쑥하게 갈아입은 S상사는 정부요인들만 출입하는 곳으로 의젓이 들어갔다. 경비 헌병이 친절히 좌석까지 안내해주어 특등석에 관찰하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좌우를 살펴보니 자기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 박의장이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경우는 그의 독특한「대머리」와 선천적인 그의 풍채가 예기치 않았던 이득을 준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이런 어련에 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잠깐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직도 차는 국도 위를 달리고 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묘령의 아가씨는 아직도「뽕」을 씹고 있다. 그런데「뽕」이 인체 특히 구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요지음 가만히 보면 젊은 숙녀들 간에「뽕」의 애용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좀 신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도 암전히 잠수신다면 몰라도 이젠 시발점부터 사뭇 딱 딱 소리를 내는 데는 정말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민망스럽다. 여자의 속성으로 신은 정숙과 미를 주었다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서 숙녀의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뽕」수요량의 증가는 새로운 투자를 자극하게 되어「뽕」산업의 육성이라는 면으로 볼 때에는 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모든 애용가제위에서 감사장이라도 낼 법도 한 일인데

불구

김동현
〈하사〉

구만리 세상이
좁다란 울타리
뛰는 재주 잃어
절름 절름
서서 앉은 것
앉은 것이 선것
어미 뱃속은
모두 같은데
사랑이 모자라
하나이 짧은가



(본부사령실)

아직 그런 소식이 안들리니 그런것도 아닌가?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에게 죄스럽다. 그래서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차장녀석을 흘겨보며 호통을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도시(都市) 틀려먹은 것이 도중에 내리는 손님은 사뭇 물건취급이다. 「○○내리실분 하차준비를 해주십시오」이렇게 한마디 있을 법한 일인데「안시오? 안시오? 안시오면 통과합니다.」사뭇 독재적이다. 손님이 미처 발을 땅에 대지도 않아서「오라이야」봉.

하지만 그래도 국도주변의 풍경은 아름답기만 하다.

◇카스트로의 망발

1955년「큐바」의 정권을 탈취한「카스트로」는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겠노라고 외쳤다. 그러나 토지를 빼앗은「카스트로」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기는커녕 지금에 와서는 전국의 농토를 국유화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님 · 이제(二題)

박목월(朴木月)

1

섬섬한 전주백지.

부끈하고 부드러운 전주백지

아자문(亞字門)에 어울리는

그

다습고 질긴 숨결.

그

안 존한

그

親熟한 세계.

조용한 고향을.

금자동아 은자동아

우리자기 잘 자는

문을 바르자.

백지로 밝힌 방안에

금자동아 은자동아

만금같이 귀한동아

2

아아

실팍하고 단순하고

강인한 선.

한국미학의 정수.

그

추녀 끝에서

멀찌암치

생동하는 청점(靑點) 하나.

목단(牧丹) 한그루, 환한 꽃자주빛

모란꽃 한송이

민주주의 원리 ③

이극찬(李克燦)
〈연세대 교수〉



민주주의의 이념

온 인류는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려고 오늘날 까지 긴 역사를 두고 피어린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즉, 온 인류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 때로는 포악한 전제군주와 싸우고, 때로는 봉건귀족과 싸우고, 때로는 완강한 교회세력과 무지한 인습과 그리고 때로는 잔인무도한 독재 권력과 싸워가면서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인류의 줄기찬 역사적 투쟁과정 속에서 생겨진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이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절실한 염원에서 생겨진 보편 타당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자유와 평등」을 그 근본적인 이념으로 삼는다.

(가) 자유의 문제

그러면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일찍이 프랑스의 사상가인「몽테스큐」가「자유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영향을 준 말은 없다」라고 말 한 바와 같이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간결하게 자유개념의 정의를 내린다면「강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강제라는 말 대신에 압박이라든가 구속 또는 제한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아도 무관하다. 하여간「일체의 강제에서부터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구속과 강제와 제한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사」하는 말은 이런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대문호의 한 사람인「빅토르·유고」는 인간에게는 세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의 싸움이요 셋째는 인간의 자기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의 싸움이다.

안전을 희구하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의 횡포에 항거하여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인간들이 이 자연의 횡포에 항복하게 되면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집을 지어 엄동설한에 대비하며 방축을 높이 쌓아 올려 대홍수를 막으려고 싸워 나간다.

둘째로 인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인간이란「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인간다운 점은 인간과 인간과의 결합에 있다.(Ott Gierke)라는 말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은 결코 고립된 개인적 생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천사도 아니요, 야수도 아닌 중간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한편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추잡한 투쟁을 감행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영기에 개인과 개인과의 충돌이 생기며 또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생겨진 국가 권력이 난폭하게 되면 이는 국민생활의 자유의 침해로서「자유와 권력」「자유와 국가」라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원래 인간은 그 출생과 더불어 반드시 어떤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마련임으로 이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사실 인간의 자유획득의 역사는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그 중심내용을 이룬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란「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은 그 성질에 따라서 정치적 행동, 학문적 행동, 종교적 행동, 예술적 행동, 경제적 행동, 교육적 행동...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국가에게서나, 교회에게서나 또는 어떤 단체에게서 아무런 강제도 구속도 받지 아니 할 때 그곳에 정치적 자유가 있다. 종교적, 경제적, 및 사회적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사회적 행동을 할 때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를「시민적 자유」또는「사회적 자유」라고 말한다. 시민적 또는 사회적 자유로서는 (1)신체상의 자유 (2)상상의 자유 (3)정치상의 자유 (4)사회상의 자유 (5)종교상의 자유 (6)경제상의 자유 (7)단결의 자유 (8)이동의 자유 (9)양심의 자유 (10)언론과 출판의 자유.....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른바

자유주의자가 부르짖는 자유란 대체로 이와 같은「시민적 및 사회적 자유」를 말한다.

셋째로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싸움에의 승리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비록 외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제와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어떤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가 또는 어떤 감각적 욕망의 포로가 된다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 지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자유라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모든 그릇된 욕망과 충동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적극적 자유 또는 외적 자유는 실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유는「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사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외적 억압과 강제 및 내적 협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속과 협박에 지배된 행위는 그것이 표면상으로 아무리 자발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의미의 자유로운 행위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강제와 구속 및 협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써 자유의 충분한 내용을 전부 갖추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만일 그와 같은 외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만으로써 참된 자유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면 허허 넓은 벌판에 탈출한 고독한 개인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야 말로 아무런 외적 압박과 내적 협박 없이 자기를 자유로이 활동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로빈슨·크루소」의 이야기를 세삼스럽게 인용할 필요도 없이 만일 어떤 인간이 외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후, 자기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없는 적극적인 수단을 하나라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와 같은 개인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란 말 할 필요도 없이 행위하기 위한 자유이다. 그런데 행위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어도 행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행위자에게 갖추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외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만으로써의 자유는 결코 구체적인 자유라고는 말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행위의 목적이 아주 소극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테면 홀로 외따른 곳에서 사색을 즐기려는 자유

와 같은 소극적인 자유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로 즐기려면 조용한 방과 얼마간의 책자와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그렇게도 바라 마지않던 자유를 도리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여「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적극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영국의「라스키」교수가「구속의 결여」에 자유의 본질이 있다는 소극적인 자유 관념을 배척하고 자유에「최선아를 실현하는 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부여하게 된 것도 요컨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대국가는 온 국민들로 하여금 일체의 부당한 외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를 일명「봉사국가」또는「적극국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평등의 문제

평등은 자유라는 말과 더불어 근대정치사상 특히 민주주의사상의 중심적인 근본개념을 이루고 있지만 이말 역시 모든 정치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 평등 운운하는 것은 당연히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떤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한(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른바「자연적 평등」이라는 관념은 역사 이전에 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고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원시적인 평등관으로부터 근대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평등의 요구가 생겨지기까지는 실로 수 천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등이라는 것은 신분, 재산, 종족, 성별, 노유... 등에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불평등 속에서 신음해 왔다. 그런데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인간평등사상에 크게 공헌한 것은 희랍말의 스토아 철학과 특히 기독교사상 및 근대철학사상 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랜 역사를 두고 인간이 싸워서 얻은 근대적 자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정치적 평등, 이것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였던「답벤」은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만 계산할 것이지 결코 아무도 두 사람 이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투표에 있어서 1인1표주의(One-man one-vote)를 천명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에 부여된 1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수가 있지만 사실 인류는 이와 같은 1인1표의 원칙을 확립해 놓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이다.

(2) 법앞에서의 평등. 이것은 못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 즉 누구에게나 법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신분상의 평등. 이것은 사회적 신분상에서 아무런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세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신분을 양반과 상놈으로 분류하여 양반에게는 절대적인 사회적 특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4)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과 경제적 평등. 특히 이 경제적 평등의 문제는 현대의 사회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망리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배고픈 자유」「가난한 자유」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 자유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간들은「자유냐, 빵이냐」가 아니라「자유도 빵도」아울러 보장되기를 원한다. 즉 현대의 자유민들은 빵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자유를 빼앗는 체제를 배격하는 동시에 또한 그와는 반대로 자유를 약속해 주되 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도 이를 배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평등의 문제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간주할 수가 있다.

요컨대 자유의 이념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개인은 각각 그 개성을 자유롭게 또는 충분히 전개시킬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비단 법적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 것은 결국 기회의 균등을 보다 더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평등의 현실이란 결코 평균적 수준으로 하나같이 끌어 올린다는가 또는 최저선으로 모두 하나같이 끌어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각각 그 개성에 따라서 최고의 것으로 되리라는 것을 기대케 하는 것이 곧 평등의 이념인 것이다.

이상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간주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이념은 오히려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만일 자유를 절대화시켜 무조건 또는 무제한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평등을 부정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이번에는 평등을 절대화시켜 무조건으로 또는 무제한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원래 많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마침내 자유를 상실하는 결과에 떨어질 것이 또한 확실하다. 이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절대적인 이념으로서 생각하게 된다면 이 두 이념은 도저히 조화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절대적인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보다 더 높은 이념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사람의 인격의 존중과 그 보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이란 일찍이「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인격은 그 자신이 자기 목적이므로 결코 어떤 것의 도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다. 이것은 못 사람의 인격은 근본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따라서 못 사람의 기본적인 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꼭 같은 자유를 못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로서 인정하며 또한 꼭 같은 권리를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사회란 단지 권리와 자유만으로서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은 동시에 질서 있고 우애에 가득 찬 공동생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약육강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무질서의 상태를 보인다면 그곳에서는 못 사람의 인격의 존중과 그 보호는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는 봉건적 또는 독재적인 생각에 단호히 항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격의 존중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보장되는 이른바 자율적 인격이 하나의 공동생활을 형성하여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짐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무릇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라든가 또는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리와 같은 자의와 방종은 좀처럼 생각할 수가 없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만일 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과 꼭 같은 자유와 권리를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하여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만일 오직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든다면 그것은 일종의 무정부적인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무정부적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 자기의 자유와 권리도 마침내 안전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 상호간에서 맺어지는 우애의 감정에 뒷받침됨으로써 비로소 이룩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이념은 말하자면 조리와 도의를 존중시키는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이념은「힘의 정의」가 아니라 도리어「정의야 말로 힘」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에 있어서만 비로소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단체적으로 종합시키는데서 비로소 그 고유한 이념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자주 대립과 충돌을 보기에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요소를 각각 분리시켜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수립은 이를 단념할 수밖에 없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종합시킬 수 있는, 즉 그 종합의 정점에서는 하나의 최고이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인간인격의 준중」이라 할 것이다.

◇굉장한 형용사

「리처드.L.위커」씨는 모택동의 개인숭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Encounter 1960년 6월호서 말했다. 인민일보 1958년 10월1일자는 모택동의 개인숭배 사상을 복돋기 위해서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대목이 있다「모 위원장은 무한히 친절하며 수많은 노래도 그를 찬양하기에는 족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무를 펜으로 하늘을 종이로 그리고 태평양을 잉크로 쓴다 하더라도 그를 충분히 찬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중공치하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 속에서 모택동을 묘사한 글 속에서「겸손」「온순」「친절」「단순」「성실」「다정」「자애」등 형용사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읽을 것이 없어 진다라고.

◇중공에 가짜 상품범람

중공에는 최근 일반 소모품이 부족하여 가짜상품이 범람하고 있다고「홍콩」의「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 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중공은「인플레이션」과 가장 필요한 생활 소모품이 심각한 부족으로 시민들은 가짜상품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비판 (3)

김창순(金昌順)
〈시사평론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자본주의관(資本主義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멸하는가?

1

북한 공산당에서 발행한「정치경제학독본」(1860년판) 제1장 제1절에『자본주의 사회는 그 내부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멸망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여 사회주의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교체되게 되는 전제조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준비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오랜 발전과정을 통하여 대 기계공업을 창설하였으며 생산을 고도로 사회화 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교체되는 물질적 전제조건을 이룬다.』

이상의 구절은 공산주의자들의 자본주의관을 그대로 말하여 놓은 것이다.『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사멸하며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조건』으로서 그들은『자본주의 사회가 오랜 발전과정을 통하여 대 기계공업을 창설하였으며, 생산을 고도로 사회화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러한 조건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멸하였다는 사실을 인류사회는 아직껏 경험한 일이 없으며, 또 그러한 전망도 없다. 자본주의가 오랜 발전과정을 통하여 대 기계공업을 창설하고 생산을 고도로 사회화한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일찍이 영국을 비롯한 서 구라파의 선진공업국가등과 미국이지만 그러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사멸했거나 사회주의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교체된 사실은 없다.

「맑스」가 백년전의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있어『자본주의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갈등에 빠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사멸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맑스」의 이러한 결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집중되고 있으며 대 기계공업, 기계화된 운수, 상업 및 은행기관들이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나 소유관계는 사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사회화된 생산을 이윤추구와 치부를 위하여 이용한다. 그리하여

1,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 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으로 인하여 생산력의 발전은 저해되며 기아와 빈궁이 지배된다.

2, 이 모순을 해결하며,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관계를 적응시키기 위하여는 사회주의에 혁명적 이행「푸로레타리아」혁명이 불가피하다.

3,『푸로레타리아』계급이 자본주의 사회를 매장하여야 할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지니는 것』은 자본주의가 대 기계공업을 창설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한편「푸로레타리아」계급을 무자비한 경제적 처지·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들(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멸망시키는 가장 혁명적 선진적 계급으로 된다는데 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한「맑스」주의자들의 견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옳고 그릇되었는가?

첫째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 된다는 것과 생산이 집중되어 대대적인 산업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일체의 소유관계가 사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남으며 자본가들이 생산을 이윤추구와 치부를 위하여 이용한다는 지적은 그 전부 또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오기 백년전 「맑스」가 살고 있었던 그때의 사업자본주의를 분석함에 있어 그러한 지적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후 1세기 동안을 두고 여러 가지 점에서 자기 체계내의 모순을 탈피하여 왔다. 그러므로 백년전의 「맑스」의 이러 저러한 지적이 오늘의 자본주의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것만도 사실이다. 과연 오늘의 자본주의 기업은 법제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 백년전의 그것과는 달라서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규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 될수록 더욱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맑스」주의에서 말하는「자본가들은 사회화된 생산을 이윤추구를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지적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맑스」는 자본가들을 탐욕의 무자비한 경골동물로 보았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한 자본가들에

의하여 꾸며지며 지배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탐욕은「푸로레타리아」계급혁명이 있기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규제할 수가 없다고 단언하였는데 이것은 확실히「맑스」의 그릇된 독단으로 되어 지고 말았다.

선진공업국가의 자본주의 사회가 말하여 주듯이 자본가들은 그 모두가 무자비한 탐욕가들도 아니며 또 무자비한 탐욕가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무자비한 탐욕을 무한대로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게 되었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만 돈을 벌 수 있게 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으려는 투쟁(노동조합운동)을 벌여서 사회적 생산을 분배로 합리화 시키는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사기업은 내적규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맑스」와 그 동조자들은 무시하였고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또 제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즉「맑스」가 생존하던 시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처지와 권익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실현되었으며 재산의 편중을 방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탐욕만을 추구시키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며 방지하는 균형사회에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맑스」가 지적한 일체의 소유관계가 사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남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자본주의의 사멸조건-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 체질의 자기탈피작용에 의하여 해소 되어 갈지언정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둔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은 구형자본주의의 수정에 의한 신행태의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과 전진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러한 자본주의의 수정이 자본가들의 자비심과 자각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냐? 또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의한「투쟁의 선물」이나? 가 문제점으로 되어 진다.

공정하게 말하여 자본주의의 수정과정은 자본가들의「인도적 입장과 각성」에 의한 자발적 측면도 있고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의한「투쟁의 선물」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맑스」와 그의 동조자들은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 의한 평화적 수정이 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물론「맑스」도 한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백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모든 과학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발견, 하나의 정의가 만대를 두고 완벽 하라는 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1세기전의「맑스」의 학설이하는 것도 주로 그 당시의 서구라파적 조건과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의 이러저러한 부정적 요소를 지적한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바이지만 그것이 만대를 두고 완벽한 사상이라고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잘못이다.

왜하면 역사는 언제나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맑스」가 추정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보수파 공산주의자들은 오늘에 있어서도「맑스」주의를 그대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변화되고 수정된 자본주의를 백년전의 그 대로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이것을 말하여 교조주의라고 공격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전자는 중공의 모택동과 이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말함이며, 후자는「호루시쵸프」와 이에 동조하는 자들을 말함이다.「호루시쵸프」는 오늘의 자본주의가 백년전의 그것과는 다르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과학주의이니만치 공산주의자들은 현실무시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모택동 주의자들은「맑스」,「레닌」주의에 규정되어 있는 자본주의관이 오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정당하다고 우겨대면서「호루시쵸프」노선을 수정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모택동은 보수파 공산주의를 대표하고 있고「호루시쵸프」는 진보적 공산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다.

2

근대시민사회의 발달과 현대의식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사회의 소위 노자모순은 절대로 구출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기체계로 탈피작용에 의하여 얼마든지 수정되고 극복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유혈적 계급전쟁을 밟아야 한다는 철칙(鐵則)은 벌써 시대에 뒤진 비문명적 야만주의로 인정된다.

본시 인류사회는 계급투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계급협동, 계급협조에 의하여 발전하여온 측면이 더 많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지라도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지옥으로 이끌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자쌍방의 역사적 사명으로 되어 있을지언정「푸로레타리아」계급이「부루조아」계급을 때려눕히는 유혈적 방법으로 기아와 빈궁을 면해야 한다는 비문명적 폭력주의는 문명한 사회일수록 더욱 배격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자 자성의 반성과 탈피능력 그리고 대중교육의 보편화에 의한 노동계급의 문명의식의 각성이 배합되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양보, 타협의 조화라기보다 현대사회의 합리주의의 추구인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말하여, 노자협조주의라고도 말하며 또한 그러한 것은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탈락이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과정은 한때의 이상주의자들이 창도한 단순한 노자협조주의도 아니며, 현대의식의 지향, 현대인의 이성에 의한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은 확실히 자기 탈피의 길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더욱 전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사회주의에로의 필연적인 혁명」이 아닌 다른 길을 밟아서 오늘의 선진 공업국가를 실현시킨 선구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다.

과연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도 법치 국사상을 내던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행동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쟁의, 파업수단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가 있었다.

자본가들은 의회입법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맑스」주의에서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해 버렸지만 지금 실제하는 현실로 되어졌으니 이래서「맑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오진했으며 패배하게 된 것이다.

「맑스」주의를 패배시킨 조건들 가운데는 같은 민족 이기전에 계급이나, 또는 계급 이기전에 같은 민족이나의 다룰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문명수준을 이룩하였다는 점이 있으며 또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국제협조주의 이어야 한다는 각성과 어느 것이 과연 정당하며 국민대중을 위한 것인가의 가치창조와 평가에 있어서 옳은 기준과 제도를 발전시킨 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을 당시의 눈앞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맑스」의 머리 가운데 그려지지도 않았던 일이다.

여름구름

글·그림 김기창(金基昶)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특히 여름에 숨처럼 피어오르면서 천태만상으로 이루어지는 웅장한 여름구름을 좋아한다. 남성적일뿐 아니라 여름 구름을 바라보면 한없이 마음이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드는 듯하고 가슴이 한 아름 무엇인가 뿌듯하게 채워지는 그림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러기에 예부터 여름 구름을 가리켜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峰)이라고 했다. 층층이 쌓여 변화는 흰 구름에 마음의 고향을 찾아 헤메보고 싶기도 하다.

언젠가 일본에 여행갈 때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다. 오색을 띤 솜마냥 부드러우면서 고옹게 흐르는 것에 그만 매혹당하여 뛰어내려 뒹굴어 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이무튼 나는 구름을 좋아한다. 특히 여름구름의 하운다기봉

을 무척 좋아한다.

언젠가 다시한번 비행기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보고 싶기도 하다. 김립의 하운다기봉의 시를 여기 옮겨 본다.

한봉 두봉 세네 봉이오

다섯봉 여섯봉 칠팔봉이라.

잠깐 동안에 다시 천만봉을 지으니

구만장천이 모두 구름 봉우리로다.

<수필>

해방전후(解放前後)의 추억(追憶)

-시(詩)의 배경(背景)을 위한 자서(自叙)-

조지훈(趙芝薰)
<시인>



민족해방의 달 8월에 대해서 무어든지 써달라는 편집자의 시를 받고 문득 생각해보니 해방을 맞은 것이 어느덧 19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겪은 참담한 역사적 현실은 그날의 감격과 부풀은 소망도 아랑곳없이 이젠 해방의 달 8월이 돌아와도 아무런 감격도 못 느끼게 만들고 말았다.

지난달의 추억이란 대개가 즐거웠던 기억은 이내 잊어버리게 되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이나마 오랫동안 남아 있기로 마련이다. 여행의 추억이 아름다운 것도 그것이 무슨 괴로운 파란이 있었을 때가 더 소중한 것, 홀려간 괴로움을 물려앉아 반추함

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을 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정인 것이다.

태평양전쟁의 발발·일제가 대미 선전을 포고한 소식을 나는 절간에서 들었다. 그해 이른 봄에 학교를 갓나온 나는 스물두살짜리 애송이로 사찰경영의 불교 전문 강원의 외전강사란 자리를 얻어 소란한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무렵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장>등 우리말 신문잡지가 모조리 강제폐간되고 일어상용 창씨개명, 학병, 징병등 소위 황민화정책이 노골화되어 우리 민족과 문화가 송두리채 말살되려던 때여서 이 십산의 절간이라고 편안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다. 감시와 박해속에 실의낙백(失意落魄)의 가증이란 표현을 상상하면 짐작이 갈 것이다.

벗이라곤 술밖에 없는 이 유중(由中)의 일년간을 그래도 나는 연약한 정신의 자세를 가누려고 애썼다. 나의 선(禪)은 삶과 죽음만을 생각하는 선. 시도 초월한 세계의 안주할 수가 없었다.

그 무렵에 쓴 20여편의 시는 거개(擧皆)가 비탄의 시로서 그날의 나의 생활과 심정이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두편을 뽑아본다.

야외면 야월수록
살찌는 혼
별과 달이 부서진
샘물을 마신다.
젊음이 내게 준
서릿발을 칼을 맞고
창이(創痕)를 어루만지며
내홀로 쫓겨 왔으나
세상에 남은 보람이
오히려 크기에

풀을 뜯으며
나는 우노라
꿈이여 오늘도
광야를 달리거라
깊은 산골에
있이 진다 (암혈(岩穴)의 노래)
곳은 비 내리는 밤은 깊어서
내 이제 꿈결속에 외로이 부딪치는 바
위와 같다.

두터운 벽에 귀 대이면
그래도 강물은 흐르는 것이고
거센 물결위에 저멀리
푸른하늘이 보이는 것을-
바람에 목마른 젊은 혼은
주검도 향기롭게 그려보노니
사랑하라 세월이여 쓸쓸한 마을의 황토
기슭에

복사꽃은 언제나 피고 웃는다
깜깜한 어둠 속에 창을 열고
누구에게 어둠 속에 창을 열고
누구에게 불리운듯 홀로 나서면
거칠은 바람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아 작은 호롱불이
어둠 속에 오는가
나를 찾아 오는가 (바람의 노래)

나물만 먹고 사는 절간의 식생활이 독주를 과음한 탕으로 나의 건강은 말도 못되게 쇠약해 가고 있었다. 「싱가포울」합락의 보가 전해지자 왜경은 이 심산에도 축하행렬을 하라고 주지에게 명령했고 그날 나는 종일을 주막 뒷방에서 혼자 술을 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나는 전보를 받고 내려오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두어 달 휴양 끝에 몸이 회복되자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편찬을 도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소위 총독부시정기념일을 기하여 함흥경찰서는 조선어학회를 급습하여 여기에 조선어학회사건의 검거선풍(檢擧旋風)이 일어났고 나는 또 산중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어학회사건은 함흥영생여고에서 고 정태진씨에게 배운 어느 여학생의 구어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해 여름방학에 함흥에 갔던 정태진씨를 구속함으로 써 탄압의 계기를 삼은 것이었다. 내가 어학회의 일을 거들기로 작정된 것을 정태진씨는 모르게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명단에 들지 않은 것을 알았으나 나는 조만간 끌려 갈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 초조와 체념의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그때의 나의 건강은 끌려 가기만하면 살아나올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해방까지 쫓긴 이의 발걸음을 산암해정(山菴海亭)의 사이에서 방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경찰의 지시로 북해도행 노무정발에 걸리어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지병인 폐침윤(肺浸潤) 덕분으로 노무 감내 불능이란 딱지를 달고 장발을 깎기운채 놓여나온 것이 해방되던 해 3월달의 일이었다.

내가 해방의 소식을 들은 것은 8월 16일 황혼이었다. 고향집을 다니러 가는 길에 병사계 서기를 만나 징병일기생 후배들의 안부를 물었더니 해방이 된 것을 여태 모르느냐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이었다. 지금 서류를 모두 불태우고 한잔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나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을 바로 읍내로 달려갔다.

나와 같은 흥분으로 달려온 여러 청년 운동하던 선배동지들과 어울려 군민대회를 열고 친일파를 성토추방하고 26년간 고등계형사질 한 자를 문초하여 스파이를 적발하는 등등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심쾌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일이다.

첫째 남한 초유의 경찰서 접수다. 서장을 사택으로 물러나게 하고 무장을 해체하여 민간경찰로 바꾸었다가 대구에서 급파된 200명의 군대와 버티어 놓은 기관총의 위협아래 담판한 끝에 경찰서를 반분하여 공동 집무하면서도 끝내 무장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가진 채 치안을 확보한 일이다.

둘째 하곡공출(夏穀公出)을 계속하여 군내배급을 실시한 일과 촌민의 자연발생적인 보복과괴행동을 방지하는데 치안대로 하여금 술값을 가지고 가게 해서 몽둥이 든 촌민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읍으로 모이게 한 일이다. 관공서의 「가미다나(진책(神柵))」를 부수게 하고 전매청 창고를 털어 담배를 한 무더기씩 나누어 줘서 돌아가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퇴거할 일인들은 전매청 창고에 함숙을 시키고 보초를 세워놓았는데 군중들이 몰려오니 일인들이 튀어나와서 같이 만세를 부르며 어쩔줄 몰라 찢절매던 것은 정말 웃음없이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파괴와 살상은 하나도 없었다.

나를 징용에 몰아 넣었던 주재소수석녀석도 군대소집을 갔다가 종전 덕분에 되돌아와서 무사한 처자를 보고 진심의 감사를 하고 간 것은 물론이다.

셋째 국민학교를 다시 열고 교재를 쓰고 첨사판(瞻寫版)을 밀고 아동들을 읍내로 모아 그들 손으로 신사를 불태우던 일이다. 군정시대 국어교본 제1과에 실렸던 <무궁화>란 글이 바로 내가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 쓴 글인데 이것이 그 뒤 <주간소학생>이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어 교과서에 오른 것이다.

나는 조선어학회 여러 선배님들이 출옥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해 9월에 서울로 뛰어왔다. 조선어학회의 <국어교본>, 진단학회의 <국사교본> 편찬을 도우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교단에 서서 지금까지 나의 직업은 훈장노릇 밖에는 다른 종목이 하나도 없다. 오래 막혔던 젊은 정열은 해방을 맞아 거의 열광적으로 되었던 것은 지금 스스로 돌아보아도 미소로운 일이다. 반탁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민중운동 문화운동에 거의 다 일조의 성의를 바쳐보았다. 다만 내가 아직 한번도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과 관직뿐이다.

해방후 지금까지의 나의 이러한 생활과 처신은 나를 줄곧 격정과 흥분 속에 몰아 넣었으니 이제 겨우 일선에서 물러나 회고와 반성에 들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부질없이 학문과 건강에는 무위 결손의 세월이었음을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저 좋은 인생체험을 했고 내 정신의 자세에 상처를 입음이 없었다는 것으로 자위를 삼을 따름이다. 이제 해방직후의 시 두편을 붙여 그때의 역사를 헤아려 보기로 한다.

비가 내린다
목마른 땅우에
오뇌하는 생령의 가슴 우에
촉촉이 젖어들도록 비가 내린다.
거룩한 제단 우 타오르는 햇불아래
피로 물들인 잔을 들어
값진 희생으로 사라진 이와
파악한 황토우에 엮드려 울던 사람들
아 백성의 마음은 하늘이니라 나리는
비는
얼마나 달고 아름다운가
사슴과 비둘기 포기포기 푸나무도
조용히 목을 추기자
우리 다함께 바라거니
어린 무리를 이끌어
이 귀한 물을 홀로 탐하는이 누군가.
우리 다함께 바라거니
지나간 날의 공을 자랑하여
이 맑은 샘을 흐리는 이 있는가.
이리와 배아도 해오의 잔을 들어
마지막 목을 추기라

병든 겨레의 피를 빨던 입술에
아 백성의 마음은 하늘이여니
이 샘은 얼마나 달고도 두려운 것인가
비가 내린다
물소리 예련듯 새론 하늘이 트이고
풀향기 솟치는 언덕위에
여기 포근히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태초의 하늘에서 얻은 불길
아 백성의 마음은 하늘이니라 나리는
낮은 지혜의 저자가 탄다.
허물어져가는 성벽 위로
오늘도 헛되이 백일은 기울어
바람에 쓸리는 구름속에는
무수한 별빛이 부서진다
쫓겨난 생령의 울부짖음마저
이제는 고요히 잠들었는데
여기 들리느니 푸른 기왓장과
붉은 벽돌 조각이 터지는 소리
어두운 성문을 쫓개고
흩어진 사람들은 날이 새이면
또다시 이웃마을의
낮은 재목을 싣고 오리라

몇 번이나 지나간 집화(劫火) 속에도
오허려 타고 남은 병든 역사가 있어
서러울수록 고요한 이 걸음
아득히 아득히 먼곳에서
잔잔히 흘러오는 강물소리……<불타
는 밤거리에>



나라사랑

윤석중
〈아동문학가〉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아 놓고 오자거나, 두만강 물에 칼을 찌어 보자는 것은 강한 생각이요 간절한 소원임에 틀림없다. 38선이 우리나라의 허리를 줄라매어 허리 위쪽은 피가 안 통하고 허리 아래쪽만 말을 듣는 소아마비 환자 모양으로 반신불수가 된 이 강도에 목숨을 불이고 살아가는 우리네로서 나라 사랑의 최고 목표가 남북통일에 있음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큰 소리만 탕탕 친다고 조국이 통일이 되고, 굵주린 백성들이 땡땡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25전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면 평양까지 쳐 올라갈 수 있다는 등, 아침은 서울에서 자시고, 점심은 평양에서 자시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자신다는 등, 이불 속에서 활개를 치다가 남쪽으로 맨 먼저 내뺀 애국자도 있었지만은 나라 사랑이란 그처럼 누워서 떡먹기 같은 것이 아니다. 일이 너무 쉬어서 거저 먹을 때, 누워서 떡먹기라는 속담을 끌어다 대지마는 알고 보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어려운 노릇도 드문 것이니, 반듯이 누워서 떡을 한번 먹어 보라. 팔고물이 떨어지고, 떡이 목에 걸려 숨이 막히고, 체하기 꼭 알맞다. 이처럼 누워서 떡먹기조차 어려운데 아랫목에 가만히 도사리고 앉아서 나라 사랑이 될 말인가.

그러나 <나라 사랑>이란 애국자마나의 전매특허물이 아니고, 애국자가 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나라 사랑이야말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요, 모든 애국자

는 국민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소리 질러 명령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뒤를 따라야 하며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의 어진 마음을 지녀야 한다. 천문화학자 한 사람이 밤중에 별만 쳐다보고 가다가 우물에 빠진 것을 동네사람들이 건져주면서『왜 당신은 먼뎃것은 잘 보면서 바로 발밑에 있는 것은 못본단 말요』하고 나무랬다는 이솝 얘기도 있거니와, 나라 사랑이야말로 <가까운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만년 역사, 삼천리 강산만 돌추지 말고, 백두산이나 동해물에서만 해매지 말고, 우선 가까운데서 부터 우리들 생각이 미치는 일부터 우리들 손이 닿는 일부터, 남이 다 안하는 시시한 일부터 해 나가자.

조국 통일을 꾀하려면, 우선 우리네의 이중생활, 삼중생활부터 청산해야 하겠다. 8·15 해방을 맞은지도 어느덧 햇수로 열아홉 해가 되건만 <되다만 통일>이 우리 둘레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이다. 군사혁명 덕분에 서기와 단기를 뒤섞어 쓰던 이중년호만은 하나로 통일 되었지만은 음력, 양력의 이중과세는 크리스마스까지 한몫 들어 삼중과세로 되었으며, 글을 가로로 쓰고 세로로 쓰고, 같은 가로 쓰기에도 바른편에서부터 시작도 하고, 왼편에서부터 시작도 하고(이런 것은 글씨 현판이나 가게 간판에 많다), 한글만으로도 쓰고, 한자만으로도 쓰고, 두 가지를 뒤섞어 쓰고, 복장, 가옥, 예식은 말할것도 없고, 인사에 이르러서는 모자 벗고, 악수하고, 무릎까지 꿇는 삼중인사가 아닌가. 그야 모조리 다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력 낭비, 시간 낭비, 물자 낭비, 돈 낭비를 덜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활 둘레에서 <헛수고>만은 하루바삐 물리쳐야 할 것이 아닌가.

요즈음 한글학자 사이에는 <글본>이냐? 문법이냐?로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양쪽에 다 잘못이 있으니, 일정 때 감옥살이까지 해가면서 한글을 죽음으로써 지키신 그분네들이

어째서 8·15 해방 때 그 즉시 <한글 전용>을 서두르지 않고서 차차 하자는 등, 신중히 다루자는 등, 우리말을 마련하고 나서 없애자는 등, 이러한 피입에 빠져, 한글글자가 머릿속에서 곰팡이 쏘고, 한문 글자들이 여름철에 구더기 불어나듯 새로운 한자물을 무수히 새끼를 까게 만들고 나서 해방 19년만에 갈광질광한단 말인가. 통수부는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선생을 찾아가서 좀 싸게 배울 생각을 하였더니, 깎아주기는 커녕 잘못 배운 것을 뜯어 고치려면, 더 힘이 들겠은 즉 월사금을 갑절 내라고 하더라는 옛 얘기도 있지마는 한번 잘못 길을 들이면,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드는 것인데, 케케 묵은 한문투말을 무작정 퍼뜨려 놓고 나서 우리말로 바꿔쓰자니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지금 40대나 50대 사람들이 <예또>나 <마> 따위의 일본말을 양념으로 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이란 한번 익힌 다음에 물리치기가 지극히 힘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말본이냐? 문법이냐? 이런 문제는 여론도 여론이려니와 전문가들이 더 좀 따져서 정할 것이지만은 <당장 한글로만 쓰자>든가, <차차 한글로 쓰자>든가, <하는 수 없으니 섞어 쓰자>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낙착하기 전에 우리네가 서둘러서 낭패 없을 것이 있으니, <우선 쉬운 우리말로 쓰자>는 것이다. 선친이니, 가친이니, 춘부장이니, 대인이니 하는 말들은 한문글자를 떠나서는 분간할 도리가 없으니 아버지나 아버님이면 그만이요, 남의 아들이면 영윤이라고 안하더라도 <아들님>이면 그만이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편지에 적을 때 돈아(豚兒돼지새끼)라고까지 해서 짐승이하로 낮추어야 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택시 앞에 <공차>라는 알람표는 공짜차인지, 공군 차인지 알 도리가 없으니 <빈차>라고 하면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볼 것이요, 차 다니는 길목의 <서행>이라는 말뚝은 <西行>하고도 헛갈리니 <천천히>로 적으면 그만이요, 공사중인 곳에 <제차금지>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제차>금지며 자가용만 못다니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니 <

모든 차 못다님>하거나 그냥 <차 못다님>만으로도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아주 잣대얘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우선 우리말부터 소중히 알아 쉽고 아름답게 다룰 줄 알아야만 나라 사랑의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낱말에는 절 하나 획 하나 가지고도 별별 떨면서 자기 나라 글자나 말은 되는데로 적고 되는데로 지껄이면서 알아만 보면 되지 않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그 생각부터가 나라 망치는 수작이라 할 것이니 개미구멍으로 물이 새어 높이 쌓아올린 독이 무너져 버리듯, 내 나랏 것을 만만히 보고 절령하게 여기는 대수롭지 않은 <조그만 생각>이 엉뚱하게도 나라 사랑을 좀먹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주 꾸는 꿈

방기환(方基煥)
〈소설가〉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밤에 자리를 들면 가지가지 꿈을 꾸게 된다. 그런데 대개는 그 듯한 꿈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마련이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의 꿈도 종종 꾸는 수가 있다.

꿈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해석이 가해져왔다. 절실한 소망의 부산물이니, 그와 반대로 절박한 공포에서 버려지는 것이니 구구한 해석이 있다.

꿈이 소망이나 공포의 부산물이라면 한 가지 내용을 자주 꾀다는 것은 그 일을 지극히 바라거나 두려워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확실히 자주 꾸는 꿈에는 소망이나 공포의 표현, 혹은 재현일 경우가 많다.

쭈고 주워도 얼마쯤이라도 널려 있다. 동전이라든 은전이라든 비 온 뒤 길바닥에 얼마쯤이라도 널려 있는 것이다.

자꾸 주머니에 주워 넣는다. 그러면 서 물딱총, 세발자전거, 스케트…… 평소부터 가지고 싶었던 것들의 가격을 셈해본다.

동전이랑 은전은 얼마 쪼이라도 널려 있다. 자꾸 주서 넣는다. 사고 싶은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는데도 길에 널린 돈은 아직도 많다.

주머니란 주머니는 가득 가득 찼다. 이제는 돈이 지저워진다. 그만 돈을 피하고 싶어진다. 걸음을 돌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돌아선 길에도 돈들이 가득 널려 있다.

앞에도 돈, 뒤에도 돈, 그만 돈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다. 잠이 깨고 만다. 어릴 적엔 이런 꿈을 곧잘 꾸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 그런 꿈을 다시 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어릴 적이나 성장한 후에 나 다음없이 자주 꾸는 꿈이 한 가지 있다.

내몸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꿈이다.

날개가 돌은 것도 아니다. 두팔을 오 그러뜨리고 두팔을 허우적 허우적 저 으면 내 몸이 꼭 1미터 쯤 땅에서 솟아올라 날아가는 것이다.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때로는 50미터, 잘하면 100미터 쯤 날아갈 수 있다.

들판이나 한길 같은 평지에서라면 그 정도지만, 높은 산이나 언덕에서 뛰어내릴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날 수 있다.

나는 기분을 별 것이 아니다. 어릴 적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흔히 해보는 『개해염』을 치는 그런 기분이다. 말하자면 공기가 물과 같은 액체로 변했다고나 할까.

『이만하면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는데…… 넓이 뛰기 세계 신기록은 문제 없을 거 아냐』

소년시절엔 한 50미터 평지에서 날으곤 곧잘 이렇게 자랑했었다.

『인젠, 날라다니는 구두도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어두 이렇게 마음대로 날라 다닐 수 있는 걸』

이렇게 중얼거려보기도 했었다.

날아다니는 구두-

그것은 나의 어릴 적 꿈이었다. 물론 잠들지 않은 생시에 꾸는 꿈이었지만-

전차도 버스도 다니지 않는 먼 길을 심부름 가는 적이 있다. 반갑지 않은 심부름, 더욱이 동무들과 재미나게 놀든 일을 중단 당하고 가는 심부

름일 경우에는 그 먼 길이 한층 더 지루하기만 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한 그 길을 타달타달 가고 있을 때, 문득 비행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어린 나의 몸에서는 고달픔과 지루함이 말끔히 가시고, 청렬(淸冽)한 힘이 샘솟는다.

조그만 손을 이마에 대고 비행기를 따라 고개를 돌린다.

비행기는 빠르다. 잠깐 동안에 이편 산에서 나타나 저편 산으로 사라진다.

비행기가 저편 산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동안 멍하니 그 쪽을 바라보다가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그 자리에 주저 앉는다.

청렬하게 샘솟던 힘은 폭 가라앉고 아까보다 한층 더한 고달픔과 따분함이 엄습하는 것이다.

『비행기나 탔으면……』

이렇게 중얼거리려 본다.

그러나,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이내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비행기, 여기 내려오지 못할걸』

그리고는 그전부터 품고 있던『날아가는 구두』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마음대로 날라다닐 수 있는 구두를 신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데서나 구두 뒤축에 달린 단추를 눌러기만 하면 훨훨 날라 갈 수 있다. 빨리 날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날라갈 수도 있고, 높이 날을 수도 있고, 낮게 날을 수도 있고.

그렇게 훨훨 날아가다가 맛있는 과일이라도 가득히 열린 나무를 발견하면 새처럼 사뿐히 내려앉는다. 아니, 지금 그 구두를 신었다면, 심부름 가는 아주머니때까지 금새 날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집 마당에 거뜬히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추운 겨울이면 구두가 외투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엔 모자로 변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외투나 모자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제나 몸에 지니는 것은 신발이다.

이 언제나 몸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과학의 발달로 교통기관, 특히 항공기는 장족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상상을 불허할 만치 발달할 것엔 틀림없다. 그러나 나의 어린 꿈을 충족시킬 만치 발달해오지는 못했고, 또 발달할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언제나 몸에 지닐 수 있듯이』 발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야 헬리콥터라는 것이 있어서 좁은 지면에서도 발착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나라에선 등에 걸머지면 새처럼 날을 수 있는 기계도 발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역시『언제나 몸에 지닐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큰 깨작 같은 것이라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라디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치 소형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 어린 꿈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 대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우주로켓의 발달이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



김송희(金松姬)

<여류시인>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물어오면 축축이 젖어오는 꽃잎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씩 잃어버린다는……>

강은 꽃잎으로 문지른 흔적이 슬프다. 오월은 참한 기도인가. 아찔한 현기가 나를 이곳에 머물게 둔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의 눈동자가 가슴에 맺혀 있는 건. 오래 오래 맺혀 있는 건.

<당신을 꽃 피고 꽃 지고……. 포푸라가 몸으로 흐느낀다>

× × ×

오후의 강이 오월의 햇빛에 눈 부셨다. 멀리 수평선엔 그림 같은 나룻배가 하늘하늘 나의 가슴에 꿈을 안겨줬다. 강변 모래밭에는 현이랑 옥이 깔깔대며 뛰어 다니고 가끔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에게도 맨발로 뛰어오라는 거다. 왜 혼자서 청

송맞게 벤치에 앉아있느냐는 듯한 표정이 보이는 듯 싶었다. 나는 입술새로 웃음도 아닌 울음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지나친 자학도 끈질긴 권태도, 차라리 짧고 전율스런 아픔이 강바람처럼 내결에 넘실거리야만 했다.

한국의 탱즈강(뚝도)을 처음 찾아 들었을 적엔 내가 아직 치령 치령 머리를 땅았을 무렵이다. 허리 넘게 긴 머리칼이 아무래도 아까웠다 해서 친구들의 변한 이쁜 머리형에는 관심 갖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P선생님댁을 방문한 나를 골려준 소년이 있었다. 물론 그날 처음 알게 된 소년이었지만……. 『그 머리 꼭 말꼬랑지 같애』

한동안 멍청히 서 있던 나는 무안과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

『아마, 남의 귀중한 머리칼을 함부로 표현을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본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오』

장난이 가득한 눈으로 내가 삭아지고 말았다. 그 뒤 그 소년과 나는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가 되었다. 곧잘 산과 강변을 찾아 맑게 지껄이기도 했고 무엇이 불만이었는지는 몰라도 뽀루뽀루해서 헤어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르게 맑은 오후 우리는 탱즈강을 찾았다. 잔물결이 곱게 춤을 추는 듯 싶었고 나룻배는 여전히 떠 있었다. 포푸라는 흐늘흐늘 바람을 일으켰고 나는 또 엉뚱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센치한- 그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면. 놀이 우리 주변에 머물 때

강은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게 번쩍거렸다. 얼마동안인가 서로 입을 열지 않았다. 무엇에 그토록 생각을 열중해 버리고 말았던가. 불그레한 하늘이 시나브로 눈앞으로 들어 왔다.

『이 동안 모래밭에 묻어 둘까 봐』

모래알을 손가락으로 부벼가며 있던 소년이 나에게 말을 던졌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우리 나중 나중 와서 찾아내어도 좋다』

우리는 조그만 웅덩이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전을 넣고 모래 무덤을 만들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마음 쓰면서.

어찌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흡사한 의미를 가슴 안으로 안으로 밀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외롭다던가, 슬프다던가 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취해 갈수록 동심의 위치에 놓여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한 탓인지 이렇게 모래 무덤을 쌓았을 때 나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어둠이 강변에 깔리자 우리는 누가 더 멀리 팔매질을 하나 시험을 했다. 아주 열심히 경기장에서의 마음가짐으로 했지만 나는 소년에게 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나는 곧잘 패배를 소년과 있을 때마다 느끼곤 해왔다.

뚝으로 올라 섰다. 바람이 머릿칼을 날려 뺨을 기분 유쾌하게 간지리고 있었다. 나보다도 소년보다도 훨씬 큰 포푸라는 온몸으로 흐느끼는 강은 통곡하는 어느 아름다운 여인 등허리처럼 잔잔하게 서름을 삼키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요』

촉촉이 젖어 있는 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운명처럼 먼 거리에 손 흔들림을 보내고 있는 듯 싶어 약속처럼 우리는 좀 더 가깝게 다가서서 걸었다. 허지만 점점 혼자라는 환상에 젖어 외롭고 우울한 나였다.

그 뒤에도 우리는 성장과 함께 자주 만났다. 만난다는 것에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슴을 드밀었다.

× × ×

『희야 안올래? 참 멋있고 좋단다』

옥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나는 눈을 돌려 그들을 보았다. 저 만치서 현이랑 옥이 모래밭에 주저앉아 장난을 하고 있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들과 뛰어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나의 성숙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는 쾌감을 느끼는데 더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 샌가 나룻배는 어디메큼 이사가 버리고 똑딱선을 타고 온 술 취한 남자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짜증나게 했다. 귀를 때리는 걸걸한 목소리가 있었다.

『좀 쉬어 갑시다.』

내가 있는 벤치에 걸터앉은 남자가 있었다. 여자 혼자서 앉아 있는 게 재미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들에게 놀림을 받기에는 너무도 여유 있는 내 마

음가짐 탓인지 불쾌감보다 약간의 피곤감을 느끼고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현아』

나는 장난스런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 주기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옥이와 현이 손 흔들어 주는새에 그들은 내 걸을 떠났다. 참 너절하고 시시하다고 느끼며 일어섰다. 그리고 포푸라 나무 밑에서 보았다. 언젠가 소년과 함께 술래잡기하던 곳이다. 무척 옛날처럼 느껴지는 동심이 아니냐고 강 건너 숲을 쳐다보니 내가 무척이도 성숙해버린 듯 싶어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도 어느새 나는 사회인이 되었고 소년은 벌써 장교 후보생의 훈련을 받고 번쩍 거린 명찰과 함께 의젓한 공군소위님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런 성숙이 왜 나에게 슬픔을 안겨 주어야만 되는지 나는 당황할 때가 많다.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는 나에게 무엇이든 얻어진 보다는 잃어버린 텅 빈 가슴에 더 실감이 난 것은 웬 일일까.

소년이 모래무덤을 만들었을 때 부터 나는 운명처럼 방향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소년을 생각할 때나 만날 때마다 맑고 밝은 동심의 눈망울을 지니기 보다 짜증과 권태와 피곤에 젖어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나의 성숙이 얼마나 싫어지는지 모른다.

언젠가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늘 귀엽게만 보아 주신 스승님께 심각하게 애기를 꺼냈더니 결국은 아직 어리다고 꾸중만 들은 적이 있다. 허지만 그렇게 느껴 지는걸 어떻게 할까.

현이 웃음과 함께 옥이도 내 걸으로 왔다.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생각했느냐는 것이다. 나는 빙그레 웃을 수 밖에 없는 것도 혼자서 우울한 생각 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강변을 떠났다. 떠나면서도 나는 취한 듯 중얼거렸다. 나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소설>

무지개

손태희(孫泰熙)

그날도 마누라는 부채를 찾아 들고 이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영감의 뒤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층에 올라가려면 딱 질색을 하던 영감이었다.

이층에는 앞뒤로 문이 티어 있어서 더운 때는 아래층보다 한결 시원하니 이층에 올라가 낮잠을 자든가, 책자를 뒤지든가 하라고 마누라가 권하기라도 하면, 체면없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버럭 버럭 내고있던 영감이었다.

그러던 영감이 요즘은 뻔질나게 이층으로 오르내리는 것이다. 마누라는 그러한 영감의 뒷 모습을 바라다보며 그사이 이층에 영감이 재미를 붙였나 보라고 대견해 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옛집 생각이 잊혀지는 것 이거니 생각했든 것이다.



옛집이란 사변 전까지 박주사 일가가 살던 삼십칸 짜리 순 한국식 기와집 이었다. 사간 대청에 기둥과 대들보가 꼭 같이 아름다 넘는 아담한 집으로 박주사가 몹시 마음에 들어 하던 집이었다.

그 집이 육이오 동안 통에 원채는 폭격으로 없어지고 사랑채만이 헐어 질대로 헐어져서 남아 있었다. 그런대로 조금 돈을 들여서 손을 보면 박주사 일가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낼 만도 하였다.

그러나 박주사네 사랑이고 방이고 간에 수리란 아예 생념도 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주 빈손 들고 서울로 환도 해 온 것이다. 따라서 그들 일가에게는 거처도 거처지만 당장 끼니끼리가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박주사네는 헐값으로 예전의 집터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요즘살고 있는 적산집을 사고 온 것이다.

먼저 집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한국식 가옥을 사들자고 주장한 편은 영감이요, 방이 넓고 이층이 있는 적산 집을 사오자고 우긴 것은 딸 혜옥이었다.

마누라는 중간에서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끝내는 딸의 편을 들고야 말았다. 딸의 말대로「피아노·렛슨」을 봐주고 살아가는 형편이니 방이 여러 날 있는 적산집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를 와놓고 보니 마누라는 영감에게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성미가 꼬장꼬장한 영감이 날이면 날마다 찌뿌둥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럴 뿐 아니라, 막상 이사를 와놓고 보니 영감의 말이 옳았다.

집이란 아늑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온통 사통 팔달식으로 문이 나 있었다.

그러나 예전집이라면 몰라도 불편한 구조의 조그만 한국식 집은 마누라에게는 그다지 아쉽지가 않았다.

<영감도 인제 차차 이집에 정을 붙이게 될 테지, 사람이란 별수 없이 형편대로 살게 마련이지>

그러면서도 영감의 서글픈 표정에 맞닥뜨리면 민망해서 위로의 말조차 삼가고 있는 마누라였다. 마누라 역시 옛집과 새집을 비교해 볼 때 옛집만 못한 새집이 탐탁 할리 만무했다. 다만 영감처럼 불평을 입밖에 내지않는 것은 자신들이 우겨서 이집으로 이사를 온 때문이었다. 게다가 영감이 부쩍 늙어 버려서 그의 투정질도 그 때문에 심한지도 몰랐다. 그 팔팔하던 영감이 아주 죽치고 들어앉아 있으니 건성인들 오죽하랴 생활도 전혀 막내 딸인 혜옥에게 의지하고 있으니만치 생계에 대해서도 영감은 오불관인 격이지 않는가. 그런 탓인지 영감이 불평을 말하면 마누라는 그러한 영감의 심정이 이해되었고 이해되다보니

자연 마누라 편에서는 좀 부당할 정도로 고분고분 영감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요즘 영감이 이층에 올라가 반나절이나 혹은 한나절을 보내곤 하는 것이 마누라에게는 적잖이 대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 사오일전 까지만 해도 집 주변의 사면팔방이 온통 내려다보이는 것까지는 좋으나 뒷집 울안이며 마룻방과 건너방이 환히 들여다보이니 원 이런 창피한 꼴이 어디 있겠느냐고 마누라에게 책임을 묻던 영감이 아니 든가?

「창피하기는 뒷집 사람들이지 영감이 창피 할거야 없지 않소?」

하고 마누라가 텅기기라도 하면

「허어 저런 소리. 오죽해야 점잖은 터수에 사람이 남의 집을 넘어다보겠오? 그 쯤 되면 보이는 편의 불찰이 아니라 잘못은 엿보는 편에 있는거라.」

영감은 남의 집을 엿보는 편이 나쁘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래 마누라도

「그럼 보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고 영감에게 달라붙을라치면

「본시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눈을 뜨고 있으면 환이 눈 안에 보여지는 것들을 어찌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요, 벌써 우리네 조상들은 그런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예법에 어긋남이 없이 마누라고 집구조부터 그렇게 지은 거그든.」

하고 재래 한국식 건물의 구조를 찬양하여 기세를 올리곤 하던 영감이다. 그러던 영감이 무슨 바람에 불렀는지 요 며칠째 조반상을 물리고 나면 부채와 담배 봉지를 찾아 들고 이층으로 올라가버리는 것이다. 마누라는 은근히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중이 고기 맛을 들이면 딱정벌레까지 먹는다더니 우리 집 영감도 인제 이층에 맛을 들었나 보군.」

하고 다행히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흡사 오랫동안 시달려 오던 묵은 빛이라도 갇아 버린 듯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올라 왔다. 그사이 영감은 담배를 붙여 물고 창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마누라는 인뜻 또 옛집 생각인가? 영감의 쓸쓸해 보이는 옆모습을 바라다보았다. 영감은 성격이 꼬장꼬장한 편으로 무슨 일이건 간에 수월하게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러한 영감의 성미가 여간 딱하지 아니하다고

「여보, 앉아 게실라면 허리가 아플 텐데 이불이라도 올려다 고여 드리릿가?」

마누라는 은근히 물었다.
 「갑갑해서 앉아있는 편이 좋구려」
 영감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바꾸어「도꼬노마」기둥에 기대앉은 것이었다.
 마누라는 그날따라 몹시 마음이 아팠다.
 「어디 바람도 쏘일 겸 밖에라도 나가 보시구려」
 마누라는 새빨간 꽃 주머니 안에서 돈 삼십원을 꺼내 가지고 영감 앞에 밀어 놓았다. 영감은 돈을 집어넣을 생각도 없는지 그냥 담배만 뽁뽁 빨고 있더니
 「모두들 살기가 등등해서 으름대는 판에 이 꼴을 해가지고 나가긴 어디를 나간단 말이요」
 슬그머니 편잔을 주었다.
 하긴 그렇기도 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행세하던 영감이다. 그 영감이 당장 저 꼴을 해 가지구서야 어느 친구를 찾아 볼 마음도 나지 않을 것임에는 뻔했다. 마누라는 아까 영감이 앉았던 자리에 와서 앉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앉고 보니 뒷집은 자기의 손바닥 안에 든 손금모양 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마누라는 끝끝 혀를 차면서도 부엌문 쪽에 있는 수돗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옛 일곱 여덟에 나 뵈는 계집애에게 시선을 쏟고 있었다.
 계집애는 여간 예쁘지 않았다. 계집애 곁에서 알록쟁이가 물을 훔쳐 먹고 있었다.
 -아, 영감이 저 계집애를 보고 있었던가-.....
 핏득 이런 생각이 들어 마누라는 천천히 영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솟은 광대뼈를 제외 하고는 영감의 목줄기에게까지 깊은 주름살이 부채살같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술 많은 허릿한 머리와 초라하지 않은 몸집 덕에 아직도 풍채만은 그의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감은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한 영감의 표정은 지나온 스물 다섯해 동안에 익히 보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마누라는 영감의 그러한 표정에 맞닥뜨리면 노상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다. 사변전 까지만 해도 영감이 그렇게 눈을 감고 무슨 명상에 잠겨 있길라도 하면 마누라는,
 -또 장옥주 생각이로군-
 대수롭지 않게 빈정거렸던 것이다.
 영감의 초혼의 아내는 결혼해서 오년째 되던 해 산후증으로 애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지금의 마누라가 영감의 재취로 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마누라가 그와 결혼하기 까지는 그가 상처해서 오년 뒤였다. 그 사이 영감은 장옥주라는 나이 어린 기생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온집안이 서둘러서 재혼을 강요함으로 마지못해 장옥주와 헤어지고 드디어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뒤 이웃 아낙네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장옥주는 영감에게서 떠나 가는날 가마를 타고 갔는데, 가마 안에는 인삼과 금과 은이 장옥주 자신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영감의 나이 스물아홉으로 열여덟 나는 어린 처녀인 지금의 마누라는 영감이 어렵고 부끄러워 단 한 번도 자기의 남편에게 장옥주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본 일이 없었다.

두해 뒤에도 그랬고 새해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색시는 훨씬 손 위인 남편에게 장옥주에 관해 모르는체 하는 편이 맘 편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영감이 때 없이 눈을 감고 앉아 무엇을 생각하기라도 하면 마누라는 공연히 얼굴이 달아오르는군 하여 슬그머니 남편 앞을 물러나 오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옛 이야기나 다름없는 과거가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내다보는 바깥 풍경모양 희미하게 마누라의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었으나 이제 새삼스레 깊은 감회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영감의 표정에 맞닥뜨릴 적마다 물려드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적막감은 다름이 없었다.

다만 전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까짓것 그런 것이 다 무엇이람 마누라는 젊었던 시절의, 모습을 쓸쓸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버릴 수 있었다. 게다가 영감이 죽치고 들앉은 요즘은 전과 달라 측은한 생각이 앞서서 때가 많았다.

지금도 그랬다. 그녀의 눈에 익은 영감의 그 명상하는 모습이 몹시 쓸쓸하게 마누라의 눈에 비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따로 위로할말이 없어 푸우 한숨을 끄고 생각하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영감이 가산의 몰락에 곁들여 몸이 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하필이면 왜 자기는 장옥주라는 별서 잊어진지 오랜 기생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장옥주도 이미 늙었을 터인데.

그러면서도 마누라는 무언가 미심적어 다시 시선을 뒷집 뜰악으로 돌렸더니 그 사이 뒷집 대청마루에는 낫모를 소복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한 사십쯤 나뉘는 아직도 고운 티가 가시지 않은 여자였다.

〈아 며칠 전에 이사 온 주인 마나님인 모양이지〉

마누라는 이상하게 습결이 가파도 왔으나 다시 건들건들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다. 때마침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여자는,

「이리 온」

하고 팔을 벌려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입 언저리가

하얀 알록갱이가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 들더니 옷깃을 활고 재롱이 여간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몇 번 만난 여자만 같아-

마누라는 고개를 몇 번이나 비틀다가 다시 영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영감은 어느새 꽃 퇴침을 베고 드러누워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혜옥이가 조무래기 피아니스트 지망자에게 피아노를 가르키고 있는 모양으로 단조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 왔다.

「쫓, 쫓, 어디 낮잡이나 자겠나, 저놈의 소리 때문에」

영감은 와락 역정을 내며 돌아 눕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멍해서 영감을 바라다보았다. 아난게 아니라 아침엔 여섯시부터 몰려들어 똥땅거리니 늙은이가 작이나 듣기 싫을까만 그러나 혜옥의 생각도 좀 해 줘야 할 것인데- 마누라는 좀 더 재빨리 부채를 붙쳤다.

「여보 그 부채를 좀 작작 부치구려 원 저놈의 소리예다 부채까지 뚜들겨 대니 귀가 전딜 수가 있나? 쫓쫓」

영감은 적잖이 울곤잡은 목소리로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마누라는 참기로 했다. 예전 사랑채 생각이 나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피아노 소리가 우리집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데 영감은 번연히 아는 때를 쓰는군」

마누라는 부채를 부치는 손을 멈추고 가만 가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한 사흘 뒤였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혜옥이와 더불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마누라는 영감이 있을 이층으로 올라갔다. 영감이 즐기는 민어회에다 어름을 재워 왔으니 아래층에 내려와 약주에다 민어회를 들라고 이르러 올라갔던 것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층에 있어야 할 영감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한동안 기다려 보았으나 역시 감감 소식이었다.

영감이 어텔 가더니고 부엌아이에게 물었더니 나가는걸 보지 못했노라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다시 변소를 돌아보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아까 있지 아니하던 영감이 거기 있을리 없었다.

<어디 갔을가?>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마음에 잡히는데가 없었다. 마누라는 다시 아래층에 내려 와서 뜰악까지 살펴 보았다.

그러나 살펴 보는 것만이 어리숙한 노릇이었다.

「애야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마누라는 드디어 딸인 혜옥이에게 울상이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바람이라두 쏘이러 밖에 나가신게요」

딸 혜옥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글쎄 그랬으면 좋으련만」

마누라는 추연한 낯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다보았다.

「그럼 어디 도망을 치셨겠어요 어머니는 참 너무 하셔 아버지가 뭐 어린 앤 줄 아세요」

혜옥은 울곤잡은 목소리로 쏘아 부치었다.

「그도 그렇지만 우리가 나갈 때 모시고 나갈걸 그랬나봐, 전에 그렇게 지나시지 않던 어른이 줄곧 죽치구 들았아만 계실려니까 화가 나셨던게지, 그렇잖아두 요즘은 화를 잘내시더라」

「그런건 어머니한테, 더러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죄송해서 어머니가 찢찢 매니까 아버지두 또 괜히 성을 내시곤 하시지 뭐예요」

어머니는 딸의 야무진 핀잔이 노엽고 서글펐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그러한 말 따위를 탓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는 영감의 행방이 궁금해서 전딜 수가 없었다.

밖에 다녀오겠으니 당신은 집이나 봐 주시오, 한 것이 노여우셨을까?

두루생각 하다가 마누라는 영감의 모시 두루마기를 찾기 시작했다. 행여 이웃 가게 같은데 가서 장기관이라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만일 그렇다면 두루마기는 그냥 있을 것이다. 마누라는 바빠 이층에 올라 와 옷장을 열어 재겼다. 두루마기가 없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레 옷장 문을 닫고 서서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마누라의 눈에는 뜻하지 않았던 풍경이 보여 졌다. 참으로 상상 밖이었다.

이제금 불길한 예감까지 느끼면서 그의 행방을 궁금히 생각한 마누라의 눈앞에 영감은 품시 유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뒷집 마루방이었다. 마누라는 주먹으로 눈을 비비곤 하면서 다시금 영감을 바라다보았다.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저윽히 즐거운 표정이었다.

마누라는 다다미위에 필쩍 주저앉았다. 영감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 여자는 저번 날 보았던 뒷집 주인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꼭 본적이 있는 여자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도 어디서 언제 보았던지는 영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 채 마누라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냥 앉아서 영감의 표정을 살피다 보니 은근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체면 없이>

영감이 알면 그렇게 나무랄 것도 같았다. 한데 또 어찌된 셈인지

「애야 아버지 뒷집에 계시더라」
 하고 딸에게 말하기가 싫었다. 사람이 이웃 간에 왕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까 너무 호들갑스레 걱정을 한 때문인지 딸의 앞일 망정 「글쎄 아버지가 뒷집에 계신걸 가지고」
 통정하기 거북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좀 뒤에 영감이 돌아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묻기도 또,
 「왜 뒷집엔 갔습니까? 구면이든가요?」
 라고, 묻기도 어쩐지 쑥스러웠다. 다만 민어회에다 약주를 받쳐 영감 앞에 가져다 놓고 영감의 눈치만을 살폈다. 영감은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보, 오늘이 누구의 생일이던가?」
 하고 전에 없이 농담을 걸어왔다. 그러자 잠잠히 앉아 있던 혜옥이가
 「그새 어머니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셨다구 울상을 하고 걱정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진 어덜가, 갑갑해서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쏘였지」
 영감은 이번에도 상냥한 어조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한낮이었다. 마누라는 영감의 뒤를 따라 이층으로 올라갔다. 영감은 어느덧 꽃 퇴침을 베고 누어있었다.
 마누라는 멀찌감치 서서 뒷집 마루방을 건너다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무것도 바라다 볼 것이 없으니까 누어버린 계로군>
 마누라는 다시 뒷 건너 방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안에는 과란 모기장이 쳐져 있었다.
 <저 방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아들? 딸? 어째서 방장을 건우지 않았을까? 혹시 병자라도 있는게 아닌가?>
 마누라는 여전히 처진 방장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방장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자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넓적다리가 보여 지더니 차츰 팔과 머리의 윤곽이 또렷하게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듯 돌아앉아서 이마에 골을 지었다.
 <영감은 분명히 저 광경을 보았을 터인데 왜 자는 시늉을 하고 있을까 내가 민망해서 저러는 걸까>
 그녀는 생각 난 듯이 다시 영감의 낮에 부채질을 했다.
 영감은 그냥 잠든 시늉을 하고 있었다.

마누라는 영감을 일으켜 가지고 저 집은 뉘덕이며 주인은 누구며 저번 공 일날엔 왜 그리 갔었느냐, 하고 묻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들이 도무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시간 쯤 되었다. 마누라는 자기도 모르게 가만가만 이층으로 올라 왔다. 영감은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저번날 처럼, 창가에서 저만치 떨어진 위치에서였다.

마누라는 뒷집 뜰에서 마룻방까지 훑 한 바퀴 시선을 달렸다. 그랬더니 마룻방에는 먼지의 그 여자가 예의 팽이를 어르며 앉아 있었다. 목덜미가 하얀 알록 팽이는 여자의 목덜미를 훑으며 어깨놀이에서 방자하게 놀고 있었다. 검은 윤이 흐르는 여자의 머리에는「웨이브」가 곱게 나 있고 뒤에는 얇전하게 쪽이 붙어 있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바른손으로 팽이를 낚아채서 사뿐 뜰아래다 내동댕이쳐 버리더니 흰 인조 속치마를 끌며 안방 쪽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녀는 허튼 데를 보는 일도 없거니와 마누라가 서 있는 이층집에다 시선을 돌리는 일은 더욱 없었다. 마누라는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했다.

<영감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볼까>

마누라는 갑자기 신들린 사람모양.

쭈루루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왔다.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씻고, 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가서 섰다.

<옛날에는 남들이 예뻐이라고 했건만, 이 모양으로 변모 하다니>

마누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어렸다.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누르며 양산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오자 마누라는 양산을 받았다. 받았다고 보다는 양산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함이 옳았다. 그리고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뒷집 대문앞에 가서 섰다. 그집 대문 기둥 한편에는 꽤 낡아 보이는 문패가 하나 붙어 있었다. 문패에는 틀림없이 장옥주라고 있었다. 순간 마누라의 떨리는 바른 손이 문패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누라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망측해라>

그녀는 돌아서서 남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옮기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한참동안 장옥주란 문패를 바라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영감의 맘 속에서 살아 온 이름인 지도 몰랐다. 자기 이상 때때로 맘속에서 장옥주는 영감과 더불어 울고 웃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장옥주를 자기는 언제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느꼈던 것도 같다. 그리고 보면 장옥주는 자신의 맘 속에서도 역시 살고 있었더라 말인가. 마누라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게 고여 났다. 뒤를 이어 각가지 빗줄의 무지개도 피여 올랐다. 노랑빛, 파랑빛, 빨간빛 또 그와 비슷한 간색들 사이에 뿌연 동그라미도 피여 올랐다. 마누라는 주먹으로 그것들을 닦아냈다. 닦아내며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요즘 집은 영감이 싫어해서 팔아야겠어요., 팔아서 한국식 기와집하고 바퀴 채야겠어요. 서둘러서 특별히 서둘러서 아주 빠른 날자 안으로 주선을 해주세요. 특별히, 특별히 서둘러서> 마누라는 숨을 쉰거리며 부산히 걸음을 복덕방으로 향해 옮기고 있었다.

◇모택동의 사진

모택동의 사진은 실제 인물보다 높아 보이고 점잖하게 보이며 자비롭게 보이게끔 몽파주 한 것이다. 그의 머리는 것처럼 벗어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도 너그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은 일본「마이니찌」신문기자 혼노가 중국본토를 사요일간 여행하고 돌아온 기사 속에 밝혀졌으며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 했다-중공에 있어서의 모의 사진은 하나의 초상화며 그 초상화는 환쟁이와 같다고. 또「과거에 유교 중국은 천자사상이 있어서 천자를 숭배했던 것과 같이 중국공산당은 인민에게 모택동을 천자와 같이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산제국주의

「미래」의「라만」수상은 중공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제국주의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중공이다. 그들은 입을 열면 미국을 제국주의의 아성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실 자기들이 제국주의의 전형적 표본임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사생활과 심지어는 심령까지도 통제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동맹국까지도 주저 없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인도 국경분쟁이 바로 그것이다.「네루」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유엔가입을 지원했다. 그러나 모택동의 귀에는「우리를 살려주시오」라는 애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백화제방」의 난

한때 중공에는「백화제방의 난」이라는 시어가 유행하였다. 그것은 본토의 우익인사들이 모를 비롯한 중공간부들의 호화롭고 사치로운 생활을 폭로하고 공격해서 그들의 입장을 곤란케 한데서 유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공간부들은 그들의 조석상에 산해의 진미를 감추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제창한 이른바「백화제방」의 방(放)을「방(防)」자로 고치고 말았다고 진명추(陳名樞)씨가 말했다.

편집후기



◇…이번호부터 발간순기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 같다. 하긴 그동안에도 제때에 맞추어 계획을 했고, 원고 수집을 했고, 편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뜻과 같지 못해 늦어지곤 한 것이다. 장병들이 바라는 잡지를 제때 낸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거듭 힘 쓸 것을 다짐한다.

◇…어느덧 광복 18주년.

그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던 말인가? 다 같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 보자.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의욕, 그때의 결의를 되살려 보자.

<이달의 말>로 이병수박사의「학대받는 8·15」를 듣기로 했다.

◇…「내가 본 그 나라의 민주주의」특집을 꾸렸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더 붙은 역사가 짧다. 그러니까 되도록 앞서 민주주의를 가꾸어 꽃을 피운 나라들을 배우자. 그리고 또 힘써보자. 부러움에만 그쳐서는 아무런 뜻도 없다.

◇…임어당씨의「익명」을 새로 연재한다. 잘 알려진 분이기에 필자소개는 그 만둔다. 공산주의의 거짓된 속 알맹이들을 사실에 근거를 두고 낱알이 파헤칠 것이다. 씨의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풍자에 기대를 모아보자.

◇…씨는 듯한 무더위가 영 곁힐 줄 모른다. 마지막 교정을 넘기고 한숨을 내 쉰다. 정말「책내기」란 힘든 것이다.

그간 새해동안을 편집업무에 종사하면서「코메트」에서「미사일」「공군」에 이르기까지 정훈간행물의 육성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이문규중위님이 이달 말 일로 군복을 벗는다. 아쉬운 마음 그지없으나 또 다른 분야에서 이바지 할 것을 기약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눈다. (현)

◇…염제의 황포도 이제 막마지 고개를 넘고 있다. 하지만 머리속에는 이미 낙엽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우리 공군의 1년치고 가장 큰 행사인 10월의「건군기념호」원고청탁이 나가고 11월호의 편집계획을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으니 계절을 이렇게 앞질러 가다간 남보다 먼저 늙을지도 모른다. 그뿐이라. 계절에 대한 과잉의식으로 도리어 계절 감각에 혼돈을 가져 온다. 8월, 9월, 10월, 11월의 업무를 한꺼번에 만지다 보니.(영)

표지

8.15 광복절을 주제로 삼았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하늘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을 상징해서 공군도표-이로서 무궁화는 다시 힘차게 소생한다.

오색지는 전 민족의 한결같은 기쁨을 상징하는 동시에 역사적인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민철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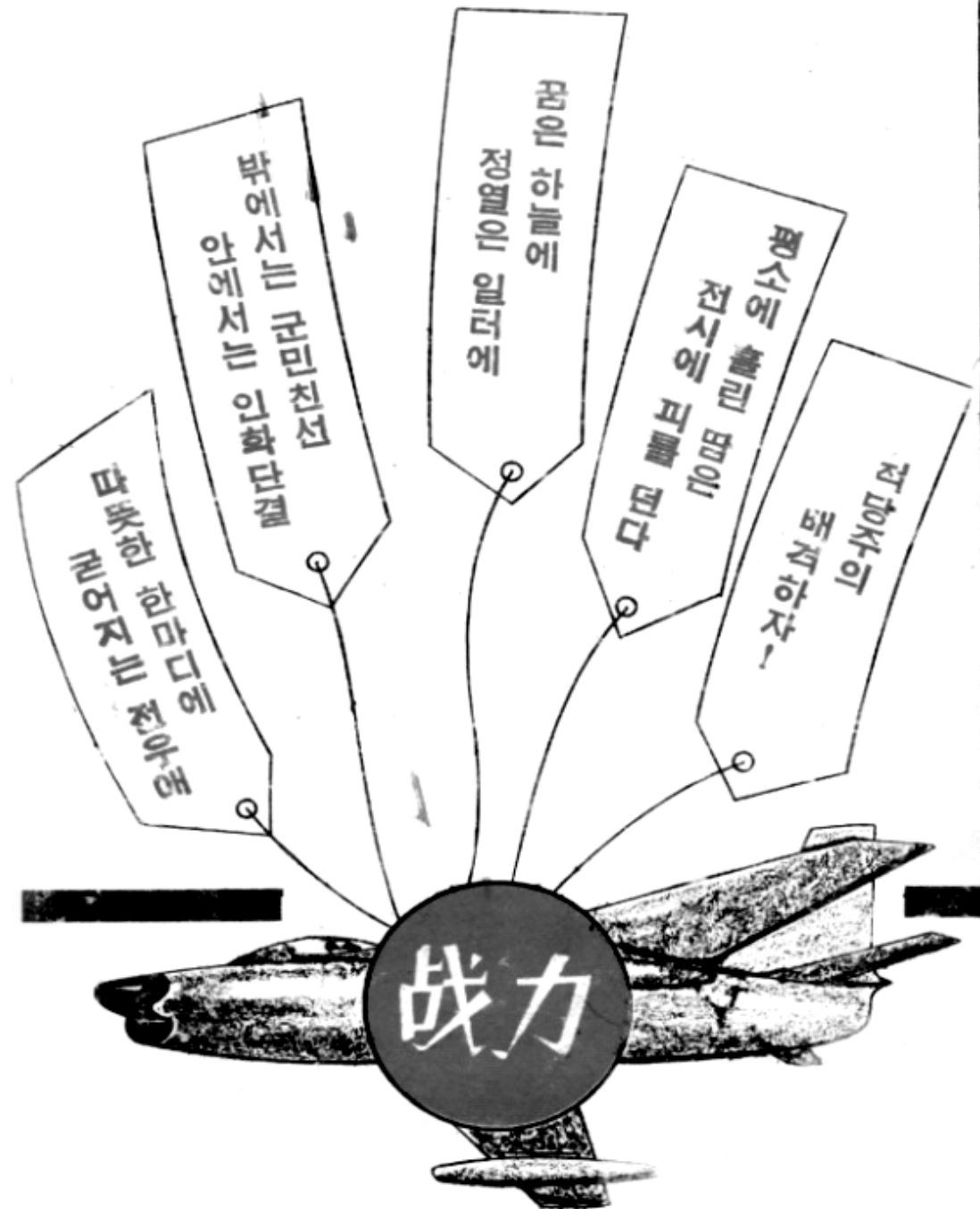


미군기도 우리 공군에서 창정비(廠整備)

7월 1일, 본부에서는 미군기를 우리 공군의 손으로 정비하는 계약이 양군측 대표에 의해서 조인되었는데 사진은 우리 대표인 군수국장 이창순 대령과 미군 구매관「톰 프슨」씨가 서명하고 있다.

교수들의 활공훈련 수료식

각 대학에서 선출된 체육교수에 대한 활공훈련 수료식이 7월 23일 여의도 기지에서 거행되었다.





명단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